

정책자료 2008-11-2

2008년 기초보장모니터링 수급자 현장조사자료
- 중소도시·농어촌 -

한 국 보 건 사 회 연 구 원
기초보장·자활정책평가센터

2008년 기초보장모니터링 수급자 현황조사자료Ⅱ
-중소도시·농어촌-

정책자료 2008-11-2

발행일 2008년 12월
저자 이태진 외
발행인 김용하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록 제8-142호(94.7.1)
주소 (122-705)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68
전화 02-380-8000(대표)
팩스 02-352-9129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가격 6,000원
인쇄처 대명기획(02-2263-1292)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ISBN 978-89-8187-567-1 93330

편저

이태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평가센터장
김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은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목 차

I. 조사개요	1
1. 기초보장평가센터 소개	1
2. 조사의 목적 및 활용도	1
3. 조사 방법	3
4. 조사대상자 특성	4
5. 조사문항	7
II. 조사결과	12
수급자 13	13
수급자 14	39
수급자 15	69
수급자 16	94
수급자 17	132
수급자 18	163

1. 기초보장평가센터 소개

설립목적

- 기초보장·자활정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전 국민에 대한 기초보장과 함께 자활정책의 역동성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기여하기 위해 2001년 12월 설립

사업내용

- 기초보장 및 자활사업의 효율적 제도운영과 예산운용을 위한 모니터링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 빈곤과 공공부조 제도·정책에 관한 심층 연구 및 빈곤통계 연보 발간
- 빈곤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토론 및 대안 모색을 위한 포럼 운영
- 빈곤과 공공부조 제도 및 관련정책에 대한 심층 연구 진행

2. 조사의 목적 및 활용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저생활보장과 자활기반조성'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잘 달성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평가 작업이 필요함.

- 이에 기초보장평가센터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 위치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최저생활보장과 자활기반조성에 대한 목적 달성 정도를 평가함으로써

2 2008년 기초보장모니터링 수급자 현장조사자료: 중소도시·농어촌

문제점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및 평가작업을 수행해오고 있음.

- 2008년도에는 '200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기반조성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를 주제로 모니터링 및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동 과정에서 수급가구와 공급자(사회복지전담공무원)를 대상으로 한 질적조사를 실시하였음.
- 질적조사 결과는 녹취록의 형태로 정리하여 동 연구 수행의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정리된 녹취록 원 자료를 별도로 엮어서 정책자료집으로 발간하게 되었음.
 - 정책자료는 '2008년 기초보장모니터링 수급자 현장조사자료: 수도권·광역시', '2008년 기초보장모니터링 수급자 현장조사자료: 중소도시·농어촌', '2008년 기초보장모니터링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현장조사자료'로 구성됨.
 - 본 정책자료는 2008년 기초보장모니터링 수급자 현장조사자료 중 중소도시·농어촌에 대한 자료를 담고 있음.
- 본 정책자료는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통상적인 평가들에는 담겨지기 어려운 제도시행 현장의 상황을 다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써의 의의를 가지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모니터링 및 평가의 질적인 지평과 깊이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본 자료는 다음과 같이 활용될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연구자 및 정책입안자들에게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함으로써 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평가와 그 개선방안을 위한 참고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음.
 - 제도의 일선 담당자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제도에 대한 인식, 수급자에

대한 태도, 업무에 대한 태도 등을 파악할 수 있어 제도 시행주체의 인식 및 태도가 제도운영에 미치는 영향 등의 연구에 참고자료로 활용가능

3. 조사방법

- 본 조사는 연구자가 반구조화 된 개방형 질문으로 연구참여자와 2시간 정도의 심층 면담을 통해 진행함.
 - 면담은 연구진 2명 이상이 방문면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연구참여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 진행 과정 등에 대한 사전 설명을 통해 연구참여 동의를 얻은 후 실시함.
 - 연구참여자의 표현을 생생하게 빠짐없이 기록하기 위해 참여자의 동의 하에 녹음기, 연구메모 등을 사용하였으며, 후에 녹음된 내용을 필사하여 사용함.
 - 면담 방법은 연구참여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충분히 하도록 시간을 제한하지 않았으며, 연구자는 면접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질문을 함. 이 과정에서 본 연구 주제와 부합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하게 질문함.
- 면담 장소는 수급자의 경우 주로 조사 대상자의 집에서, 공급자의 경우 업무 공간인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 내 상담실에서 이루어짐.
 - 수급자의 경우 이러한 면접 장소는 조사 대상자들의 생활공간을 직접 볼 수 있어 이들의 삶에 대한 이해를 높였으며, 공급자의 경우에는 업무환경, 조직분위기를 볼 수 있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행정조직에 대한 이해를 높였음.
- 면담내용은 익명으로 처리하였고 연구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음을 약속하였으며, 자료의 정확한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면담하거나 전화할 경우가 있음을 알려줌.

4 2008년 기초보장모니터링 수급자 현장조사자료: 중소도시·농어촌

□ 면접은 1차 조사의 경우 2008년 8~9월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추가조사는 9~10월 까지 실시하였음.

4. 조사대상자 특성

□ 조사 대상은 수도권, 광역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으로 나누어 수급자 18가구 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7개 사례를 대상으로 함.

- 수급자는 수도권 6가구, 광역시 6가구, 중소도시 5가구, 농어촌 1가구로 구성 하였으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수도권 2개, 광역시 2개, 중소도시 2개, 농어 촌 1개로 구성함.

〈표 1〉 수급자 조사 대상 가구의 지역별, 가구 특성별 배분

구분	수도권		광역시		중소도시		농어촌		계 조사
	서울 노원	인천 부평	대전 동구	부산 북구	전북 전주	경북 안동	전남 영광	강원 횡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 ¹⁾	1	1	1	1	1	0	1	7
①조건부수급			한부모1			단독1	일반1		3
②현재취업창업	한부모1	한부모1		한부모1					3
③가구여건곤란	한부모1				한부모1				2
④환경적응필요			단독1						1
⑤조건제시유예		단독1			한부모1				2
⑥자활특례	한부모1			단독1					2
⑦치료요양필요			한부모1						1
⑧65세이상	단독1			단독1	조손1	조손1			4
계	4	2	3	3	3	2	1		18
비고	장애2 노인1 근로1	장애1 근로2	장애1 근로1	노인1 근로2	노인1 장애2	장애1 노인1 근로1	장애1 근로1		

주: 1) 녹음기기의 문제로 인해 녹취록으로 기록하지 못했음.

가. 수급자 특성

- 조사대상 수급자의 가구유형을 살펴보면 일반가구 1가구, 한부모가구 9가구, 조손가구 2가구, 단독가구 6가구의 분포를 보임.
 - 수도권·광역시 가구유형은 한부모가구 7가구, 단독가구 5가구로 구성되며, 중소도시·농어촌 가구유형은 일반가구 1가구, 한부모가구 2가구, 조손가구 2가구, 단독가구 1가구로 구성됨.
- 가구원 특성별로 살펴보면 장애인가가 8가구, 노인가가 4가구로 나타났으며, 응답가구 중 근로가구는 응답자 18가구 중 8가구임.
 - 수도권·광역시는 장애인가가 4가구, 노인가가 2가구로 나타났으며, 응답자 12가구 중 근로가구는 6가구임. 중소도시·농어촌 가구원 특성은 장애인가가 4가구, 노인가가 2가구로 나타났으며, 응답자 6가구 중 근로가구는 2가구임.

<표 2> 수급자 조사 대상 가구의 특성

사례	연령	지역	가구유형 (가구원수)	가구원특성	수급유형
01	50대	수도권	한부모가구(3)	편모, 아들1 딸1/ 자활근로	자활특례
02	50대		한부모가구(2)	편모/아들1/ 복지관에서 근로	조건부과제외 (현재취업창업)
03	70대		단독가구(1)	노인단독가구/장애2급	일반수급 (65세이상)
04	50대		한부모가구(4)	편모/아들3/ 아들이 신장장애인	조건부과제외 (가구여건곤란)
05	40대		한부모가구(2)	편부/ 간헐적 근로활동	조건부과제외 (현재취업창업)
06	50대		단독가구(1)	시각장애 6급	조건제시유예

6 2008년 기초보장모니터링 수급자 현장조사자료: 중소도시·농어촌

〈표 2〉 수급자 조사 대상 가구의 특성(계속)

사례	연령	지역	가구유형 (가구원수)	가구원특성	수급유형
07	30대	광역시	한부모가구(3)	편모/자활사업	조건부수급
08	40대		단독가구(1) * 실제와 다름	근로안함/장애4급 인근 아파트에 이혼한 부인과 자녀2	조건부과제외 (환경적응필요)
09	30대		한부모가구(3)	편모/근로안함	조건부과제외 (치료요양필요)
10	20대		한부모가구(2)	편모가구/복지관에서 근로	조건부과제외 (현재취업창업)
11	60대		단독가구(1)	단독가구/자활사업 참여	자활특례
12	60대		단독가구(1)	노인단독가구	일반수급 (65세 이상)
13	60대	중 소 도 시	조손가구(3)	부인과 손자1	일반수급 (65세 이상)
14	50대		단독가구(1)	장애6급/자활사업참여	조건부수급
15	50대		한부모가구(2)	편부/ 근로 안함/ 호흡기장애 2급	조건제시유예
16	40대		한부모가구(2)	편부/ 근로 안함/ 지체장애 1급	조건부과제외 (가구여건곤란)
17	70대		조손가구(4)	노인과 손자3	일반수급
18	40대	농 어 촌	일반가구(4)	장애 6급 본인과 아들2/자활사업	조건부수급

주: 연령은 응답자의 연령대를 의미한다.

나. 공급자 특성

- 총 7개의 사례 중 수도권 2개, 광역시 2개, 중소도시 2개, 농어촌 1개의 지역 분포를 나타내며, 수도권의 경우 면접 중간에 연구 참여자가 교체되어 1개 지역에서 2명이 참여함.
-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 공급자 3명, 여성 공급자 4명이었으며, 모두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였음.

〈표 3〉 조사 대상 공급자의 특성

사례	연령	성별	지역	근속기간	자격증 여부
01	-	남	수도권(서울)	-	사회복지직
02	30대	남	수도권(인천)	2년 2개월	
	30대	여		3년 10개월	
03	30대	여	광역시	약 12년	
04	40대	남	광역시	약 19년	
05	30대	여	중소도시	-	
06	40대	남	중소도시	약 16년	
07	30대	여	농어촌	약 4년	

5. 조사문항

가. 수급자 조사문항

- 수급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주요 내용은 '기초보장수급자들의 근로의욕 및 실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한 자립과 자활 내용' 수립에 관한 것임.

8 2008년 기초생활보장모니터링 수급자 현장조사자료: 중소도시·농어촌

- 따라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질문 내용은 제도의 모니터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이들의 생활과 관련된 것이 주를 이룸. 제도의 모니터링 대상인 수급자를 통해 파악하고자 한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급여 신청 사유

- 가구 유형별로 상이한 원인 파악

2) 일상생활의 모습들

- 단순 생계유지에 급급한지, 수급 탈피의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한 달에 쓰는 생활비의 구체적인 내역, 예기치 않은 지출이 생겼을 때 처리하는 방식, 궁핍의 결과

3) 일

- 직업력, 일하는 데 장애가 되는 요인, 하고 싶은 일, 현재 하는 일 등

4)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에 대한 생각

- 수급을 탈피하고자 하는지, 수급의 효과 등

5)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행에 대한 수급자의 평가

-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정보를 얻는 주요 원천, 제도에서 가장 좋은 부분과 가장 아쉬운 부분에 대한 의견

〈표 4〉 수급자용 쟁점 및 질문 내용

구분	질문내용
일반현황	- 가족상황(가구원 수, 가구원 특성) - 원가족 배경 및 관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최초 수급 내용 및 접근방법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이력
근로능력판정	- 근로능력 판정과정에 대한 이해 - 수급자 근로 이력 및 근로 의욕
조건부과제의 판정	- 조건부과제의 판정 과정에 대한 수급자의 평가 - 현재취업창업자: 근로 및 소득은닉 여부와 사유 - 조건제시유예자: 진단서 부정 발급 - 환경적응필요자: 진단서 부정 발급
자활사업 참여 vs 불참	- 자활사업 불참 사유 - 자활사업 한계 및 개선방안 - 조건부과제외자의 비공식 근로 - 자활사업 배치과정 및 현재 근로 실태 - 자활사업 사후관리 실태 - 자활사업 참여에 대한 만족도 - 일반노동시장과 자활사업 비교
조건부 수급자 근로의욕	- 근로 및 수급탈피 의욕과 원인 - 통합급여체계에서의 근로 의욕 - 취업활동 및 취업환경 - 인적자본개발 활동 및 미래계획
조건불이행/ 부정수급 제재	- 부정수급 인식 및 갈등발생 여부 - 조건 불이행 판정 여부
추정소득 부과	- 추정소득부과 회피를 위한 소득 은닉 여부 - 추정소득부과 회피를 위한 진단서 부정 발급 - 추정소득 부과 경험 및 개선방안

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조사문항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주요 조사내용은 주로 '근로능력판정 및 자활사업배치, 사후관리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가'와 관련됨.

10 2008년 기초보장모니터링 수급자 현장조사자료: 중소도시·농어촌

- 따라서 질문의 내용은 제도 실행에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며,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근로능력판정관련 업무수행 과정 및 평가

- 근로능력 유무 판정관련 업무
-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하는 지침 상 기준의 한계
- 수급자와의 갈등
- 진단서로 인한 근로능력 판정 기준의 객관화 방안
- 근로능력 판정 체계에 관한 개선사항

2) 조건부과제의 판정관련 업무수행 과정 및 평가

- 조건부과제의 판정관련 업무
- 선정방식에 있어서의 상담과정 대체에 관한 논의
- 진단서 등 제출서류의 신뢰성
- 조건부과제외자 사후관리

3) 조건부 수급자 자활프로그램 선정과정 및 사후관리

- 자활프로그램 선정 기준의 적절성
- 자활프로그램 배치 시 수급자 욕구 고려
- 자활프로그램 참여자 사후관리
- 조건불이행, 부정수급 제재
- 자활 초기 목표에 대한 성과 및 한계

4) 추정소득 부과

- 추정소득 부과 기준 및 사례
- 수급자 신고 소득 및 제출한 진단서의 신뢰성
- 추정소득 부과 시 소명기회 제공 여부 및 갈등 사례

〈표 5〉 사회복지전담공무원용 쟁점 및 질문내용

구분	질문내용
일반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특성(수급가구 수, 수급자 구성, 정서적 특성) - 공무원 주요 업무 및 기초보장제도관련 업무 - 관내 조건부 수급자 및 조건부과 제외자 수
근로능력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능력 판정과정 및 시기에 대한 수급자 안내 - 근로무능력자에 대한 판정절차 및 업무내용 - 판정결과 고지 및 수급자와의 갈등사례 - 진단서로 인한 근로능력 판정 기준의 객관화 방안 - 근로능력 판정 지침의 한계 및 개선방안
조건부과제외 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건부과제외 판정과정 및 제출서류의 신뢰성 - 선정방식에 있어서의 상담 대체에 관한 논의 - 조건부과제외자 비공식 근로실태 및 조사관리방법 - 조건부과제외자의 탈수급 의지 - 조건부과제외자의 근로활동 지원 방법 - 조건부과제외자 사후관리
자활프로그램 선정 및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프로그램 선정 기준 및 적절성 - 자활프로그램 배치 시 수급자 욕구 고려 여부 - 자활프로그램 참여자 관리 - 조건불이행 및 부정수급 제재 - 부정 근로 수급자의 소득부과 비율 논의 - 자활 초기 목표에 대한 지금까지의 성과 정도 - 현 자활프로그램 내용의 한계 - 자활관련 기관 및 담당자 네트워크 실태
추정소득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정소득 부과 기준 및 사례 - 추정소득 부과 시 소명기회 제공 여부 및 갈등

II 조사결과

□ 본 자료집(2008년 기초보장모니터링 수급자 현장조사자료: 중소도시·농어촌)은 중소도시·농어촌 수급자 6가구에 대한 조사 결과를 담고 있음.

사례	연령	지역	가구유형 (가구원수)	가구원특성	수급유형
13	60대	중 소 도 시	조손가구(3)	부인과 손자1	일반수급 (65세 이상)
14	50대		단독가구(1)	장애6급/자활사업참여	조건부수급
15	50대		한부모가구(2)	편부/ 근로 안함/ 호흡기장애 2급	조건제시유예
16	40대		한부모가구(2)	편부/ 근로 안함/ 지체장애 1급	조건부과제외 (가구여건곤란)
17	70대		조손가구(4)	노인과 손자3	일반수급
18	40대	농 어 촌	일반가구(4)	장애 6급 본인과 아들2/자활사업	조건부수급

□ 수급자 13

- 조사지역 : 중소도시
- 가구유형 : 조손가구
- 수급유형 : 현재수급
- 수급기간 : 2004년부터 약 4~5년 정도
- 응답자 가구사항

가구주와의 관계	연령	성별	직업 및 경제활동	장애여부(등급 및 내용)
본인	70	남	무	유(장애 6급)
배우자	67	여	무	무
손자	14		학생	무

※ 응답자 본인을 1번으로 기록할 것

- 주거상태

주거시설(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난방, 수도시설 등)과 주거지환경에 대한 간단한 묘사(교통입지나 직장, 학교와의 거리 등)
<p>임대하거나 본인 소유의 집이 아니라, 안동김씨 문중 재산 집에서 주위의 산소를 돌보면서 무료로 거주하고 있었음. 방2개, 거실겸 부엌이 있었으며, 필요한 가재도 구나 살림살이들은 충분히 구비되어 있었음. 연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어서 동절기에는 연탄구입비용이 많이 든다고 함. 집이 작은 동산의 거의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동이 어렵고, 생활시설들과의 접근성이 떨어졌음.</p>

○ 조사평가

조사전반에 대한 느낌 - 조사를 마친 후 조사자가 직접 기록
가구주의 경우 고령이고, 시각장애 6급인데다 과거 근로이력도 거의 없어서 일할 의지나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배우자의 경우에도 건강상 이유로 일을 안 한지 오래되어 다시 일할 의지가 없었음. 부양의무자(아들)가 있었는데, 부양의무자가 모두 사업실패, 건강 상 이유로 부양을 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음. 부양의무자의 경우 전혀 부양능력이 없는 것인지, 전혀 근로를 하고 있지 않은지는 확실하지 않음.

* 대답하시는 분이 두 분이라 남자분은 A, 여자분은 B로 했음.

Q: 말씀하시는 거 받아써야 하는데 받아쓰기 힘들어서 저희가 녹음을 할게요.

A: 간혹 가다 한 번씩 집도 손봐주고, 집이 내 집이 아닙니다. 집이 내 집이 아니고 이 집이 시내 안동 김씨들 문중 제사 집이네요. 문중 제사집에 그래 내가 여기와 살고 있어요.

B: 작년에 복지에서 이 문을 다 해줬어요. 집수리를 해줬어요. 수자원에서.

A: 복지에서 안동 수자원에서 좀 보조가 있고 그래가지고 내가 집 얻어가지고 살 형편이 되면 이 밑에 내려가 살지 뭐한다고 이 개벽에 살겠습니까. 나이 많은 영감 할마이가 돈 벌 길은 없고 나도 시각장애인 6급으로 되었습니다. 한쪽 눈도 보이지 않고 살수 없고 해서 어찌어찌 이래 산소 별채 해주고 그리 여기 살고 있습니다.

Q: 나라 돈 받은지는 언제...오래되셨습니까?

A: 우리가 수급자 된 건이 한 3~4년... 4~5년 되나? 한 4~5년 되겠다.

B: 3~4년은 더 될 걸요. 나는 확실히는 모르겠는데...그전에는...이 양반은 젊을 때 부터 눈이 안 보여서 일을 못하니까 제가 뭐라도 해 먹고 살았는데 제가 돈을 못버니까. 허리에, 디스크에, 관절도 안좋고 전신이 병신이에요. 손도 빌빌 돌아가고 다리도 돌아가고 아무것도 못써요. 그러니까 뭐 할 수가 없어. 이제는 누가 돈 벌라고 오라고 해도 가지를 못해요. 몸이 안 따라가지고. 그래 못 사니까 할 수 없어 동사무소 가서 살려 달라고 했어요.

Q: 어떻게 아시고서...누가 가보라고 알려주셨습니까? 아니면 원래 이렇게 있구나 알고 계셨습니까?

A: 원래 이런 사람은 대상이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주위에서 누가 이야기해 준 사람은 없어가지고...우리 할마이가 동사무소에 찾아가서 해달라고 했어요.

B: 직접 가서 했어요. 내가 사정이 이렇고 이렇고 하니까 날 좀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솔직히 뭐 쟁피하게 이런 말씀 드리기는 저거 한데 자식이 서(셋)이나 있어도 전부다 빗 덩거리(덩어리)고.

A: 자녀들도 전부다 요새 뭐로 그 저 뭐 때문에 활동도 못해.

B: 우리도 IMF 터지면서 인제 저거 되고. 나는 나이가 먹어가지고 일을 못하니까 할 수 없이.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식들은 저거도 못 먹고 사는데. 현재 또 둘째도 맹 영세민이네요. 우리 아들도 맹 영세민이라 남사스러운 말씀이지만 우리 막내도 결혼해가지고 헤어졌거든요. 돈이 없으면 젊은 사람들이 다 헤어지잖아요. 못 별면. 애들 둘이 있는데 그걸 나를 데리고 가라고 하는데, 아 하나를 데리고 있어도 힘든데 또 둘을 데려가라고 하는데 데려와야하는데... 내 몸도 죽을 지경이래.

A: 애들이 그 뭐로, 개인파산신고를 했어요. 파산신고를 하려고 한게 아니라 이래 이래 하다보니깐. 우리 아들이 취직을 못해. 둘째도 그렇고, 막내도 그렇고.

Q: 자제분이?

A: 아들만. 아들 어마이(어머니) 있거든요. 이혼하고. 어마이는 있고. 우리 아들은 뭐 참 말 벌어먹지도 못하제, 왔다 갔다 그고 남사스러워서 동사무소에서 얘기를 못한다니까요. 동사무소에서 우리 막내 좀 영세민 좀 만들어달라고 소리를 못해요. 남사스러워서 얘기를 못해요.

Q: 자격이 되면 되실 수도 있을 텐데요.

A: 아들 또 하나 있지. 내가 또 영세민이지. 둘이나 영세민인데 다가 또 맨들어 달라는 소리를 어예(어떻게) 하니껴.

Q: 아들은 여기가 아니라 딱 시에 사시는 거 아닙니까?

A: 지금 여기에 있어요.

Q:용상동에 계세요?

A: 예.

B: 못 벌어 먹어가지고 어마이에 와 얹혀가 있으니...

Q: 자제분들도 일은 못 하시구요?

A: 네. 그것도 뭐. 팔도 꼬였다 빠져가지고 뼈가 두드득 거리는 게 똑같애. 우리도 입장이 남사스럽고 창피스럽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다죽어야 되거든요.

Q: 손자 손녀분은?

A: 손자가 하나. 하나 이제 학교 땡기는게 같이 있는 그것도 지 애비가 영세민으로 되었다구. 수급자로 되었어. 수급자로 되었는데.

Q: 둘째 분의 자제분이요?

A: 둘째 아들이 거 낳은 아들이 손자가 중학교 1학년에 들어가 다니고 있는데 그것도 맹 수급자래요. 지 애비가 양쪽 다리가 여기가 뼈가 툭 튀어나와 가지고.

Q: 일을 못하시는 거예요?

A: 일을 못하니까. 천상 뭐 보호를 받아야 사니까.

B: 개는 뭐 병원비만 혜택보지. 뭐 생계비 같은 거는 이런 거는 없고.

Q: 병원비만 따로. 아드님은 조금이라도 일을 하시는 겁니까? 둘째 아드님이 별이가 좀 있으십니까?

B: 별이를 하는 게 아니고. 왜 가가 그렇게 됐나 하면은 여(여기) 있을 때 두 내외가 같이 살 땐 영세민이 됐는데 이혼을 하면서 애를 애미가 데려가 버린기라. 애비 혼자 있으니까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젊은 게 뭐 몸도 약하고 벌어먹지는 못하고 다만 병원비라도 혜택 보그러 영세민 해다고 이래가지고 병원비를.

A: 영세민 그 뭐 정부에서 돈 줘 주고 하는 거는 애미가 받아먹고. 저는 병원만 땡기는데 의료보험카드에 2급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는 1급이고.

Q: 그 문중일 도와주시는 거 말고는 크게 하신 일은 없으시구요? 생계비 빼곤 들어오시는 게 없으실텐데.

B: 그래서 생계비를 가지고 살려니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죽겠어요.

Q: 80만원 정도 나오시나요?

B: 예? 많이 나올 때는 저기 뭐로 55만원. 쌀이 인제 한 달에 한 포 나오고 20kg 짜리. 한 달 건너니 2포 나오더라구요. 쌀이 안 나올 때는 55만 몇 천 원 나오고 쌀이 한 포 나올 때는 그래 나오고, 쌀이 두포 나올 때는 53만원.

Q: 그거 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생활비 쓰시고. 손자분?

B: 네. 우리 아들도 저기 와가 있지. 내가 뭐 죽을 지경이래요.

Q: 급전 필요하실 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분들 계시는 가요? 친척분이나 뭐.

A: 우린 하나도 없구요.

B: 전부 다 빚 덩거리(덩어리)라 가지고.

A: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살라 하니 빠듯하죠. 중학교 다니는 애가 하나 있는 게, 그게 이따금. 돈이 많이 드는 거는 아닌데 몽탱이 돈 많이 드는 거는 지애비가 어예가 하든동 간에 지애비가 해대야 하지만은 조금씩 들어가는 것은 멍 지 할 매가 다 부담해야 된다고요. 막내가 아무것도 없이 말이지. 서울 가가지고 서울에서 살고 있다가 둘 내외 남매 데리고 살고 있다가 그것도 지 사업하다가 뭐 어예가지고 저리 되가지고...지금 저 내외 이혼해뿌고 애는 지금 저 택이 데리고 서울 있다고 지 혼자 할 일도 없고 막연한 일이라. 여 와있는 지 근 1년이 다 되요.

B: 맘을 못 잡아가지고.

A: 지는 가만히 있어도 저게 돈 들어간다고. 지도 밥 먹어야 되지. 커피 먹어야 되지 담배 피야 되지. 농담이 아니라 돈이 들어야 된다고. 저 할마이는 죽을 지경이라. 돈은 한 달에 4~50만원 쥐고 말이지. 간혹 가다 또 뭐 어른들 제사 모셔야 되지.

B: 돈은 없고.

A: 우리 가정의 애로는 말 할 수도 없지요. 없지만은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 일 개인의 애로사항을 정부가 다 봐주는 건 아니잖아요. 무조건 애로 있다고 뭐 봐주는 건 아닐끼고.

Q: 혹시 다른 분들과 얘기하시면서.

B: 여기도 영세민이 많아요.

A: 영세민이니까 살지. 영세민 아니면 누가 올라와 삽니까.

B: 나는 다리 불편치, 허리 아프지. 내려가지를 못합니다.

Q: 꽤 많이 올라오더라구요.

B: 네. 내려 가지를 못해요. 내려갔다하면 올라오지를 못하니깐내 내려갈려면 다리가 떨리면 아파 못 내려가지. 올라 올라고 하면 허리가. 여서 운동 한다고 여위에 집에만 갔다 와도 허리가.

Q: 공무원은 자주 오셔서 상담하시거나 그러신 거 있으세요? 동사무소에서 자주 오시나요?

A: 자주 오는 것도 없어.

Q: 전화도 없으시구요?

A: 전화 할 일도 없고, 용상동사무실에서는 우리 가정 내력을 환하게 다 아니까.

내 집도 남의 집이고 제사 집이라는 건 알고. 안동시에서는 내 집이 아니고 제사 집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Q: 근처에서 작물 같은 거 길러드시지는 않으시구요?

A: 요기에 딸린 밭이 요 앞에 차 돌린데 고 밭이 이 집에 딸린 밭이라고. 근데 그것도 내가 할려면 힘이 안 돌아가. 내가 힘이 안돌아가지. 내 올해 딱 70이랴요. 저 사람이 67이고. 그런데 저 사람이 관절로 해가지고 손발이 잘 안되니 못하지요. 사정이 안 되니 못하지요. 내 힘 안 돌아가면 못하지요. 그래서 남 줘 버렸어요. 다른 이 부치라고 줘버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데 있어보니 다른 이 뭐 채소라도 해가지고 견어 먹고 그랬는데. 얻어먹지요. 밭이 없다고 채소 그것도 먹으라고 갖다 주고 그러지요.

Q: 나라에서 나오는 게 생계비도 나오고, 쌀도 나오고, 그 다음에 손자분 학비 같은 것도 지원 나오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병원가시면 이렇게 병원비도 깎이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좋으신 게? 이런 건 더 많아졌으면 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A: 그런 건 없고. 바라는 건 그저 우리 수급자들에 대해서 조금 더 편리하게 해주는 것은 우리가 살 동안에 이 집이 내 집은 아니지만 이 집이 겨울 되면 추워 못 앓는다. 외풍이 썰 가지고 춥다고. 돈 들여 가지고 붙이고 단열재라도 붙이고 해가지고 하면 외풍을 막을 수 있는데 그걸 돈이 없어서 못하니까 그런거 그걸 좀 해줬으면 하는 게 내가 좀 바램인데. 근데 요 샷시문 이것도 옛날 집인데 옛날에는 나무 문으로만 그랬는데 올해 샷시문을 해 주더라고요.

Q: 올해요?

A: 네, 올해 해주더라고요.

Q:집수리들, 아 그런 것들 현물로.

A: 동사무소에 가서 얘기를 하면 집에 자녀들이 있잖아. 자녀들이 있어도 아무 쓸

모가 없는 자녀들이라. 이것들이 전부 어딜 가면 시내 택시라도 운전을 할라니
깐 안 받아 주는기라. 저기 되가지고.

Q: 아...신용불량.

A: 신용불량자가 되 있으니까는 안되는 기라.

Q: 사업하시다가 되신 거예요? 신용불량이?

A: 네. 전부 사업하다 그랬죠. 아들이 있으나마 난데. 남은 아무도 그리 생각하지
않는다고. 남은 그리 생각도 안하고. 아들이 서이나 있으니 부모에게 보태주지
않나 그랬는데. 우리는 집에서 죽을 지경인데 남의 속을 모르고.

Q: 누가 그런 소릴 합니까?

A: 동사무소에서 그랬지. 자녀들 있는데 뭐 자꾸 적으니 많으니 카고 말이지 자꾸
이야기를 하냐고. 말하지를 못 한다니까니. 아들이 있다고. 아들을 앞세워가지
고 그런데 얘길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입도 못 떼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B: 아들 둘이 있는 게 한 놈은, 막내 아가 한 놈은 6학년이고 한 놈은 4학년이거
든요, 초등학교 6학년은 2학기에는 전학이 안돼요. 6학년은.

Q: 아 중학교 올라갈 거 때문에 그러세요?

B: 네. 요새 우리가 데리고 있는 애도 6학년 때에 왔는데. 2학기 때 전학이 안 되
가지고 여와 있다가 방학에 3개월 있다가 이제 개학하면서 또 애미있는데 가가
지고 개학하고 또 며칠 노는 날 여 와 있다가 또 졸업장 쥐러 갔어요. 졸업장
쥐고 와가지고 바로 여기서 중학교 들어 갔다구요. 근데 서울 야도 그런 식으
로. 아는 올라 그니까는 내가 죽을 지경이지만은 데려올라니까는 전학은 되도
안하고 억지로 데려올 수 도 없고. 아를 학교를 안 시키면 몰라도 다만 중학교
라도 시킬라면 고등학교까지는 덕을 보지 않나, 고등학교까지는 덕을 보잔니까.
애들이 그러니까는 안 그러믄 중학교도 못 시키지.

Q: 학원 같은 데는 보내시는데 있으세요?

A: 학원은 못 보내요. 학교만.

Q: 자녀분들의 도움은 받으신 게 아니고 오히려 그냥 어르신들이.

A: 우리 영감할머이가 먹고 사는 걸 가지고 같이 먹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B:서이(셋) 뭇을 가지고 너이(넷)가 먹고 살자니 더 힘들어요.

Q: 막내 자제분은 건강은 어떠신지?

A: 건강이 가 좋지 않아요. 건강이 좋지 않아가지고.

Q: 일을 전혀 못하시는 건가요?

A: 노동일은 아예 뭐 하나도 못하고. 아주 고만 노동일은 못하고.

B: 노동일은 했는데, 똑바로 얘기하소. 옛날에 전자제품, 냉장고, 세탁기 같은 거 막 그런 무거운 거 들고 아파트 막 올라가고 그래 땀기다가 허리를 다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어깨도 다쳐가지고, 팔을 막 이래갔고 뼈가 뿌드득뿌드득 그래요.

Q: 일을 하시려고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크게 무리 안 되는. 근데 일자리가 없나요?

A: 일자리도 없을뿐더러 어디 뭐 택시라도 해볼라카니까는 안받아주니 뭐 운전은 못하지.

Q: 동사무소에 가면 일자리를 연결해 주실텐데 말씀 안 해보셨습니까? 그냥 개인적으로만 찾아보셨어요?

B: 뭐 찾았지만 아예 안 되고요. 빚이 많아가지고 받아주지도 안하고.

A: 뭐 동사무소에는 텔레비전에서는 뉴스에 나오더라구. 신용불량자 도와주는 뭐 그런 게 있다고. 요새 아들이 땡 다 알고 있지만은 저는 대상이 안 되든 동 뭐

해볼 생각도 안하던데?

B: 어지간 많아야지. 지가 뭐 한다고. 처가 장가를 잘못 갔어. 처가서 뭐 한다고 밑천을 대주고 대주고 이랬는데 어예 IMF 터지면서 이 사람들이 돈을 들고 다 떼먹고 도망을 다 가버린기라. 그러뿌고 나니까 아가 빈털터리가 된 기라. 빚이 수억이 되는가 보래. 그래 아가 이래가 와있는데 내일 모레도 재판도 받으러 가야 되고, 경찰서도 가야 되고 할 시간도 없어요. 마음도 못 잡고 그렇거든요. 동사무소에 가서 우리 입장 이러니까 좀 어예 봅시더 이런 말 할 수가 없고 이번에 온 담당은 한마디로 말하면 좀 차운 편이라.

Q: 동사무소 직원이?

B: 네. 전에 계시던 분들은 사정이 딱한 걸 맞춰 주는데. 요새 이번에 오신 분들은 냉정하게 말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된 말을 하기가 싫어요. 내가 힘들어도 힘들다는 소리도 하기 싫고, 힘들어도 거기 가기도 싫고 어차피 영감할마이는 우리 손자 한 놈하고 정부에서 우리를 맥여살리는데 그거라도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죽을 때 까지 잘 받았으면.

Q: 병원은 가까우신가요? 할머니 많이 불편하시면 병원 자주 가실 때.

A: 병원은 요 밑에. 병원도 또 시에서 지정을 해 주더라구요.

B: 병원 많이 땡긴다고.

Q: 할머니께서요? 이 병원 가서 쓰라구요?

A: 할마이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병원을 많이 땡기니깐 지정해 주더라고. 할마이는 어느 병원 지정해주고 나는 또 안동병원.

Q: 안동병원 멀잖아요?

A: 예. 안동병원. 저 건너.

Q: 새로 지어가지고.

A: 예. 새로 지은 저 안동병원. 나는 안동병원 지정해주고.

Q: 할아버지 시력은?

A: 나는 고칠 수도 없고 눈은. 나는 속이 좋지 않아가지고 위장약 먹고, 방광약을 나는 뭐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된대.

B: 병원을 많이 댕긴다고 지정을 해주더라구요. 그런데 딱 데 가보고 싶어도 갈 수도 없고 이거는 또 시 보건소에서 주신 약이고.

Q: 무릎이랑 허리 아프신 것 때문에 드시는 거예요?

B: 네. 다리 아픈데 통증이 많이 오죠.

A: 약을 이래 많이 먹는다고.

Q: 한꺼번에 다 드시는 겁니까?

B: 네. 이거 하루 다 먹어요. 이걸 매일 다 먹어요. 요거 한 개, 요거 한 개, 요거 한 개, 요거 한 개.

Q: 병원은 얼마나 자주 가세요?

A: 병원은 요 약 다 먹고 떨어지면 병원에 가요. 병원에서 약 많이 줘봐야 5일분 뒀.

B: 병원은 내가 자주 못가니까. 보름 씩 달라고 해서 보름씩.

Q: 그러면 할머니는 병원은 바로 밑에 걸어다니십니까?

A: 내가 오토바이가 하나 쪼만 한 거 있어요. 오토바이 타고 나가 태워 올라오고.

Q: 어르신은 안동병원가실 때 어떻게 가세요?

A: 나는 안동병원 갈 때 오토바이 타구 다니죠.

Q: 전에 안동병원이 바로 앞이던데 지금은 멀어가지고.

A: 여기가 좋았지. 여기는 멀어가지고.

B: 무릎 딱 보래요. 눈이 옹창아서 사고를 잘 내요.

Q: 조심하셔야겠어요.

B: 예. 무릎 좀 보소. 어디 가지를 못 하고 눈이 옹창으께니.

Q: 겨울에는 더 조심하셔야겠네요. 올라오다 미끄러지고.

A: 겨울에는 뭐뭐 눈 좀 왔다 보면 눈이 오면 꼼짝 못하지.

B: 아프니까니 약은 해롭진 않은데, 좋진 않은데 보약은 아니잖아요. 보약은 아닌데 왜 먹노 그렇지만 이 약을 안 먹으면 더 아프니까. 잠도 못자고, 신경도 많이 써가지고. 이것 말고 또 있어요. 수면제 까지 먹어요. 잠 안오면.

Q: 산소 별초하시고 제사 도와드리는 중종일은 많이 있습니까? 자주? 아니면 가끔 있습니까?

A: 일년에 한번. 제사 차려주고.

B: 풀 내룽고(내리고). 제사 들어 올려야 되는데 밥 밖에 못해준다고 했지. 내가 그거 못한다고 해서 밥만 해주고 있어요.

Q: 산소는 근처에 있습니까?

A: 근처에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집세를 이 밑에 내려 가가지고 이런 독채를 얻어가지고 살다보면 암만 그래도 100만원은 줘야 되는데.

B: 100만원 가지고는 택도 없지.

A: 100만원으로는 택도 없지. 여 와가지고 산소 별초해주고, 제사 차려주고.

Q: 원래 계속 안동에 사셨던 거죠? 자제분들도 안동에서?

A: 네, 원래 안동에 살았습니다. 아 들도 다 안동에서. 우리 조상들도 전부 다 안동에 아이들도 다 여기서 키우고.

Q: 옛날에는 어르신 젊으셨을 때는 무슨 일 하셨습니까?

A: 내 젊었을 땐 공사판에 노가다 하고 이런 거 하고 이랬지 뭐. 다른 건 할 게 없고.

Q: 근데 눈이 안 좋으셔 가지고.

B: 눈이 고마 젊을 때부터 눈이 망가져 가지고. 눈이 보여야 일을 하죠. 눈이 아프다고 해서 대구까지 가가지고 망막증이라고 수술 하라고 그러더라구. 한 20년 전에 돈 100만원 든다고 해서. 그래도 그땐 내가 일을 했으니까. 남한테 빌려서 100만원 만들어갔고 해봤더니. 안된다고 하더라고. 그래봤자 눈이 돌아오는 게 아니구. 뭐 그래서 그래서 맘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눈도 안돌아오는데 수술하면 뭐해요. 수술 하면 눈알만 빠지는데. 그래서 차라리 눈알 박아놓고 남들은 모르거든요. 눈이 비(보이)는지 안 비(보이)는지 모르잖아요. 그래 아프데 지금도.

Q: 어르신은 무슨 일 하셨어요? 예전에는? 안동에서 쇠팅장 다니셨다고.

B: 아, 쇠팅장에서 일했다고 옛날에.

Q: 쇠팅장이 뭐니까?

A: 철물.

B: 옛날에는 쇠팅일러 안 있었음니까. 쇠팅일러 만들고.

Q: 그거 남자들이 하시는 일인데?

B: 네. 남자들이 하는 일인데 그거 내가 했어요.

Q: 얼마나 오랫동안 다니셨어요?

B: 내가 공장에 한 2~30년 했지 싶어요.

Q: 2~30년이요? 어휴 오래 하셨네요. 그걸로 자제분들 키우시고.

B: 남자가 돈 안 벌었으니 내가 먹여 살려야지 뭐. 아들이 너이나 있는데 아들 먹여 살려야 되지.

Q: 농사일은 돕는 것은 안하셨어요?

A: 농사일은 아예 없었어요.

Q: 자리가 없어서요?

A: 네. 자리가 없어가지고 못했어요.

Q: 62~63세부터 나라에서 도움 받으셨지 않으셨습니까? 그 전에는 생활비 부족한 거 어떻게, 어디서 벌으셔서?

B: 그때까지 돈을 벌어가 먹고 살았다니까. 돈을 벌어가 먹고 살다가.

Q: 60대 초반까지 일을 하셨던 거예요?

A: 네. 공장 나와 가지고는 여자들이 일 할게 많습니다. 사과 꽃 따러 댕기고 사과 열매 따러 댕기고 이런거. 사과 일하고 이래 댕겼다고.

B: 네. 그 때 까지. 60대까지 일하다가 몸이 안 좋아져서 퇴직 한 거죠. 그래도 일을 잘 하니까.

Q: 할머니가 생계유지 하신 거네요. 거의...

B: 그만 두고 나니까 살길이 없잖아요.

Q: 일하실 때는 소득이 어느 정도 되셨어요?

B: 여기 일할 때요? 내가 일할 때는 내가 나올 때는 한 달에 80만원 정도.

Q: 지금보다 나오셨겠네요.

A: 그때 80만원이면 쓸게 있었다고. 물가도 그렇도.

B: 남자들도 80만원 이래 받았는데 나는 남자 일을 했으니까 80만원 정도 받았지.

Q: 일 잘 하셨나봐요?

B: 일은 잘했지. 그래서 몸이 다 망가졌지.

Q: 어르신 급여 50만원 정도 받으신다고 하셨잖아요. 동사무소에 너무 적다 말씀 해보신적 있으세요?

B: 그카니께 다른 이는 7~80만원 거의 나온다는 말을 들었는데 우리는 왜 그러냐 구 물어봤더니 그것도 많대. 왜 그러우 하니 아들이 서이(셋)기 때문에 하나에 10만원씩 줘도 30만원 준다 이거야. 우리 주는 이 없다. 내 돈 뜯어가면 뜯어가지 주는 이 없다 그래두 그건 인정 안 해준다는데 뭐. 정부에서는 아들이 서이 있기 때문에 하나에 10만원 써도 30만원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랑 비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할 말이 없으니까 동사무소에서 말하기 싫다 이거야. 해봐야 내 입만 닳고, 내만 저거 하니께. 자기네 뭐 내가 뭐야 복지과의 과장 되시는 분하고 얘기해보니까. 의성인동.

Q: 의성에 아시는 분 있으세요?

B: 네. 의성 복지과 과장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한 80만원 넘게 나갈건데 그러던데. 이리저리 떠고도 80만원 넘게 나간다 하던데. 말 듣기하고 타보니까 그게 아니더라카니께. 뭐 주는 대로 받아먹고 살아야지. 그거라도 안주면 어예니껴.

Q: 받으신지 한 4~5년 되셨잖아요. 그럼 맨 처음에 신청할 때는 진단서 같은거 내신거 있어요?

B: 네. 병원에.

Q: 지금은 안내시죠?

B: 처음에 한번 넣어 냈으께. 처음에 한번 넣고. 내가 병원에 진단서를 골다공증에 디스크에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었거든요.

Q: 아...

B: 공장에 땡기다가 그래가지고 나와 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한 달 동안 입원하고 있다가 동에 가 가지고 내가 이만저만 해서 먹고 살 길이 없다 나 좀 살려 달라 했더니, 뭐 병원에 땡기는 입원한 진단서를 끊어 갖고 오라 그러더라구요. 그래가 병원에 가 진단서 끊고, 내가 다리 아파가지고, 관절 진단서, 뭐 그런거 많잖아요. 손 마디 전부 다 못 쓰는 거, 손마디도 그렇지. 그래 가 진단서 내 두 통 띠고, 이 양반도 뭐 때문에 하여튼 병원에 많이 땡겼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진단서를 이 양반 꺼 띠고, 장애 꺼 띠고 인제 그래가.

Q: 그리고 끝이구요?

B: 예. 내가 참 솔직히 여기 뭐 통장이나 반장 같은 사람이 날 좀 영세민 시켜주면 안되나 하나까. 하이고 참...아들이 서이나 있는데 무슨 영세민을 하나구 이러더라구요. 남의 사정도 모르고. 그러니께니 내가 직접 가가지고.

Q: 주변에 교회나 절이나 그런데서 따로 도와주시거나 때 되면 와서 라면이라도 갖다 주고?

B: 그런 것도 없어요.

Q: 동사무소에서 쌀 나오시는 것만?

B: 내가 저거 했거든요. 동에 영세민 되가지고 일하는 거 있잖아요. 취로사업을 했어요. 지금은 안 하고요. 그것도 나이가 만기가 되어서 못하게 해요. 65세 되면 못하게 해요. 그래가 65세 전에는 아파가지고 뭐 참 찼뜯거리면서 끌고 땡기며

일했어요.

Q: 불편하신 몸에도?

B: 네. 불편한 몸으로 땀기고 그랬는데 요새는 많이 나오죠. 지금은 50만원 넘게 나오니깐. 그때는 뭐 한 9만원도 나오다가 뭐 10만원도 나오다가 이러더라고.

Q: 일하시면서 또 따로 받지 않으셨습니까?

B: 그래. 취로사업 하나까 취로사업 하는게 고게 또 돈이 나오잖아요. 고게 이제 30몇 만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고걸 포함해서 돈을 주더라고.

Q: 어르신 일 많이 하셨어요.

B: 만기가 되가지고 놀아버리니까. 생계비가 이제 오히려 일할 때보다 나아.

Q: 나아요? 아...

A: 일할 때보다 돈을 더 주니까.

Q: 만약 일하실 때 받는 돈을 30만원보다 돈을 더 많이 올려주신다고 하시면 일하시겠어요? 지금 아마 몸이 불편하셔서 힘드시겠지만.

B: 지금이라도 돈만 많이 준다면 또 땀 몸을 끌고 땀기면서라도 해야지요.

Q: 불편하신데두요? 일은 안 힘드셨습니까? 그때 하시는.

B: 네. 돈만 준다면.

A: 그때 여자들 하기엔 힘든 일이었지. 골목 골목 땀기면서 쓰레기 줍고, 벽보 붙여 놓 거 떼고, 길가에 땀기면서 풀 베고 그거 했다구.

Q: 할아버진 안 나가보셨구요?

A: 안 나갔었지. 나는.

B: 한집에 한 명밖에 안 되자니까.

Q: 한집에 한명이요?

B: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되어있으니 내가 나가야지. 대신도 안 써줘. 내가 아프니까 대신 나가. 대신도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대신도 안 되고 내가 아플 때에 우리 영감 좀 써줘 했더니 안 된다 그래. 그냥 진단서 떼놓고 쉬라 그래요.

Q: 일주일에 며칠이나 가셨나요?

B: 일주일에 4 일.

Q: 그때 아프다고 진단서 떼어가지고 쉬신 적도 있으십니까?

B: 안 그랬어요. 아파서 죽을 지경이라도 끌고 땡기며 했지.

Q: 할머니 대단하시네요.

B: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먹고사는데.

Q: 지금도 더 받으시면 하신다구요?

A: 지금은 못하지. 집에서 지금 밥해 먹는 것도요. 이게 참.

B: 땡기는 것도 짚고 땡기고 이래요.

Q: 그럼 어르신은 별초하는 건 안 힘드세요?

A: 일 년에 한 번 하는 거니까 힘이 들어도 해야지. 죽을 힘을 내서 해야지. 애들이 도와주고, 그 날은 애들이 와서 도와주고, 묘가 다섯 산.

Q: 하루이상 걸리겠네요?

A: 하루해야지.

B: 우리 이래 이래 산다고 못 산다고 수자원에서 와서 도와주고 뭐 시에서 도와주

고.

Q: 수자원에서는 어떻게 알고 도와주시나요?

A: 수자원에서 안동시에 수급자들을 많이 도와줘요.

Q: 집도 고쳐주고, 돈은 안주시구요?

A: 돈은 주는 건 없고, 집 같은 거 고쳐주고.

B: 전에는 연탄 같은 거를 넣어주더니, 작년에는 100장주더니 올해는.

A: 연탄 보일러를, 기름 보일러를 못 떼. 이제.

Q: 올해 또 너무 많이 올라서.

A: 네. 연탄 보일러도 연탄 떼는 것도 지금 뭐.

Q: 겨울 되면 연탄 때문에 걱정 많으시겠어요.

A: 내가 조금만 힘이 돌아가면 나무는 많지 않습니까. 썩어 빠지는 게 나무라고. 힘이 돌아가면 온돌방 만들어가지고, 나무 해다가 불 때고 살라고 마음 먹어보니 자신이 안 붙어.

Q: 힘드셔갖고.

A: 힘이 너무 들어가지고 힘이 안 돌아가.

B: 용상동사무소에 가가지고 담당에게 얘기해봐야 안 통하고, 시 저기 안동시복지과에 한번 가볼까.

Q: 좀 더 도와달라구요?

B: 돈을 올려 달라는 게 아니고. 애들이 이제 둘이가 더 와야 되고 이러니까. 쫘 그렇잖아요. 내가 용상동사무실에는 전부 안면이 다 아니겠니. 둘이나 영세민이 되었는데 또 가 말을 하려고 하면 야마리도 없고 그래가 시 복지과에 바로 가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 그러면 좀 될 라는가.

Q: 어차피 시복지과에 가지더라도 동사무소에서 서류를 다 올리기 때문에 같이 아마 연계가 돼서 도와주시긴 도와주실 겁니다. 아니면 시복지과에서 동사무소에 한 번 더 조사나 알아봐달라고 연락도 올 수 있고 장애수당은 받고 계세요?

A: 3만원 나와요. 장애수당 3만원, 노령연금 6만 4천원.

Q: 두 분 합쳐서 6만 4천원이요?

B: 네, 노령연금이 영감 혼자 나올 때는 8만 4천원 나왔는데. 영감할마이가 노령연금이 다 나오니까.

Q: 그래서 받으셔가지고 생활하시는데 돈이 제일 많이 드는 데가 어디니까?

B: 돈이 뭐 애 반찬이고 뭐고 어른 같지 않잖아요. 애들이 지 입에 안 맞으면 못 먹으니까. 다만 반찬 한 개라도 사줘야 하고, 영양제라도 사줘야 되고, 사먹는 건 못해줘도 가끔가다 애들 한번은 해줘야 되고. 내 새끼 결혼식 할 때 부조 받았는 거 제일 버거워요. 제일 버거워. 그걸 내가 받았으니까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게 제일 버거워.

Q: 그러면 연탄은 지원 받으셔가지고 떼시는데. 집에 드는 돈이 좀 수도하고 전기 뭐 이런 거 하고?

A: 전기세, 또 전화세 다 내고.

B: 수도는 여기가 지하수거든요.

Q: 아...

B: 지하수인데 공동으로 한집에 만원씩이라. 많이 쓰나 적게쓰나 수도세는 빼놓고 전기세, 유선세, 전화세.

Q: 텔레비전 유선비요? 제일 많이 드는 데는 손주분?

B: 네. 제일 많이 드는 건 겨울에는 연탄하고 난방비가 많이 들어. 여기 난방비는 최고다. 방이 옛날 집이라 위풍이 썩 가지고 연탄 뒤 하루에 12장씩 떼도 방이.

A: 그기 2구 3탄이거든. 한 군데 석 장씩 들어가는 게 두 군데란 말이다. 그래 막 양쪽에 다 피워도 방은 자리는 따뜻한데 위풍이 썩니까. 앉아있으면 어깨가 시리다.

Q: 방 2개를 다 떼야 할 거 아닙니까?

A: 네. 3개 라, 3개. 저쪽 방 하나 있고, 마루, 2방 있고.

B: 요거는 마룬데 요걸 가지고 방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내가 공장에서 퇴직금 타 가지고 이 집을 수리를 해가지고. 퇴직금으로 타가가 우리가 수리를 해가 그래 가 우리가 여기 들어왔어요.

Q: 여기서 사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A: 여 온지가 올해 한 12~3년 된다.

Q: 그때부터 계속 별초하시고?

A: 예. 그렇죠.

B: 그뻬 내가 공장 땡기면서 공장 퇴직금 타고도 공장 계속 땡겼거든요. 퇴직금 타다 이 집 수리해가지고. 그러다가 내 몸이 많이 망가져가지고 못할 것 같아서 나와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고만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그래가 아들 불러가 실려가지고 갔어요. 병원에 실려서 갔더니 골다공증인데 90이 넘는 허리라 그래. 방에서 오줌똥을 받아내야 된다카니. 우리 젊은 애들이 막 눈이 둥그레 지대. 그래가 할 수없이 공장을 그만두고 일을 못하니까. 디스크에다가 골다공증에다가 뒤 병도 한 가지도 아니고.

Q: 몸이 그렇게 안 나쁘시면 계속 일을 하시고 싶으세요?

B: 그렇지. 몸이 안 아프면 일을 해야지요. 내가 안하면 돈 구경을 못하는데. 그런데 몸이 안 따라줘요. 여 젊으면 모두 돈 벌러 땡기는데 내가 몸이 안 따라 못 가잖아요.

Q: 이 근처에 과수원에서요?

B: 아니요. 저 멀리서 차타고. 몸이 안 아프면 돈을 벌어야 하는데.

Q: 이 근처에서 수급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몸이 괜찮으신 분들은 많이 하시겠네요?

A: 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요즘 노는 사람이 있나요. 썸 있으면 또 사과 따러 땡긴다구요.

B: 내가 수급자라도 돈 벌러가면 되는데 몸이 이러니깐 돈 10원 한 장 구경도 못하고 나라에서 들어오는 돈 아니면 구경을 못하니.

Q: 일해서 돈 버시면 그 돈 받으시는 것 만큼 제하고 급여 주는 거잖아요.

B: 아니요. 옛날에 취로사업 할 때.

Q: 다른 분들도 수급자들이신데.

B: 수급자들 아니에요. 수급자들 아닌 사람들이 돈 벌러 다니지. 여기만 수급자 세 집이래.

Q: 다들 연세가 많으세요?

B: 요 우에 가면 손녀 하나 데리고, 아들 하고 할매하고 우리 매로 영세민이라. 모친이 70이 넘었는데 거 도 몸이 불편해가지고. 나는 몸이 잘아도(작아도) 애 먹는데 거는 몸이 이만하니까.

Q: 아 똥똥하시구나.

B: 그런 집이 수급자 한 집 있고, 요 밑에 남자 혼자 사는 집 있고. 좀 모지랜 사람.

Q: 동네 주민들하고는 잘 지내십니까?

A: 네. 동네 주민들하고는 뭐 잘 지내고 있지.

Q: 조금씩 그냥 뭐 한번 씩 대화도 좀 하시고 서로 조금씩 의지도 하시면서.

B: 영세민이라고 알고 그건 없는데요. 동네사람들이 동네 인심은 다 좋아요.

Q: 옛날보다 많이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B: 인심이 좋아가지고. 저희들하고 한 여 10년 살아나니까. 우리 어디 가지 말라고 얼마나 그러더라고요.

Q: 정이 많으셔서...

B: 멀리 대구서 오셨더라고요?

Q: 서울이요.

B: 서울서요? 서울이면 본사에서 오셨니꺼? 서울이면 본사니꺼?

Q: 한국사회보건연구원라고. 사회복지연구하는 국책연구소입니다. 복지부랑 같이 하는. 여기서 말씀드리면서 하는 얘기 정리해가지고 복지부에 글 써가지고 얘기한다고 바로 되는 건 아니구요.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바꿔 나가는거지요. 시간이 걸리기는 하는데 작년에도 들었고, 올해도 듣는거고 계속 이렇게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는지 들어보고.

B: 다른 데 보니까 라면도 준다고 그던데 우리는 복이 없어 그런가. 라면 한 개 안 주더라고요.

Q: 라면이요? 어떤 동네 마다 지역마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지역에는 지원이 많은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지원이 적고.

B: 저랑 같이 취로사업 하고 동갑이라서 일도 같이 하고 떨어질 때는 같이 떨어지고 그랬는데. 그 집에는 보면 누가 주는지 라면을 다달이 주고 그러더라고요.

Q: 용상동이요?

B: 네. 여기는 성곡동이거든요. 거기는 용상동이고. 달달이 라면을 갖다 주니까 그 집은 라면을 다 못 먹어서 막 다른 이 주고 나도 얻어다먹고 그랬다고. 라면이 남는다고 영감할머이 사는데.

Q: 교회에서 주는 게 아니구요?

A: 교회 사람이 아니구요. 절도 아이고. 누가 줬는지 모르지 뭐.

B: 한 통에 한 사람인가 두 집인가 세 집인가 주는데 이 사람이 없는 사람 중에 뽑아가지고 주는데 그 사람이 말하자면 좋은 일 하는 사람이지. 공짜로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라면 한 박스씩 갖다 준다 그러더라고요. 다 못 먹는다 그래요. 아들도 주고 딸도 주고. 맨날 갖다 주니까 다 못 먹지. 남은 거 나도 달라고 얻어먹긴 얻어먹었어요. 우리는 복이 없어 그런 가 그런 것도.

Q: 복지관 같은데서 도와주는데 없어요? 안동에 복지관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B: 네? 안 가봤냐구요?

A: 노인복지관 뭐 여 많습시다. 노인복지관도 있고, 사회복지관도 있고, 뭐 많은데 시복지관도 있고. 그런데는 우리 10원짜리 한 장 혜택 본 것도 없고. 나이 많은 사람은 65세 이상 되면 노인회에 등록을 해야 된답니다. 가입을 해야 된다는데 우리 영감할머이는 노인회에 가입도 안 했고, 그래가 그런지 그런 데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런데서 10원 한 장 혜택 받은 것이 없습니다.

B: 난 몰라. 그런거 뭘 말인지도 모르겠다.

Q: 좋은 얘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정리해서 복지부에서 저희가 참조 하도록 하겠습니다.

A: 필요한 건 없고, 우리 수급자들 인제는 나이 먹어가는 사람이 뭐 있습니까. 돈 한 푼이라도 더 주면 그게 고마운 거고. 사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리 되게 해주 소.

□ 수급자 14

- 조사지역 : 중소도시
- 가구유형 : 조손가구
- 수급유형 : 현재수급
- 수급기간 : 3~4년 정도
- 응답자 가구사항

가구주와의 계	연령	성별	직업 및 경제활동	장애여부(등급 및 내용)
가구주	72	여	무	무
손자	22	남	무	무
손자	13	남	학생	
손자	11	남	학생	

※ 응답자 본인을 1번으로 기록할 것

- 주거상태

주거시설(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난방, 수도시설 등)과 주거지환경에 대한 간단한 묘사(교통입지나 직장, 학교와의 거리 등)
- 국민임대아파트에 거주. 김대중 정권때에 지은거라고 함(지은지 10년이 안된듯). 아파트 관리 상태 좋음). 기존의 임대아파트보다 넓고 집안도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음. - 걸어서 10분정도 거리에 동사무소가 위치해 있고, 근처에 복지관이 있음. - 아파트 단지가 많이 조성되어 있으나, 마을주변이 조용하고 한산한 느낌이 듬. 주변에 영구임대아파트 단지가 많음.

○ 조사평가

조사전반에 대한 느낌 - 조사를 마친 후 조사자가 직접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동안 장사로 생활을 해와서 어느 정도 형편이 되어 수급대상이 되지 않았으나, 남편의 폭력으로 집을 나와 살길이 막막해 수급신청을 처음 시도. 동사무소에서 남편 앞으로 된 집이나 재산때문에 이혼예시를 들며 수급 거부. 후에 남편과 사별 후 수급 신청하였고, 손자들을 돌보는 조건으로 되었다고 함.- 가정이 어려운 막내 딸에게 알려주어, 딸도 현재 함께 수급을 받음. 같은 아파트 다른동에 거주.- 손자녀로 인해 삶에 대한 의지는 많은 것 같으나, 무릎과 허리가 안 좋아 거동이 불편한 상태.- 두 아들의 손자 3명을 키우고 있고, 그중 큰 손자는 얼마 전 재대하여 대입 준비를 위해 서울로 올라가고 현재 2명을 키우고 있음.- 40여만원의 급여중 공과금 및 관리비로 20만원과 두 아이의 태권도학원비 14만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생활. 간혹 두 아이의 아버지가 20만원씩 생활비를 줄때도 있으나, 일정치 않음.

Q: 언제부터 동사무소로부터 지원을 받으셨습니까 혹시? 받으신지가? 오래되었습니다니까?

A: 아이구 많이 안되요. 한 3년..

Q: 그전에는, 할머니 이렇게 어디 불편하시기 전에는 어디 일다니셨었나요?

A: 예. 못받았어요 지원을.

Q: 그때는요?

A: 예..지원을 못받았는디, 인제 어떻게해서 지원받게 된 내용은.. 우리 애기들을 (내가 데리고 있을께)

Q: 죄송한데요. TV중 잠깐 끝께요.

A: 예예.. 저기..지원받은 그 내용..은..좋은 자랑도 아닌디 자식들이 다 잘못되갓구..

Q: 아.. 뭐 사업같은거 하시다가?

A: 사업도 아니요. 공계 인제 내가 자식이 덕이 없으께, 인자 옛날부터 젊어서부터 살아나가면서 남편으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Q: 할머니께서요?

A: 네, 고생을 많이 해갓구, 폭력으로, 술로, 헐박으로, 그렇게 인제 살아 나왔는데, 젊어서도 인제 못살겠었는데, 원래는 남원서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인자 이웃사람들이나 관공소 사람들이나 보고 그렇게 살수 없으면 판데로 가라고 해싸도, 그 새끼들.., 인자 있기 때때 새끼들 때때 인자, 내 마음으로는 그런데, 내 새끼들때때, 내가 나하나 목숨 하나가지고 이 새끼들을 버리고 가는 내가 자체가 나쁘지,

Q: 손자분들이요?

A: 아니, 원 내 새끼들, 손자들은 인제 2차고...그리갓고 인제 살아나왔어요. 살아나

오면서 내가 장사를 해갖구 조금씩 벌어먹고 살았는데, 인자 우리 아저씨라는 양반이 원체 술만 먹으면 폭력이 심한게, 폭력으로 인해서 인제 내가 사별하게 됐었어요. 사별하고 인자(흐느낌)

Q: 쪽...할머니가 거의 다 가사를 돌보셨던거네요. 자제분들도 학교 다 가르치시고...

A: 궁게 가르치기도 제대로 못했어요. 인자 6남매를 키웠어요.

Q: 6남매 씩이나.

A: 6남매를 키우다 보니깐, 너무나 어려움도 많고 또 한가정을 또 이렇게... 서로 고마운건 고마운것이고 애쓴건 애쓴것이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술만 잡수면 집다 때려부수고, 그냥 막 집에다 불대고, 술단지 때려부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인제 새끼들을 키워야지요. 내목숨은 하나 살겠다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리가고 인자 전주로 올라가.

Q: 전주가 고향이 아니세요?

A: 전주가 고향이 아니라 남원이 고향인데.

Q: 아..남원에서 이리로 오신거예요?

A: 예 전주로 이제 애기 하나 둘러업고 손에 몇 개 쥐고 올라와서, 깡아리 장사를 했어요.

Q: 까나리액젓이요?

A: 아니 그니깐, 광주리장사..광주리, 그 사과같은거 담아 갖구 이렇게 파는거 인제 광주리장사를 허다가 인제 조금씩 조금씩 한거지. 장사로 내가 인제 벌어먹고 살았는데. 우리집 아저씨란 양반도 장사를 같이 해도 술잡수면 다 없애버리게.. 그래가꾸, 그래도 어떻게든 자식은 다 키우긴 키웠어요. 키웠는데 자식이 또 그게 또 좋은것이라고 또 다 닦았더라구요. 또..(허허허허)자식이 좋은것이라고 닦

아갓구.

Q: 좀 힘들셨겠어요.

A: (울먹이시며) 많이 고통당했어요.

Q: 그럼 그럼 지금 같이 사시는 자제분은?

A: 다 따로살아요. 없어요.

Q: 다 따로?

A: 예, 다 따로 살고,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요. 지금인제 그렇게 살아요.

Q: 아. 그럼 6남매랑 다 연결이 (안되세요)?

A: 네. 딸만 여기 이방 딸도 막둥이 딸도 여기 이 동네 사는다.

Q: 결혼하셔가주구요?

A: 딸도 사는다, 근데 딸도 복잡혀가주구 딸도 생활보호.

Q: 아..따님도?

A: 예, 딸도.

Q: 따님은 어떻게 아시고 수급 받으셨어요? 할머니가 알려주신 겁니까, 아니면 따님이 먼저 받은 다음에 할머니.

A: 내가 먼저 받았지요. 내가 먼저 받고, 딸은 낭중에 2차로, 말하자면 우리 딸은 또 자기 가정, 남편으로 인해서 그렇게 또 되었어요. 그래도 인자 큰아들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시방 가정이 그려요.. 시방 둘째도 장가도 안하고 마흔이 넘도록 그러고 있고, 그러고 인자.

Q: 근데 여기 같이 사시는 분들은 ?

A: 아니, 여기 없어요.

Q: 손자분들은?

A: 내가 여기 손자를 텔고있어요 지금.

Q: 그때 전화받으셨던 분이 손자분이시죠?

A: 예. 큰손주가, 큰아들한테 낳아놓고 간... 며느리가 낳아놓고 100일도 안되서 가..
그냥이혼하고 나가버렸어요. 궁게 그 손자를 내가 내치 키웠어요.

Q: 지금 몇 살이죠?

A: 인자 군대갔다 와갖구, 군대갔다 재대해갖구 지금 공부한다고 서울로 올라갔는
데, 내가 도와줄 능력이 못되요.(흐느낌)

Q: 아..지금 무슨 대학공부하시는건가요, 취업공부하시는건가요?

A: 예. 대학공부... 암것도 없는데 지가그냥 아르바이트가 해서라도 공부한다고 올
라 간지가 지금 몇일되요.

Q: 열심히 하시네요. 그래도 나름대로.

A: 그리고 또 막둥이가. 막둥이 아들들이, 애들만 낳아놓고 나가버렸어 여자가. 애
들만 낳아놓고, 성민이, 성준이 그렇거든요, 성준이는 3살먹고, 성민이는 1살짜
리 그냥 내가 보듬고 왔어요.

Q: 다들 지금 몇 살..? 그 손자들은?

A: 성준이가 이방 중학교 1학년, 성민이가 이방 저..신선초등학교 4학년이여.

Q: 그 학생들은 그..수급자여서 학비같은거는 안내줬네요.

A: 예예.

Q: 나라에서 받는걸로...

A: 그렇게 인자 수급자로서 먹고살지요. 근데 그것도 인제 수급자도 돈 한 40만원 넘게 나오는거 같아요. 요새는.

Q: 월 40만원밖에 안됩니까?

A: 예.

Q: 그럼 그 40만원 가지고 주로 그..손자분들 학용품이나..학비는 나오니까, 학원비 대고..?

A: 학비는 나오는데, 학원은 제대로 못가르쳐. 학원은 쪼께 가르칠려고 들면 금방 몇십만원 달라고 그러더라고. 그거 학원비, 학원 어디를 갈킬라고 가보니까 30얼마를 달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인자, 지금은 태권도.

Q: 아..그것도 7만원 이상 다닐텐데요.

A: 예. 태권도 이방 두놈들이 다녀요.

Q: 그러면 40만원가지고.

A: 그렇게 너무나 복잡해갖구, 40....시방 그 뭐..연금...노령연금.

Q: 아, 기초노령연금이요?

A: 그것조차 40 하튼 50만원 하튼 못한 거 같아요. 지금 현재 나오는 것이 그러.

Q: 그럼 따로 이렇게 들어오는 돈, 교회나 가끔가다 따님이나...도와주시고 그런 거 없으시구요?

A: 딸들도 인간덕이 내가 원래 없응게, 남편복도 못 탔잖여. 부모계실 때부터 부모도 혼자 계셔갖구.. 친정아버지 내가 6살 먹었을 때 돌아가셨대요. 공계 엄마가

키우시면서 인자 둘이 살면서 친정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인제 애초에 고등학교는 나왔지요. 고등학교 나와 갖구 사는 것이 이렇게 복잡해요. 도움주는데는 인제 애기 아빠가 한 달에 한20만원씩 줘요.

Q: 아..할머니 용돈?

A: 근데 그것도 다달이 주느냐 허면, 어느 가정치고 여자 없는 가정은 가정이 안되잖아요.

Q: 그렇죠.

A: 여자가 시방 없으께.. 그냥 벌으면 지먹구 사는 식으로 허면서 쪼께,, 그거 한 20만원씩 주고 그러면 그것도 허구 그려. 궁께 나로 인해서는 자식이 잘되면 좋고, 도움도 받으면 좋지 않혀요? 근데 그러지 못할 입장이구. 아저씨하고 사별하구 난 후부터는 내가 살길은 십자가 밑에 뿐이여.. 십자가 밑에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복으로 알고, 나보다 더 불구자도 있고 걸음도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저 아픈 몸으로라도 이렇게 시방이라도 돌아댱김서 밥이라도 해 줄 수 있고 그런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알고.

Q: 몸은 언제부터 불편하신 겁니까?

A: 몇 년전.

Q: 2년요?

A: 아, 진짜 오래됐어요.

Q: 아..계속 아프신거를 참고참고 오신.

A: 계속 아프고 남자한테 폭력 당하고, 고통당하고, 뚜드려 맞아서 그저 벌어먹고 산다고 몸은 버려버리고, 일단은 새끼들 벌어 먹이겠다고 한 것이 이렇게 병이 짙어져갔고.

Q: 어디가 많이 불편하신 겁니까?

A: 이 무릎. 무릎으로 해서 허리로.

Q: 병원은 다니시는 겁니까 지금?

A: 병원은 다니지요. 근데 오늘도 병원은 갈라다 시방 오신다고 해서 못나갔는데.

Q: 거기 그러면 요즘은 따로 다니시기 불편하시니깐.

A: 그래갖구는 사실은 복잡해요. (웃으면서) 인간 욕심으로 해서는, 우리 이 어린것들 이제 내 대는 넘어갔으니까요 어린것들은 앞으로.

Q: 잘돼겠죠. 공부하려고 하는 의지가 대단한데요.

A: 잘 되어 할텐데, 그것도 뒤에서 뒷받침을 해줘야하는데, 뒷받침을 못해준게...

Q: 요즘은 공부만 하면 장학금도 받고 그러니까요. 대학 들어가기만 하면요.

A: (웃으면서) 모르겠어요.

Q: 그런 의지만 있으면 잘될거 같은데요.

A: 어찌다 지금 그렇게 복잡하게 살고있으께 학원을 보낼래면 우선 현찰이 있어야 지 현찰도 필요하고, 인자 그냥 굶든지 먹든지 정부에서, 동에서 주면 그걸로 먹고살고.

Q: 처음에는 누가 알려주신 겁니까? 이렇게 나라로부터 도움받는다고.. 알려주신 분 계세요?

A: 예, 그게 인제 친구, 친군디.

Q: 아.. 할머니 친구분?

A: 예..내 인제 친군디, 여기와서 친구를 만났어요. 판데서 살다 여기 왔는데 저기

삼청동에 살다 여기왔는데, 친구도움으로 이루어져서, 이렇게 서둘러보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전에도 내가 많이 동에를 들락거렸어요. 사실은 내가 이렇게 죽게 생겼고, 혼자 이렇게 혼자 몸으로 병들어갓구 나와갓구, 남자는 이방 남자대로 살고, 나는 이렇게 생겼다.. 절대 이렇게 남자하고 이별.. 이혼안하면 안된다고 그러더라구요.

Q: 아..그때는요. 할아버지께서..아..아버님께서 무슨?

A: 10년이 넘어부렀을게...이방 그때 혼자 상당의 고통을 당하고 그런 것이, 이렇게 들어와서 있는거지. 인제 동..정부에서는 인제 영감님이 있고, 장사해서 벌여 먹고 산게 있으니까 될 수가 없고, 죽어도 안된다고 그러더라구요.

Q: 그때는..아..

A: 그러자마자 우리 쪼깐한것들이, 어린것들이 나한..내가 있고, 인자 큰놈은 이방 김제서 일하는 손주도 그때는 중학교생활을 했었고, 그래갓구 어떻게 해서.. 그 걸로 인해서 못 먹고 살게 생겼을게, 동, 정부에 항의를 한거지, 이렇게 이렇게 생겨서 정말 내 힘으로는 먹고 살수 없을게 어떻게 도움 좀 줬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것이 연즉(여지껏)되었어요. 연즉(여지껏)되어갓구 올해 3년째..확실히는 잘 모르겠어요, 나두 정신이 없을게..한 3년째 됐다..모르겠어요.

Q: 할머니가 연세가 올해 69이신가요, 70이신가요?

A: 이방 동에서는 어떻게 되는가는 모르는데, 내 원나이로는 72이여. 72. 동에서는 인자 내나이가 어떻게 되갓구 있는가는 잘 모르지.

Q: 꽤 연세 많이 들때까지 일을 많이 하셨던거네요. 힘들게..

A: 아 공계..하튼 58센가 내가 이방 우리집 아저씨하고 이방 거시기 해갓구, 그전부터 많이 아팠어요. 그전부터 이게 많이 아팠어요. 그래가주구 많이 고생하고 그러다가, 이제..이렇게 이방 이렇게 밥이라도 먹고 살수 있는 것도 정부에서 도와줘서 이렇게 먹고살지요. 그렇게라도. 그러지않으면...

Q: 힘들시지요.

A: 예. 힘든다는 것 자체부터 말도 못하지요. (웃음)

Q: 동사무소 공무원선생님들이 자주 오시긴 오십니까? 상담하러, 뭐 힘든일 있으세요? 이렇게..

A: 잘 안오지요.

Q: 1년에 그러면 몇 달에 한번씩 입니까, 아니면 1년에 한번도 안옵니까?

A: 안와요.

Q: 1년에 한번도 안와요?

A: 네.

Q: 필요하신건 할머니께서 전화하십니까?

A: 나도 인자, 내가 인자, 나도 배운 것이 없응게, 그런게 인자 말도 혈줄도 모르고, 동에서 이러라면 이려고 저러라면 저려고 그러지.

Q: 아.. 따로 상담 받고 그런신 것은 없구요?

A: 예. 이렇게 살고 있네요. 모르겠어요. 인제 우리 손자들만 어떻게든지 쪼께 갈켜서, 그것들 자식도 못 가르치고 나도 고생하고 그런것들 감안해서 이것들이나 앞으로 정부에서라도 이렇게 쪼께 좀 쓰게...

Q: 나라에서 받는데 생활비도 나오고, 그다음에 감면 되는것도, 전기료 감면 되는것도 있고, 손자분들 학비도 싸지고,..

A: 전기 같은거 뭐 이런 것 세금같은 건 감면 안되고,

Q: 아..아직은...

A: 예. 감면 안되고 인자 뭐이나.

Q: 전화요금.

A: 전화요금도 안되요. 전화요금도 잘 안되고, 인자 일단 먹는거, 조금 인자 학비 조금씩 면제 받는거..

Q: 혹시 병원가시면?

A: 병원가면 병원비 인자..그것도 그거 통장에 돈 없다고..나도 돈 내야되요. 공계 요새 돈내고 땡겨 지금.

Q: 병원요?

A: 예. 병원..뭐이나 12일날까지 그냥 무료로 봐주더니 인제 돈 많이는 안내는디, 천원씩이라도 꼭 내라고 하더라고요.

Q: 아..바뀌어서 조금..

A: 천원씩이라도 조금 내라고 그러더라구요.

Q: 받으시는것 중에 어떻게 제일 집에는 요긴한걸로.

A: 나는 인자 새끼들 가르칠수 있는 학비, 말하자면.

Q: 학원비라도 나라에서 주면 좋겠네요?(웃음)

A: 예, 면제, 면제, 학원비같은거 면제. 태권도 이방 땡기는 거가 켈 먹는 것은 이방 그냥 동에서 그냥 쌀한포대씩 준게.

Q: 쌀도 나옵니까?

A: 쌀은 콩짜로 그냥 주는게 아니고, 거기서 돈 말하자면 이게 생활비로 나온데서 2만 얼마가..간다고 그랬던거 같아요. 한포대에... 20키로 한포대에 2만 얼마가 간다고, 확실히는 모르는데 그런다고 한 것 같아요.

Q: 네...

A: 그래 고놈갖고 한달 먹거든요.

Q: 매달 20키로씩 주시는겁니까?

A: 네.

Q: 동사무소에서?

A: 네.

Q: 올 때 그럼 동 직원이 갖다 주는겁니까?

A: 인자, 동에서 그 배달하는...

Q: 아, 배달하는 아저씨 시켜서?

A: 예.

Q: 공무원이 직접 가지고 오는건 아니구요?

A: 아유, 그러덜 안해요.(허허)

Q: 그럼 거의 만나실 일이 없네요.

A: 거의 만날 수가 없어요. 내가 한번이나 가면 인자, 하는디, 일년에 나도 가면 한 두번이나 갈까..내가 걷는거를 허덜 제대로 못형게,, 몸으로 걸어가야...그럼 택 시타야 하는디, 택시비도 또...(웃음)..한푼이래도 아낄래면 또...

Q: 그쵸.

A: 여러 가지가 사는 것이 참..너무나 힘지고, 어려워요 사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는 것은 사는 것인데, 목숨이 죽지 못하니, 유명허신 양반들 그막 그냥 자살 했다 소리 들으면.

Q: 그럼 안되죠.

A: 아니 그거를 들으면 나같은 사람도 사는데,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양반들이 돌아가시는가 싶어서 막 맘이 아프고...세상에 나보다 더 한사람이 없을건디...(웃음)

Q: 자제분들이 크시면 더 도와주시겠지요.

A: 내 그것들은 크면 장래에 인자 더 좋아지겠지만, 나는 인제 뭐 늦었으니까, 인자 때를 못보고 죽자녀...(웃음)

Q: 손자분들이 잘커서 할머니 케어, 보살펴 들봐드릴텐데요.

A: 그러겠지요 인자...(웃음)

Q: 그런거 바라보고 사는거지요. 이 집도 할머니 집인가요? 전세나 월세신가요?

A: 이게 뭐 그..영구임대라던가...

Q: 아..여기가 임대아파트인가요?

A: 예. 임대아파트. 이게.

Q: 아..임대아파트치고 꽤 크고 좋은데요.

A: 이거 잘 지어줘갖구, 그 김대중 대통령때...

Q: 아...다른 임대아파트보다 넓은거 같아요. 엄청 넓고 좋은데요.

A: 이게 21평이란디, 큰집이여.

Q: 21평 같지 않은데요.

A: 예. 21평 안같아요. 옛날에 어떤데는 25평도 이방만 못했는데, 김대중 대통령 계

실적에 이 아파트 지어갖구 없는 서민들...이..그래갖구 영구임대..30년인데 여기서 영원히 죽어야지요 인자. 그것도 돈 쪼개 있어서 어떻게 임대료를 많이 낸 사람은 돈을 쪼끔씩 내는디, 나는 돈이 인자 없응게, 임대를 많이 못내잖여. 그래갖구 요것하고 저것하고 하다보면 여기들어가는 것도 만만치 않여요. 20만원 은 이상 들어가요. 그래갖구 이것저것 다 어떻게 하다보면, 진짜 어쩔적에는... (흐느낌)

Q: 그 돈 딱 떨어질때가 있잖아요.

A: 떨어질때가 말도 못하지.

Q: 그럼 어떻게 하세요?

A: 그럴적에는 어쩔수가 없이 그냥 내가 고통으로 넘기지 그냥. 내가 꼭 쓸데가 있어도 없으면 못쓰는 것 아니여?

Q: 어디 빌리거나, 이렇게 할...도움을 청할 곳은 없으세요?

A: 내가 빌려서 쓰면 또 갚을 능력이 있어야는디...내가 그냥 빌려서 쓰면 여기서 쪼끔 나오는거 그거 쥐버리면 그달 또 그러잖여. 그렇게, 그것을 참고 넘기고, 애들들을 붙들고 울 때가 한 두번이 아니여. 이 어린것들이 (울면서) 그냥 할머니 얼굴에다 문대믈서 '할머니, 우리가 잘될게, 할머니 오래살아. 할머니 오래살면 우리가 돈벌어서 할머니 드릴게, 드릴게'.

Q: 애들이 착한가봐요

A: 예. 그러면 '그러..느그라도 잘되여, 느그라도 잘되여'..보듬고 울다가 어찌다가 ..시방 저가 그렇게 살아요...내살림이라고 턱지고 얘기도 못허네요.

Q: 따로 친척분들이나 이런분들 안계신가요? 할머니 쪽으로..

A: 친정도 아무도 없고, 엄마하고 나하고만 컸고, 여성지간 있어도, 인자 다 밥 먹고 살기 복잡한게, 여성지간들도 다 자기자식들 거뒀야하고, 형제간이 더 없으

니까, 형제간이 더 없으니까 너무나..(말 흐리면서 흐느낌)

Q: 교회다니시는거 같은데, 교회에서 뭐 도와주는거 없어요?

A: 교회에서 인자 가을에 김장해다주고, 일년에 봄한철 가을한철 인자, 라면 두어 박스씩 주고, 이제 그거여 인자, 그리고 내가 열심히 나당기면서 인자, 하나님 뵈는거.

Q: 지금은 교회도 나가기 힘들시겠어요. 몸이 좀 불편하셔서...

A: 예. 그렇게 어려워요 지금. 어렵고, 이 걸을라면 다리가 무너질라고하고,

Q: 많이 부으신거 같은데요.

A: 예, 양쪽이 다그렇게.. 한다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양쪽이 다그렇게.

Q: 도와주시는분은 없고, 따로..?

A: 예헤(웃음)..인자..

Q: 병원이라도 가실려면 누구라도 부축하고 그러셔야되지 않습니까?

A: 인자, 저놈 막대기 짚고 인자,

Q: 아..저 지팡이 짚고 혼자서요?

A: 예. 지팡이 짚고 인자,, 예.. 한시간 갈때면 2시간 가고 30분 갈때면 1시간 가고, 이정도로 인자..(웃음) 땡기요. 그것은 그냥 어서 우리 새끼들만 쪼께 크면 하늘 나라 가고 싶은디, 우리 새끼들이 아직 어렇게,, 쪼금 더 큰거 보고.(흐느낌)

Q: 젊었을 때 주로 그냥 광주리.. 그거밖에 다른 일은 안해보셨습니까? 회사가서 일하시거나...

A: 그러지 않았어요.

Q: 그전에 그럼 남원에서 농사지셨던건가요?

A: 아니요. 그때도 남자만 그 선술장 그 저울들고다니고 그 5일장 돌아댕김서 그려 갖구 술만먹고 못된것만 보고댕기고, 부모없이 커갖고, 부모없이 컸어요, 그 남편도. 그려갖구 그런것만 보고 댕겨갖고 그냥 배운 것이 그냥 좋은 것을 못배웠어요. 사실은. 그리고 댕기다가 굶어죽게 생기고, 병들어 죽게 생겼으니깐 그렇게 인제 어떻게 전주로 올라와 갖구 장사를 쪼끔씩 해먹고 살았어요.

Q: 할머니 그럼 시장같은데 다니신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일반...

A: 시장, 시장에서

Q: 아.. 이렇게 다리놓고 하는거요?

A: 잉, 터를 두어개 놓고 앉아서.

Q: 한참하셨어요? 그것 주로 그것만?

A: 그것을 남원에서 올라온지 30년이 넘었어요 지금. 아저씨하고 사별했어. 58센가 언제 사별허고 이런게, 걸어당기지도 못허고 장사도 못형게 인자 들어앉아 갖구 그래도 어째요. 밥먹고 살아야지 굶어죽일 수는 없응게, 그것도 쪼께 주는놈은 주고 안주는 놈은 안주고 혀갖구 생활비 하다가.

Q: 따로 일하고 그런거, 일안하신지 10여년 되신거네요.

A: 그러지요. 12년, 13년 될꺼요 지금.

Q: 여기는 언제 이사오셨어요?

A: 여기는..시방 올해 이방 한 5년째 됐어요.

Q: 그럼 여기 오신 다음에 수급받기 시작하셨어요?

A: 네. 여기 온 다음에 수급받기 시작했으니깐, 3년인가..모르겼어요. 만 3년인가 4년째 달려들었는가 그거 확실히 모르겼어요.

Q: 요기 아파트 오실때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영구임대 아파트 이런거?

A: 여기를...이..저 삼청동 살았는디. 거기 그제 전단지가 와서 있더라구요, 아파트 매매할테니 그집 뽑는다고 와서 있는데, 그걸 인자 딸을 보여줬더니 딸이 '엄마 해볼라면 해봐' 그러는디 '허면 돈이 있어야지', 그랬더니 그냥 '거기가 판데보 다 싸네' 인자 딸말이 그러. 그때는 딸이 그렇게 안망했었어요. 그전에는.

Q: 아까 말씀하신 그...?

A: 예. 그 막둥이 딸이 그렇게 안망했어. 그러갓구 인자 그렇게 먹고살고, 그렇게 딸덕으로 딸이 잘했어요 나한테.

Q: 할머니께서 잘해주셨으니까 그렇죠..

A: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웃으면서) 가가(딸이) 인제 내가 굶어죽게 생겼으니까. 참, 자식이라고 다 잘하는건 아니더만요. 그래가주고 그놈이 참 먹을 것도 해주 고, 그때는 우리 애기들도 별로.. 인자 안크고 그러니까, 한달.. 한 20만원씩 그 딸이 줘요 인자. 딸이 줘갓구, 거기서 인자, 거기서도 아파트, 쪼그만한 아파트 살았는데 인자 한달에 15만원, 13만원 안쓰고 막 그러갓고 해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말일 날 세금주고 남은 것 갖고 한 달 살라고..근데, 어쩔 때는 한 달 살게 2만원도 안 남을 때가 있어요. (웃음) 한달 살게 2만원도 안 남아갓구 그때는 수급자도 안됐어요. 안되게 그냥, 병원에도 이제 어린것들을 병원에 델 구가면 내가 인제 눈물바람으로.. 이러면 병원에서도 이제 안쓰러우니까...열심히 잘해주고..하튼 어떻게 도움으로 살았어요. 이날까지 도움으로 산 것이여. 도움으로 살았는디, 앞으로 인자 내인생 아니라,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나는,..우리새끼들... 우리새끼들 앞으로 공부만 쪼개 할수 있게.

Q: 공부하고 장가가서 자제분들 낳는것들, 증손주 낳는거 보셔야지요.

A: (웃으면서) 그렇게도 안 바래요. 나 이방 교회 댕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이것들 20살만 먹으면, 20살만 먹으면 즈그들 앞가림은 즈그가 알아서 항 게...인제 큰손주는 잘허든지 못허든지 군대갔다 왔으니까, 그래도 인제 4학년짜

리, 중학교 1학년짜리 그것들 20살까지 먹을 때까지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혀 지금. 20살 이상 더 바라지 않고, 욕심이고, 그것들 고생 조금.. 저가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해서 먹고살 수 있는 거, 그때까지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여.

Q: 따님은 지금 회사다니시는 겁니까? 막내따님 직장다니면서 이렇게?

A: 요새 그거 뭐 간병.

Q: 아.. 간병.. 그거 하시는구나. 할머니도 도와 아니 이렇게 할머니도 소개시켜 줘서 와서 도와주는것도.

A: 아냐.

Q: 안된대요? 대상자가 안된대요?

A: 안되요.

Q: 할머니는요?

A: 안됐네요. 다시 이렇게 판사람한테 신청해야지, 안된다고 그러더라고요.

Q: 따님 통해서 따르분이 와서 도와주고 그런거는.

A: 그런데, 안직 인자 이렇게라도 쪼께 폼지락 거링게...내가 녀(남)한테 너무나 짓는..죄..짓는 것이 많잖여. 살아나온 것, 먹고 사는 것도 이방 다 정부에서 도와줬든지 누가 도와줬든지, 도와줘서 남 덕으로 다 살잖여. 그런데 안직 이렇게 쪼끔 폼지락 거리고 끈이라도 끊여줄 수 있음게, 조께 더 있어. 쪼께 더 있다가 시방 하는거여. 근데 그것도 딸 말 들으면 한 달에 2만원인가 얼마 씩 내야 한다는거 같아요.

Q: 아..그것도 돈을 내야한대요? 풍짜가 아니라 그냥..?

A: 인제 확실히 난 모르는데 한달에 2만원씩인가 내야한다는 것 같아요. 글서 쪼께

더 있다...밥이라도 끓여줄 수 있게. 2만원 낸다는 것도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2만원이면.. 한 달에(웃으면서) 저그...개용을 써도 쓰는데, 한 달에 개용을 써도 쓰는데, 2만원 뺀다는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Q: 그런것도 그냥, 만약에 할머니가 그런 거라도 국가에서 그거라도 까주고 그러면 큰 도움이 되실텐데요.

A: 바랄수도 없습니다.

Q: 할머니 그럼 서울 간 손자도 여기서 살았던 거예요? 같이?

A: 궁계 인자, 제대..제대를 8월달인가 9월달인가.. 9월달에 했어요. 며칠 집에 있다가 시방.. 부모가 있고 시방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쉬었다 하지 가졌어요? 근데 지가 인제 다급헌게.

Q: 학교를 다니다가 군대를 간거예요? 아니면, 군대 갔다와서 학교를 갈려고?

A: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냥 갔어요. 지원해갖구 그냥 갔어요. 그렇게 인제 저는 앞으로 대학 꿈을 가지고, 대학 꿈을.

Q: 괜찮은 청년인데요, 생각이...

A: 영리하기는 혀. 영리하긴 혀고, 착하기는 혀고.

Q: 공부하기 싫어서 다들 놀텐데, 공부하러 나간거 보면은...

A: 그래서 인제 한 보름 여기와있다 이방 갔는데, 며칠 되었지. 안직 인제 나한테다가 호적은 있지 지금. 이방 그러고 있어요. 궁계 나는 도움이 뭐있냐 하면, 딱진 너무나 지나치고 욕심이 많고, 욕심 같고, 욕심은 욕심이지 지금도. 지금도 욕심은 욕심인데, 어린것들.. 학비, 학비...학원비같은거.. 학원비. 내가 소원이 다면, 학원비..학원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Q: 할머니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병원비 이런거보다는 또 그렇게...

A: 아니, 나 아픈 것은 견디겠어요. 못견디...이렇게..지금도 이렇게 바로 못앉아서 몸사리는디, 그냥 나는 그냥, 나부텨는 그냥 어떻게든 견디겠는디, 그 어린것들 들낙거리면서 들어오면 '할머니..할머니' 그러고 그냥 내 어깨 주물러주고, 어깨 주물러 주고, '할머니.. 할머니 오래살아. 할머니 100살 넘게먹도록..' '야아..이눔 아..100살 넘으면 굶적거리지도 못혀. '그래도 내가 있응게, 내가 있응게... '

Q: 그쵸..

A: 교회에서 저그..과자에다가..뭐 이렇게...인자 모 판대기에다 모아다가...과자에다 가 뭐 하면은.. ..그 쪼깐한 것이 그렇게 마음이 그케 고마워요.

Q: 그 초등학교 4학년..?

A: 예. 4학년이, 인제 요때되면은 하거든요. 찬바람들면...교회선생님들 보면 장갑을 이렇게 들더래요. 남자장갑도 아니고 여자장갑을 가지더래요. '김선민', '네' 그러더래요. 그래서 '너어..니께 소용나는거 들어야지 왜 장갑을 갖고 그러냐' 그러니까 '선생님 그런소리 말으세요.' 그래서..'그럼 그거 뭇할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할머니 시안('겨울'의 전복사투리)에 눈비끼치고 손시려웁게 교회당기면서 장갑 끼고다니시라고 그런다고'...그것을 그랬다고, 선생님도 인자 그것이 어떻게 어른도 그것을 생각도 못하는 사람은 못힐는데,..그 어린 것이..그저 그런 생각이 나왔느냐고, 참...착하긴 착해요. 할머니가 '너 이눔자식..' 모 이러면 '할머니 죄송합니다.' 딱 두손 모으고 '앞으로 그러지 안헐께요'. (웃으며) 금방 할지라도..'앞으로는 그러지안헐께요'. 착해요. 착하긴 혀. 시방 여기 새끼들 쪼르르 살아도 생전 애기 없는 집들처럼 땡기지, 아들 통통통통 한번 떠땡기보덜 않헌데요. 막 뛰고 싸우고 그라는디, 저기 그 중학교1학년짜리 4학년짜리 싸우면 좋을때거든요. 절대지게 안싸워요. 절대지게 안싸우고 저그들 둘이 오신도신 하다가 저희 형 없으면 저그 형아 어디갔냐고 찾고, 지 동생 없으면 어디갔냐고 찾고..꼭... 나가서 들어오면서도 살짝살짝 걷지 우두두두두두 에리베타 한번도 떠땡기질 않았어요. 금계 사람들이 그렇게 착하다고 혀고, 본사람마다...내가 한번 그런적이 있었어요. 처음에 여기 이사와갔고, 처음에 이사와갔고, '야, 할

머니 친구들이랑 할아버지들이랑 보면, 어르신들 보면 인사해'. 그랬더니 '예 알았습니다' 그러더니 그뒤로 그렇게 어른들보면 인사를 잘한다네요.

Q: 그렇죠 그게 기본이죠.

A: 네. 그런다고 인사 잘한다고 에리베타안이고 어디를 가다가보면 뺨이 꾸뻑하고 인사한다네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손자들이래요. 지네 손자들 그렇게 인사를 잘한다고 그래요. 어떤쪽에는 돈을 한 2~3천원씩을 얻어가지고 와요.(하하) 그래갖구 '야 너 어디서 돈 갖구왔어. 너 어디 야들꺼 가져오지 않았어?' 내가 그러면, '할머니, 나는 몇 층 할머니한테 인사를 했더니 고맙다고 돈을 줬어.' '니가 달라 소리 안했어?' 그럼 '아니 달라 소리 안했어. 달라 그럼 할머니한테 혼나라구요.' (하하하하) 그렇게 착해요. 착한 것이 한가지 남 좋은게... 내가 뒷받침 못하게 정부에서라도 그것들 쪼끔 이렇게.. 그래갖구..나는 그거 학원비라도 면제시켜줘가주고 학원이라도 넘들만큼 있는 사람말고 없는 사람들... 몇십만원씩 들여서 가르치는데, 나는 그러지 못하게, 그것이 한이여 지금. 그것이 한이여. 저가 공부를 허든지 못허든지 나할 짓은 해야허는디, 할머니 역할을 못허잖여 내가.

Q: 여기 혹시 복지관같은데 있으면서, 방과후 학습이라고 이런거들 따로.. 그런 건 없나보죠?

A: 여기는...내가 모르는가는 모르지만, 모르겠어요. 그런건 없는거 같아요.

Q: 아.. 없는거 같아요.... 근데 아마 학교 졸업.. 아니 학교 끝나고 왔을적에, 가르쳐주고 그런데 있는데 여긴 없나보네요.

A: 없어요. 그러구 그..저..누가 시간별로 와서 갈쳐준다고 하는디, 돈이 엄청나요.

Q: 무료로 하는게 있거든요.

A: 무료 거 말고, 어디서 한번 물어봤더니, 한 달에 뭐 몇십만원이 아니라, 50만원 내란데...

Q: 그런거 아니고...

A: 아녀 말어. 아예 말어. 생각도 안혀 이제. 어쩔때는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전화한 가버. 애들..그 모집할라고, 그러면..나는 그것이 싫어.. 모집하면 돈내라고 하는 디, 내가 어서 말 잘못 해갓구 알다가 못한지, 알아보다가 남의 실랑(이) 닿는 것보단, 미리서 못 가르친다는 식으로 얘기 해버리고 그려..

Q: 동에다 한번 여쭙보셨어요? 그런거 혹시 없나. 도움받을수 있는거 없나 이렇게?

A: 아니 안해봤어요.

Q: 아.. 안해보셨어요. 보통 그 동사무소 통해서요. 지금 수급 받으시잖아요. 도움받으시니깐, 내가 이런거 말고 또 뭐.. 아이들 학업이라든가 뭐 이런거 도움받을 수 있나 한번 여쭙보시고 방법이 있으면 거기서 이렇게 돈 따로 안 들고 연결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동사무소에서.

A: 모르겠어요.

Q: 한번 요청을 해보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A: 안해봐서 모르겠어요.

Q: 주변에 혹시 수급자 되시는 분 많습니까? 나라에서 도움 받으시는 분들이, 임대아파트 이 근처에..

A: 모르겠어요. 나 알기로는 두 집인가 세집인가 밖에는 모르는데, 그 외에 또 있는가 몰라요..그 외에도 있는가 모르는데, 인제 나 알기론 그래요.

Q: 그때 할머니 수급받는거 처음 알려주셨던 친구 분 있으시잖아요. 그 친구 분도 수급받고 있는 분이셨어요?

A: ...

Q: 아니면 그분은 안받으시는데 그냥 알고...

A: 그 양반은 안받았던거 같아요. 안받고...왜냐하면 그..옛날에 젊어서 부녀회장으로 한 20년 했다고 허더라구요. 그러갓구 인자 아는 사람으로 이렇게 얘기 한번 해보라고 갈켜줘갓고 그란거 같아요. 확실히 옛날에 그 양반 사는건 모르고, 여기와서 만났응게...예.

Q: 여기 친구분은 많으십니까? 여기 이사오시고 나서 사시는분들..

A: 그렇게요..근데 이 아파트도 부자아파트가 있고 가난한 아파트가 있다고 하잖여...근데 인자... 그 사는 것도 층화...

Q: 그렇게 많이 느껴지세요?

A: 그러지요.

Q: 이 안에 그럼 잘 사시는 분도 있나보지요? 임대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요?

A: 그것은 그렇게 잘사는 사람은 없는데, 자식들이라도 가르칠 수 있고, 또 자식들이 혹시 따르는데서 살아도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제 층화가 있고...하튼 그래요. 뭐 그렇다고 생각해야지.(웃음) 내 자신의 생각 인가도 몰라요. 그 사람들은 안 느끼지만 내 자신의 인제, 이케 빈곤하게 산게.. 그런 자신도 있는 것도 못된게..항상 내 마음을 낫출래도 그냥 그런 것 같아요.

Q: 애기들 아버지는 어디계세요. 지금?

A: 전주가 있어도 이방 어디가 확실히 있는지 몰라요 지금.

Q: 전주에 계세요 지금?

A: 예. 전주에 있어도 만날 옮겨 돌아 댕겨. 방을 옮겨 돌아 댕겨 인자.

Q: 무슨 일 하시는데요?

A: 지정한 일도 없어. 어디 앵기면 쪼께 허고, 안 앵기면 안하고 그런디, 근데 인자

가정이 있으믄 한자리 이렇게 자리 잡고 여기 아파트라도..이 임대도 혼자 사는 사람은 안준대요. 공개..

Q: 아..우선순위가 더...

A: 예. 우선순위가 수급자들, 장애자들 인자..어찌튼간에 인자 생활이 복잡한 사람들..그러더라도 암암리에 다 들어와서 산 것 같애요. (웃으면서)사람이..시방 그런 세상이지 않여요? 잉? 그런 세상이거든요.(웃음) 어떻게라든,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살 수 있는 것 같애요.

Q: 자주오세요? 아드님...

A: 아유, 안온당게. 한 달에 한 번도 올똥망똥...아까 한 달에 20만원 대준다는 놈이 그 놈애긴디. 안와요. 한 달에 한 번도 안와요.

Q: 전화는 자주하세요?

A: 자주 안 오는 놈이 전화 자주 오겠어요?(웃음)

Q: 애기들이 아빠 찾고 그러지는 않아요.

A: 아유.. 안찾아요. 어찌다 인자 생각나면 저아빠가 불러냉게벼. 불러내서 째금..돈 만원 줌서 인제...용돈...이 뭐 사먹으라고 주고 그라는 것 같애요. 한번은 우리 쫓간놈이 그런 말을 하더라구요. 성민이란 놈이. 한번은 저그 아빠가 어디를 모 햄버건가? 햄버곤가 햄버근인가 사준다고하드래요. 어디서 만나갖고 델고 가는 디, 즈그만 사주고 할머니것은 안사주드라혀..(웃음)

Q: 아..쫓그만 애가 와서 얘기해요?

A: 잉.. 즈그만 사주고 할머니는 안사주드라...글서 먹음서도 고민이드라요. 어린 것이....글서 할머니것도 사주라 소리도 못허고 어린 것이 참 고민했는가벼. 그러다가..인자 그리갖고는 먹고 나오는데 마음이 째째하드래요. 근데 돈을 2천원씩을 주드라. 2천원씩을 줘서, 인자 쫓간놈 2천원, 큰놈 2천원, 2천원씩을 준게 한

앞에 천원씩을 걷어갓구 오다 풀빵사왔다구(하하하하)

Q: 애들이 너무 이쁘네요.

A: 풀빵사갓고 와갓구, '야 누가사켰어. 느그 아빠가 사켰어?' 그랬더니 '아니'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거여. 아빠가 햄버거를 사주는데 할머니것은 안사주고 즈그만 사준게 먹으면서도 거시기 했는디, 2천원씩을 쥐서 형아 천원 저 천원 걷어갓고 2천원어치를 사왔다.(하하하) 그래서 내가 그소리 듣고 '참...니속에 무엇이 들었냐..'

Q: 손자들 크면 디게 잘하겠어요.

A: 니속에 무엇이 들었냐고 내가 웃음서 맛있게 먹은게, '할머니 맞나지요?' '그럼 누가 사왔간데 안맞나' 그라고 먹었는디, 그렇게 이냥..

Q: 그런게 행복이죠.

A: 예. 거기서 그렇게 행복을 느끼고 살아요. 그냥 임시 고통당하고 아픔에 시달리고 또 그냥 어느 순간에 또 복잡할 때 있고 머리 아플 때 있고, 그냥 그래도 또 그 순간에 새끼들이 쭉 이렇게 들어와서 '할머니' 이려고 들어오면 그때부턴 기가 살아난거야 인자. (웃으면서) 앉았다가 혼자 앉아서 인자 텔레비전 보고 우두커니 있다가도 인자 '응 잘 잤다왔어?' 이러면은 '응' 그럼서 막 등으로 달려들면서, 어떤때는 책보도 안내려놓고 내 등으로 달려들어서 주무른당께.(하하) 그 낙으로 살아요 지금. 그낙으로. 궁께 난 암것도..우선..생활은 쪼끔씩 동에서 쥐서 형게..아들 학원비..그리고 동에 가서 한번 가서 알아볼려고 하기는 하면서도, (다리)수술할래도 형편이...알아보면 인제 뭘 말이 나올랑가는 모르는디, 근디 인자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를 하면은 몇백만원 든다고 허는 것 같애요.

Q: 아..무릎..저기..

A: 무릎 수술하는디.. 그릉게로 후딱 내가 나서지를 못허 지금. 돈이 없응게.

Q: 한번 알아라도 보시지요. 그래도..

A: 동에 가서 한번 알아봐갖고 할 수 있으면...걸음이라도 쪼끔 걷게.

Q: 그쵸

A: 그럴 수 있게 이방 맘을 먹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인자 한번 가봐야 알지. 모르겠어요 가봐야알지. 가봐갖구 인제 할수 있는 한 그러면 하고 안되면 못하고, 인제 그것이야. 나는 소원이 아들 학원비, 내 몸 아픈데 좀 인제.

Q: 하나 더 여쭙볼게요. 처음에 장사하고 그랬던게 있어서 동사무소에서 안된다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나중에 된다고 하시던가요? 뭐..뭔가 요청을 하셨어요? 진단서라든가 뭐 환경적인.

A: 몸은 인제 내가 그때부터 아팠고, 아팠고 인자, 이 애기들...애기들 때미

Q: 아..애기들을 할머니가 키우시니까?

A: 애기들... 애미 없는 애기들을 키우는 걸로 해갖고 되었어요. 애미 없는 애기 키운다는 걸로 인자.

Q: 음.. 그러니까 여기 이사오신 다음에 아이들을...? 그전에도 키우셨어요 아님 이사와서 키우셨어요?

A: 그 전에도 키웠는데, 동사무소 들락거리면은 우리집 아저씨가 인자 재산을 쪼끔 갖고 있었어요.

Q: 아....

A: 인자 따로 사는데, 나는 왜냐하면 장사하다가 밤에 쟁일 술 먹고 들어와서 뚜드려 맞아갖고 그냥 신발만 신고 그냥 튀어 나와 버려서 10원짜리 돈하나 안 갖고 나왔거덩. 공계 인자 남자...그동안 내가 장사해서 벌은 것..집이 인자..주택이 하나 있었어요. 그렇게 인자..

Q: 그것 때문에 안되셨던거군요.

A: 예. 그렇게 남자가 돈이 있다. 그렇게 인자 이혼을 해라. 이혼을 하면 할수 있다. 근디 난 인자 이혼도..그 늙어갓고 이혼한다는 것이 또 좋은 거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 내 마음은 그러. 근디 자식들 잘났든지 못났든지, 자식들이 말하자면 그.. 엄마가 늙어서 이혼했다는거, 그런 것이..이..안될 것 같으드라고. 그리고 자식들도 인자 원하지 않는 것 같으고..난중에라도 한데서 살지 그런 것 같아갓고 이혼을 안했더니, 이혼만 하면 된다는디 이혼을 안하니까 안된다. 영감한테가, 남자한테 집이라도 있고 장사 한것도 뭇이라도 있지 않느냐..이런걸로 해서 그랬거든요. 근데 인자 난중에 내가 이렇게 되고 본게, 새끼들이 엄청 어려워서 복잡형게, 새끼들 인제 애미 없는 새끼들 서이(3)나 키우는 조건으로 된 것같아요. 모르겠어요. 확실히는 몰라요. 그런 조건으로 된 것 같어요. 우리집 남자도 인자.. 그래갓고 내가 이렇게 생활보호 대상자 되었던걸 보고 자기도 혈라고 막 뽕백거리고 땡기다가 못허고, 영 못허고 죽었어요 지금. 영 못허고 작년인가 죽었어요. 궁게 올해도 내가 저그..한번 떨어졌었어요. 한번 떨어졌는디, 석달.. 서너달 되었는가 지금, 석달 넘었는가 모르는디, 우리 군대간 손주가 그때 휴가를 왔었는데, 인자 젊은 놈인게 휴가들 나오면 저희 친구들과하고 밤에도 돌아땡기면서 놀고 그러잖아요. 그런디 밤 1시가 넘었는데, 이 초인종을 누르더라구요. 글서 문을 끌러야겠다고 벌떡 일어나 선게 그냥 어지러움이 확..돌더라구요. 그라는디 어지러움이 들면서도 내가 저 문은 끌러줘야지 싶은 생각이 후딱 들더라고. 글서 문을 딱 끌르면서 팍..요래 쓰러져버렸어요. 쓰러져버렸는데 인자 나는 쓰러진지 어쩐지도 몰랐지. 그르자마자 그놈이 막 ‘할머니’ 하구 들어와서 난리 났었는데. 궁게 인자 119로 전화해서 119 차가와서 대학병원에 신고가고 막 난리 나갓구, 대학병원에 들어갈때는 죽어갓고 들어갔는디,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그래도 꺼백 깨나갓구 사흘만인가 퇴원했어요.

Q: 아..다행이세요.

A: 퇴원해갓구 이렇게 이방 사는디, 그때도 없는 돈이 100만원 이상 들었어요. 100만원 이상 들어갓구 여기서 저기서 틀어대갓고, 딸애들이 어떻게 해갓고 100만

원 해줬어. 그런거 저런 것이 난 복잡하지요. 사실은...통장에 돈 있는거 아니고, 통장에 돈 있는 것 아니고 달달이 그..뭐..생활보호, 그 전북은행 통장에.. 그거 들어오면 딱빠서 쓰고 딱빠서 쓰고 하는데 돈들은 것 아니고, 그런 때 제일로 복잡한게져. 어쩔때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제 그럴 일이야 없었지만은 사람이 없다고 장담도 못하고, 있다고 장담도 못허잖아요. 그렇게 난 그것이 쪼끔 허전하지요.

Q: 저금은 하나도 못하고 사시죠?

A: 아이고.. 하하하하.. 저금은 뭘 저금을혀..하하하 저금할 입장 되면 또 이 생활보호 대상자도 안되죠. 생활보호대상자도 안되야. 저금할 입장되면. 어디서 다만 몇십만원이라도 자식들한테도 보호받으면, 그거 다 까고 들어오고 그것도 생활보호대상자도 안된대요. 그런다는디, 자기들이 뭐 몇 년 이방, 삼년인가 사년인가 계속 와보면 어디서 천원짜리 하나도 들어오는지 없으니 자기들이 봐도, 일 년에 한 차례씩 두 차례씩 꼭 조사하거든요. 조사를 하면 인자 나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조사한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상으로도 조사하드만요. 그럼 다 나타남게.. 궁게 그런 걸로 다 아는 것 같애요.

Q: 일해 볼 생각은 안해보셨어요?

A: 일을 해볼라도 못헌다니께, 몸이 아프니까. 이번에도 친일타원가 여기 어디 생겼다면서, 한번 인제 모 종이접기, 뭐 접기 험다고 가서 뭐 한번 할라 그랬드니, 이 다리때매 못혀. 이려고 앉았응께.

Q: 갖고 와서는 못해요?

A: 이리와 앉아있지를 못헿게... 오그리고 앉았음 이 다리가 뻗어지질 않혀고, 또 이렇게 뻗어놓고 있으면 오그라지질 않혀구.. 이게 더허드라고. 그래서 못..못나가. 그러갸구 못나가. 그렇게 헿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헿 수 없는 것이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헿수 없어. 내가 다리만 이래 안한다면, 내가 어디서 저그 이..정부 도움 받고 살겼어요. 장사해먹고 사는 사람인디, 어디가서 나

분데도 나먹고 살건 벌지. 그런데 이거이거 이 몸뎡이 땀에.. 못형계.. 병들어갓
고... 그거여.

Q: 예..좋은 말씀 감사드리구요.

□ 수급자 15

- 조사지역 : 중소도시
- 가구유형 : 한부모 가구
- 수급유형 : 현재수급
- 수급기간 : 1997년도부터 약 10년 정도
- 응답자 가구사항

가구주와의 관계	연령	성별	직업 및 경제활동	장애여부(등급 및 내용)
본인(가구주)	48	남	근로능력 없음	-
자	14	남	-	-

※ 응답자 본인을 1번으로 기록할 것

- 주거상태

주거시설(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난방, 수도시설 등)과 주거지환경에 대한 간단한 묘사(교통입지나 직장, 학교와의 거리 등)
<p>응답자의 주거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일자를 두차례에 걸쳐 바꾸었으나 응답자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에 계속하여 남아 있게 되어 응답자의 주거를 확인하지 못하였음. 그러나, 효자2동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신규 건축된 임대아파트에 올해(2008년) 1월 입주한 것으로 보아 신광춘(조사대상자)씨와 비슷한 환경일 것이라 생각됨.</p>

○ 조사평가

조사전반에 대한 느낌 - 조사를 마친 후 조사자가 직접 기록

여러 조사 및 인터뷰에 응한 경험이 있는지 조사자를 보자마자 '며칠 전에도 전화조사를 했는데 5,000원을 받았으면서 이거는 얼마주는지...'라는 질문을 하였음. 지체장애 1급으로 전동휠체어로 이동을 하며, 몸의 통증이 매우 심해 삶에 대한 의욕도 없어 그저 하루 하루 연명해 간다고 하였음. 조사 시에도 성의 없게 대답하며 삶에 대한 비판, 현재 삶에 대한 불만족스런 입장들을 계속해서 표명하였음. 아들이 한명 있어 전라북도 내에서 효행상까지 받았다 하나 아들을 아버지로서 부양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기 보다는 응답자 자신을 케어하는 수발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인터뷰 중 드러났음. 아들이 효행상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아들은 아버지의 반복되는 입·퇴원생활이 싫어 병원에는 오지 않아 간병인을 활용하고 있다고 하였음. 집에서도 아들과의 대화는 거의 없이 아들은 주로 텔레비전 시청과 컴퓨터게임만을 한다고 하였음. 응답자가 거짓 내용을 말한다거나 내용을 숨기려고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나 자신의 삶에 대한 지나친 운명주의로 일관하는 경향, 비관주의로 인해 원활한 조사 진행이 되지 않았으며 차후 분석에도 활용여부가 의심스러움.

Q: 아.. 실태조사도 했었어요?

A: 네.. 전화로

Q: 아.. 전화로 하는거하고 다르구요. 이견요 선생님...

A: 그래가지고 그러대요. 수고비로 5000원 넣어 준다고...

Q: 저희는 더 줘요. 상품권 드려요.

A: 뭐요?

Q: 농협상품권..

A: 얼마짜리? 얼마 크지도 았구만..

Q: 5,000원보단 크잖아요.

A: 그료...알았시유.

Q: 작년엔 이사하시면서 많이 안 좋아졌다는데 어떻게.

A: 작년엔 인후동 살았는데... 아파트로 이사하면서부터 계속 아프더라구요.

Q: 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무슨 원인이 있어요?

A: 모르겠시유. 장이 안좋아요 지금.

Q: 장이요?

A: 예.. 장이 갑자기 가스가 차고 가스가 배출이 안되니까 그것 때미 지금 봄부터 계속 집에가 14일 있었던 게 최고 많이 있었시유.

Q: 하.. 그러면 정기적으로 이렇게.. 댁에 한 14일 정도 계셨다가 다시 병원에 계시고 다시 집에 가시고..

A: 예.. 그게 자꾸 반복이 되니까 살 용기가 없어지더라고... 인자 어떻게 벼랑끝에 와 있는 것도 같고..

Q: 이유는 뭐라고 뭐 그런 건 없으세요?

A: 장애 가스 찼다고.

Q: 아니 그니까 장애 가스 차는 이유가.

A: 장 운동을 제대로 못해주니까..정상인이 아니고.

Q: 아.. 그러시구나

A: 예.. 병명도 안나와요. 대학병원 가면은 그것 가지고는 입원 안된다고 대학병원에서 C.T.찍어도 병명이 안 나오고 단지 가스 차서 그런다고..

Q: 다리는 언제부터 그러신 건가요?

A: 10년 됐어요.

Q: 예.. 사고나신 거예요? 그러면?

A: 예.. 여기 경추 7번

Q: 아...

A: 기계에 말려가지고

Q: 아이고 되게 놀래셨겠어요.

A: 제가 여기가 아니고 안면도 살았었거든요.

Q: 아.. 안면도 사시다 전주로 온거예요?

A: 여기 온지가 한 5년 됐는디...

Q: 그러시구나..

A: 예..

Q: 안면도.. 저 안면도 좋아하는데

A: 사고 나가지고..

Q: 예...

A: 안면도에서 배 탔거든..

Q: 아...그러셨구나

A: 거기가 지금 좋아졌지요.

Q: 예.. 지금은 많이 휴양지로 줌..

A: 각광받지요. 거기는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이나 가는거지 뭐...

Q: 많이 불편하시겠어요. 선생님..

A: 불편해도 어떡해요?

Q: 식사는 제대로 하세요?

A: 예. 먹딜 못하니까 살이 다 빠졌어요. 살이 많이 빠졌어요. 한 10키로 넘게 빠졌어요.

Q: 소화가 잘 안되시니까 또..

A: 그렇지요 병원에 가면 일단 굶겨버려요. 에휴.. 금식을 그냥 밥 먹듯이 하니깐 살이 빠질 수 밖에 없지요. 먹는 걸 소화를 못 시켜...

Q: 다리랑 부으셔가지고..

A: 예.. 부어요. 항상.. 혈액 순환이 안 되니까 이걸 부은 것도 아니에요. 이걸.. 부은게 아니야... 보통 때는 더 부어요.

Q: 아드님이 있으신 거예요?

A: 예. 있슈.. 14살.. 14살인데 우리 아들이 많이 도움이 크지요. 효행상을 대상을 3번이나 받았는데..

Q: 와.. 진짜요?

A: 전주시에서 주는거...

Q: 아...

A: 그랬더니 뭐 텔레비에 두 번이나 나왔었거든요.

Q: 아.. 예...

A: 서울에서 먼저도 두 번이나 전화가 왔더라고 뭘 찍자고 인간극장인가 뭐가 찍자고... 우리집 애한테 물어봤더니 우리집 애가 힘들다고 반대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안 찍고 말았거든요. 그니까 작년 그리께 인가는 캐나다에서 그걸 알고서 신문기사를 보고서 용돈하고 선물을 보내 왔더라고 캐나다 달라하고 뭐 많지는 않지만 사람이 먹을 과자하고 초코렛하고 보내 왔더라고 너무 감사하더라고...

Q: 그랬었구나... 그럼 지금 선생님이 병원에 나와 계시면 아드님 혼자서 학교 다니고..

A: 예.. 그렇게 혼자 생활하고 그래요. 근데 이자 가사도우미 아줌마가 오는데 그것을 이제 정부에서 그 월급을 정부에서 주는건데 바우처 사업이라고..

Q: 예...

A: 그렇게... 어떻게 생활해요 그냥..

Q: 아드님 하는거 조금 먹을거랑 이런 것좀 봐주고..

A: 예... 제가 며칠 있다 또 가야지요. 걱정이 되는게 병원에 오래 못 있겠더라고
지금 한달 예산으로 왔는데 지금 오늘이 8일이 됐구만요. 8일이 되는데 걱정
되는게 가야할 것도 같고...

**Q: 아드님이 어떻게 잘해주세요? 어떻게 하셨길래 효행상을 그렇게 많이 댔는
지..**

A: 몰라 헌것도 없는데 전주시에서 효행상 3번이나 주대.. 대상만..

Q: 우와... 아버님을 끔찍하게 생각하나보다.. 아들이

A: 아마 우리집 애밖에 줄 게 없었나 보죠.

Q: 이름이 뭐예요?

A: 김○○

Q: 아.. ○○이.. ○○이가 그래도 아버지한테 엄청 잘하나보다.

A: 엄청 효자지요. 효자인데 제가 아들한테 못해서 그렇지.

Q: 그럼 지금 중학교 1학년인거예요?

A: 예..

Q: 어디 학교 다녀요?

A: 우전 중학교... 1학년..

Q: 아.. 아이구 중학교 1학년이면 오히려 손길이 더 필요한 나이인데

A: 그렇지요. 엄마 밑에서 어린양도 해야 되고 그럴 나이인데 상황이 상황이다 보
니께 어쩔 수가 없지요 뭐 근데 가끔 가다 제가 안쓰럽더라고..

Q: 그럼요..

A: 겉으로 표현은 안하지만 애한테 몹쓸 짓을 하고 근데 어떡해요? 이렇게 안하다 가는 둘이 다 떨어져서 살아야 하는디... 제가 대천서도 조금 있었거든요.

Q: 충청도가 계속...

A: 아.. 원래 고향은 충청도가 아니고.. 본 고향은 군산인데 고향을 일찍 떠서 서산에서 많이 살다 보니 충청도 말을 많이 쓰지요. 제가... 주로 서산 쪽에서 많이 생활했기 때문에... 한 20년 전에는 제가 영등포에 있다가 영등포 문래동에서 한 5년 살다가..

Q: 전국 각지에서 사셨는데요. 선생님

A: 예.. 각지로 돌아댱겼슈. 문래동에서 한 5,6년 살다가 직장생활 하다 내려와가지고 안면도에서 배 타다가 한 10년 타다가 이렇게 됐지요. 다친지 10년 되고..

Q: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A: 뭐.. 누구 말파나 영화 필립이나 같으면 거꾸로 돌리면 제자리에 돌아오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원위치로 못 돌리는 게 사람이여..

Q: 그러게요.

A: 아.. 이걸 허가지고 가서 이자 저녁에 작업을 할려고?

Q: 예.. 맞아요.

A: 그렇지요.

Q: 그럼 뭐 어떻게 혼자되신 거예요?

A: 다치기 전에 헤어졌어요. 애 엄마하고..

Q: 그냥 이혼하신 거예요?

A: 예...

Q: ○○이는 선생님이 키우면서..

A: 애기 때부터 떨어져서 살았은게. 제가 다치기 전에는 절에서 살다가 우리집 애가 암자에서 조금 키우다가 아는 스님이 있어가지고 암자에서 조금 키우다가 이자... 대천에도 이제 고아원에 조금 있다가 우리집 애가 지금 이렇게 사는지는 같이 살은 지가 한 5년 되요.

Q: 아..네..

A: 시설에서 살다가 이제 독립한지는 2년이 넘고. 2년 한 반 되고 독립해서 둘이 살았지.

Q: 그래도 같이 사니까 더 좋으시죠?

A: 좋기는 좋은데 작년까지만 해도 좋았는데 제가 올 들어서 이렇게 자주 아프니까.

Q: 또 신경 쓰여서 아드님이..

A: 살 용기도 없어지고..

Q: 아휴. 그러시면 안되죠. 두성이가 한참...

A: 자해도 시도 해봤는디 안 되더라고..

Q: 선생님, 안되요.

A: 얼마 전에 최진실이는 복이요. 그냥 가는거..

Q: 아휴. 두성이가 들으면 큰일날 소리 하시네.

A: 아니요. 하도 많이 들어서 가는 이게 귀에 들어오지도 않을끼유.

Q: 아이 그래도 아버님이 있어서 두성이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생각 하시면 안되지요. 뭐 친척이나 같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안 계세요?

A: 친척이요? 제가 아프니까 다 소용이 없어라구요. 형제 자매도 다 등 돌리고.. 제가 이렇게 아프니까... 옛말에 긴병에 효자 없다고. 다 그렇게 돌아가더라구요. 세상이...

Q: 왕래는 안하시고 지내는 거예요?

A: 왕래는 하긴 하는데 요즘은 좀 안와요.

Q: 아..부모님들은 다 뭐.. 살아계신지 아니면...

A: 일찍 돌아가셨죠. 어려서...

Q: 몇째.. 선생님 몇 번째 아드님이세요?

A: 둘이요. 두 번째...

Q: 부모님들 살아계셨을 때면 들쎄면 형님이 더 이쁨 받으셨을려나..

A: 가진 것도 없고 인덕도 없고 그냥 제 복에 살아가야 되요. 주어진 만큼만 허라고... 그렇다고 해서 넘 원망도 않고 집안 원망도 않고 제 복이니라 하고...

Q: 부모님은 뭐 형편이 어렵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A: 부모님이요? 다 어려서 다 어려웠지요. 어렵게 살았죠. 옛날에 부자로 살은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었다고요? 옛날에...

Q: 그래도 부모님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A: 원망스럽죠.

Q: 어떤 부분이?

A: 부자집에서 태어났으면 이런 고생 안 했을텐데 다쳤어도 이런 고생은 안할 것 같은데..

Q: 그런 것들이 아쉽고..

A: 예... 근데 지 복이니라 하고 살아가요. 제 복이 이정도 밖에 안되서...

Q: 기초생활 수급은 언제부터 받으신 거예요?

A: 다치고나서 한 5개월 만에.

Q: 아 그러면 한 10년 정도 되셨네요.

A: 예. 그렇죠 10년 됐다고 봐야죠. 근데 또 우리집 아이가 소녀가장 혜택을 보다 보니까 좀 여러모로 괜찮더라구요. 살아가는 게 후원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우리집에.. 그놈 가지고 조금 예금도 하고 그랬었는데 올 들어서는 자꾸 돈이 들어오기는 고사하고 자꾸 까져요. 내가 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니까.. 간병 비로 돈 챙겼던 것도 다 까먹고 지금 완전 벼랑끝에 와 있슈..

Q: 이거 제도는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이런 기초생활제도는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수급 이런거... 예전에는 생활보호였겠네요. 10년 전이었으면

A: 그때 당시에는 절에 스님이 만들어 줬더라구요. 저는 병원에가 있었고 한 2년 동안은 병원에 가 있었은게.. 병원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욕창도 번져가지고 욕창이 다 생겨서 살이 다 썩어가지고 그다 보니까 제가 평택에 있었거든요. 거기서 7개월 병원생활 하다가 4개월만에 욕창이 생겨서.. 7개월 마치고 군산으로 내려와서 군산의료원에 5개월 있다가 욕창 치료를 하느라고... 균을 죽여야 수술을 한다고.. 욕창이 크게 생겼어요. 제가... 그러면서 제가 옆드려서 자고 옆드려서 생활하다시피 했지 24시간을.. 옆드려서 밥 먹고 그러다 보니 제가 옆드려서 먹어요. 밥을... 옆어져서 한쪽으로... 밥을 바로 못 먹고... 습관으로... 그러다 보니까... 근데 군산에서 한 5개월 욕창 수술 치료를 하다가 균이 다 없어졌다고 수술을 해야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자기는 이제 고만 뒤

야기 때문에 못한다고 그럼서 익산 원대로 옮겨주더라고... 교수한테로 다리를 놓아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원대 와가지고 일주일 만에 딱 수술을 했거든요. 일주일 만에 수술 해가지고 50일 만에 퇴원을 했지요. 퇴원을 했는데 그때 수술 당시 7시간 수술 받았은게 대 수술이죠. 살을 다 꼬메니께 안에서부터 이 옆구리가 다 썩어서.

Q: 치료하고 회복하는 것도 엄청나셨겠어요.

A: 예.. 그래가지고 인자 50일 만에 퇴원해가지고 서산의료원으로 올라와가지고서 처음에 이제 연고지가 거기다 보니까 서산의료원 가서 한 5개월 7개월이구만... 7개월 병원생활하다가 또 이제 여동생이 대천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대천으로 나를 데리고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대천 보령병원에서 아산병원이여... 거기서 한 8개월 하다가 인자 시설로 가서 부여쪽으로 가게 된거지 시설을... 부여쪽에 가서 한 1년 넘게 사는데 한 1년 반 살았는데 거기서 또 큰 사고가 나는 바람에.

Q: 어휴...

A: 그 목사하고 목사 사모님이 식구들이 한 20명 됐거든요. 미인가복지시설인데 이자 폐교된 학교 옛날 초등학교... 건물이 다 목재건물이더라고... 그래가지고서 거기서 화재사건이 나는 바람에 그 새벽 두시 한 10분경인가 제가 발견하고 불을... 불 난것을 나무 보일러를 뺐거든요. 석유 보일러가 아니고 바깥에 굴뚝 있는데서 불을 봐가지고 내가 식구들 다 깨우고 명도 질지요... 식구들을 다 깨우고 목사님이 남자 목사님이 나를 먼저 업어다 내 놓더라고 다른 사람 구하다가 그 목사님하고 연세 드시 분하고 4분이 돌아가셨슈... 화재로.. 저는 20사람 중에서 살아 남아가지고 병원에 가 입원해 있는데 내가 이자 읍사무소에서 찾아왔더라고 복지과에서... 그러다가 어떡해요. 생떼 썼지 나 갈 데도 없고 시설로 보내 달라 그랬더니 거기서 얘기를 해주더라고 논산... 논산에 수녀님들이 운영하는 성모의 마을이라고 일반 수녀님들이 하더라고 논산에서 유일하게... 저 같은 사람이 한 100분 있는데 글로 해주더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 7개월 있다가

갑갑하고 못 있게 생겨서 그냥 규제가 너무 심해가지고 참... 머리에 정신은 말끔하게 배겼지 그건 못 이기지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와가지고선 다시 이제 어떻게 대천으로 와가지고서 여동생네가 몇 달 있다가 누가 얘기를 해주더라고... 여기에 저 미인가시설이 있는데 여자가 운영하는데 한번 들어가 살아보라고.. 우리집 애하고 그때 당시 아무 것도 없이 돈 10원도 없이 내려왔시요. 5년 전에.. 내려 와가지고 여기서 자리를 잡게 된거죠. 2년 전에 독립을 하게 된거요. 내려와서.. 내려왔는데 여기 여자 목사님이 우리집 애를 소녀가장으로 만들어 주더라고. 지금 그 혜택을 해가지고 소녀가장 혜택.. 그걸 해가지고 지금 아파트 들어와서 살거든요. 아파트로 들어오고서부터 자꾸 이제 아프기 시작하거든요. 작년 12월말에 이사를 왔거든요. 주공에서...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살고 있지요. 여러 가지로 덕을 보고 제가 몸이 이렇게 생겼은 게 이자 우리집 애가 집안 살림을 다 허다시피 하잖아요.

Q: 그렇죠.

A: 그러니까 이제 소녀가장으로 만들어 주더라고.

Q: 일은 전혀 못하시겠어요...

A: 그럼요.

Q: 다치고 나서부터는 한번도 못하셨을 것 같은데.

A: 일을 하긴 해요.

Q: 어떤 일을요?

A: 작년에 인후동에 살 때는 제가 이제 설거지도 하고 밥도 얹히고.

Q: 아니 그런 일 말고 직장생활.

A: 아이 그런 일을 전혀 못하죠.

Q: 선생님 일상생활 관련된 것들은 집에서 설거지 하고 정리정돈 같은.

A: 예, 설거지 정도는 해요. 싱크대 앞에서. 그런데 이자 올 들어서 많이 아프다 보니까 못해지더라고 일월 한 하순께부터 아팠거든요. 계속 반복이 되요. 이게 이사하면서부터.. 별 생각도 다 들어가지고.

Q: 음 옛날에는 생활보호였지만 2000년도 되면서 수급자로 바뀌었잖아요. 그때 동에서 공무원이 나와서 친절하게 안내 잘 해주고 그러셨어요?

A: 작년에 인후동에서 살 때는 그런데 가끔 나와서 전화도 해주고 그러더니 이쪽으로 이사왔는데 이자 여직원이 3분인가 있더라고 전혀 뭐 나오는 일도 없고 뭐... 다 동마다 틀리더라고요. 직원마다 틀리고.... 각자 자기 시간이 있으면 이게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쪽에는 다 여자분이더라고요. 3분인가 다 근데 뭐 그럴 거시기도 없고..

Q: 그러면은 뭐 선생님은 지금 진단서 끊어서 내시고 일을 안 하고 계시는 상황이신가요? 수급 받으려면 일을 안 하고 이럴려면 진단서 내고...

A: 그런건 없었어요

Q: 진단서 제출하거나 그런거 없었어요?

A: 예.. 이제 뭐 낼 때... 장애등급 낼 때 그런 것은 해서 냈었죠. 그때 당시.. 9년 전에 ... 그 뒤로 뭐 그냥 장애자카드 나오고 장애자증.. 그거지 뭐 특별하게 뭐 한건 없어요..

Q: 음.. 그러시구나. 그럼 동에는 뭐 일년에 한 번 정도나 가거나... 동에는 거의 안가시겠네요

A: 아.. 가긴 가는데 제가 몸이 아프다보니까. 우리집 애가 이제 쿠폰이라고 하나요? 식품권... 그거 타러 갈때는 가는데 요즘은 이제 못 가니까 우편으로 발송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거의 못 나가다시피 하니께 또 동사무소가 멀어요. 우리집하고는 작년에 인후동 살 때는 가까웠는데 여기는 멀다 보니까 이게 그

렁구나 해가지고 몸이 불편하고..

Q: 근데 어떻게 하다가 사고 나신 거예요?

A: 뱃일하다가.. 기계에 말려가지고...돌아가는 기계에 말려가지고.. 뒤 목 애리가 감고 돌아간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는 줄 알았더니 어떻게 살아가지고..

Q: 그럼 계속 뱃일 하신 거예요?

A: 다치기 전에는 한 10년 동안은 뱃일 했지요.

Q: 뭐 공장에도 다녀보고?

A: 서울에 있을 때는 공장도 땡기고... 그때 내가 77년도 아니 87년도에 내려왔구나..80년도에 서울 있다가 87년도에 내가 내려왔거든요. 영등포에만 있다가.. 영등포 문래동쪽에 많이 있다가...

Q: 장애 몇급이신 거예요?

A: 1 급이죠. 원래는 특급으로 해야 하는데 특급은 없고...

Q: 1급이 가장 중증이죠.

A: 뭐 저보다 더한 사람도 있더라고... 그 사람도 1급, 나도 1급.. 왜 특급이 없나 몰라요. 특급도 있어야 하는데... 두 팔도 못 쓰는 사람 있지요. 이렇게 누워서... 그런 사람은 특급으로 해줘야 하는데...

Q: 지금 급여는 얼마 정도 나오세요?

A: 80만원 정도 밖에 안돼요.

Q: 아.. 그 정도.. 〇〇이 따로 받는건

A: 같이 합쳐서..

Q: 후원금이나 이런건...

A: 후원금은 30만원밖에 안 들어와요. 한달에 삼성생명에서 20만원 들어오고 여기 전주우체국에서 10만원하고 고것밖에.

Q: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나오시니까.

A: 그런대로 살아야지 뭐... 못 받는 사람도 있으니까.

Q: 맞아요.

A: 너무 욕심 부려도 안돼요. 사람이 그냥 주어진 만큼만 살아야지.

Q: ○○이 위해서 뭐 요즘에 하신다거나 그런거 있으세요?

A: 학원에 보내고 하는데 제가 지금 돈이 쪼달리다 보니까 학원을 대엿달 보내다 못 보내요. 그게 좀 안 쓰럽고.. 예.. 간병비 때문에.. 병원비는 어지간한데 간병비 때때.

Q: 여기 병원 들어오면 간병비를 쓰고..

A: 이제 벼랑 끝에 와 있는 것 같지요.

Q: 그래도 그런 거에 불만이 없나봐요. ○○이가..

A: 불만을 가지면 안되지 주어진 거에 어떡해요

Q: 그래도 착해서..

A: 예. 너무 착해요.

Q: 몸이 불편해 보이시는데 제가 자꾸 질문을 하기가...

A: 근데 모르겠시요 이명박씨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자꾸 복지 예산 삭감한다고 하니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시대가 지금 거꾸로 가고... 통일 문제

도 거꾸로 가고...

Q: 몸이 많이 불편하신데 일해보고 싶거나 그런 생각 해본 적은 있으세요?

A: 그런건 없는데 더 아프지만 않으면 살겠지요.

Q: 통증이 너무 심하고... 다리에도 통증이 있고 그러나요?

A: 그럼요. 저같은 사람은 똑같아요. 24시간 죽더락 통증이에요. 왜 정상인 사람들은 양반 다리하고 앉았다 일어나잖아요. 아빠 자세라고.. 늘 앉아 있잖아요. 안 움직이고 그럼 저릴거야. 그런 것보다 더 심해요 24시간 막 미쳐버려요. 사람이 그건 아파본 사람이나 그 심정 알지 의사도 몰라요 그냥 아플거다만 알지 말도 못해요.

Q: 지금 그래도 이렇게 이사하기 전에는 조금 덜 아프셨다고 하니까.

A: 1년에 응급실 한번밖에 안 갔지요. 한번이나 두 번 근데 올 들어서 계속 그니까 별 생각이 다 들어가요. 이사를 잘못해서 그런가.

Q: 그럼 예전에는 돈 가지고 그걸로 뭐 저축도 하고 그러셨다고 했는데. . 지금은 전혀 못 하시고 그런가요?

A: 많이는 못했죠. 조금 했지요. 조금씩... 거기다 대고 이자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아이가 크다 보니까 나중에 또 대학도 보내야 할 거 아니에요.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지금은 자꾸 까먹어요. 이사하면서부터 그니까 뭐 벼랑 끝에 와 있는 것도 같고.

Q: 지금 저축한 것도 거의 쓰고.

A: 예.

Q: 두성이는 무슨 학원 다니는 거예요?

A: 학원을 땡겼었는데 아름학원이라고. 전체 다 과목 예전에 다녔는데 이제 못 다

녀요. 전 과목에 25만원인데 20만원에 해주더라고. 근데 거기를 몇달 다니다가 끊었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또 보조금을 받는다고 한 달에 10만원만 내라고 하더라고. 20만원 냈었는데 그것도 내가 못 보내고 돈이 엄청 쪼달리기 때문에.

Q: 예.. 병원 간병 때문에..

A: 예..벼랑 끝에 와 있는 것 같아요.

Q: 생활이 안되시니까...

A: 이제 용기도 없어지고 힘 들으면 이제 자살해야죠.

Q: 그래도 미래에 대한 꿈.. 소망 같은거 있지 않으세요?

A: 미래 꿈도 없어요. 이제.. 다 아프니까.. 그날 그날 살아가는게 제 꿈이요. 그냥 아프지 않고... 고통만 덜 졌으면...

Q: 두성이 생각하면 좀 힘이 나지 않나요?

A: 힘어요. 그렇지도 않아요. 너무나 힘 들으니깐 제가...

Q: 너무 힘들어서 자식을 생각할 힘도 없고 미래를 볼 어떤...

A: 예. 이사오면서요. 14일 집에가 있어봤당께... 최고 길어야.. 한 열흘 병원에 가 있다가 집에 가면은 한 5일, 7일 지나면 또 반복이요. 고통을 못 이기고.. 또 병원에 오고 혈관을 찾다보니까 혈관도 없고.

Q: 그 상황들이 반복되고...

A: 예..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고..

Q: 거의 그럼 1년째 이렇게 반복된 삶을...

A: 예.. 10달째 이런 거예요. 지금 10월달이니깐.. 1월 한 10일 넘어서부터 제가 이런게...

Q: 그래도 선생님은 착한 아들까지 있으니깐 조금 미래를 생각하면 더 어떤 힘이 나는 미래랄지.. 뭐...

A: 앞으로 아프지만 않으면 되겠지요. 미래의 희망이...

Q: 두성이는 어떻게 컸으면 좋겠어요?

A: 뭐 지금 현재는 잘 크고 있는데 공부를 떠나서 저는 가정교육이 우선 첫째라고 봐요. 윗사람 공경할 줄 알고.. 아무리 공부 잘하고 뭐 한다고 해도 배우기를 잘 배운다고 해도 윗사람한테 공경할 줄 모르면 그건 어디 가서 욕 얻어 먹어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일단 가정교육부터 첫째 잘 배우고 공부를 배우니까...

Q: 그쵸. 그럼 두성이 가정교육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으세요?

A: 아직까지는 그냥 괜찮아요. 남한테 뭐 나쁘다는 소리 안 듣고... 착하다는 소리 듣고.. 그냥 학교에서도 효행상을 올 봄에 받았거든요. 그것을 알고서 중학교서.. 중학교 선생님이 이번에 동복을 맞춰 주더라고요. 한 20만원 들어가는 데 그 동복을 담임선생님이 맞춰 주더라고요.. 내가 너무 감사해서... 그런데서 저는 아.. 아직 사회가 메마르든 안했구나 아직 살 용기는 있구나.. 그런 마음도 들어요.

Q: 병원에 선생님 와 계시면 자주 들러요?

A: 아니요. 우리집 애도 오라고 사정해야 와요. 이제 하도 병원에 반복이 되다 보니까 뭐 그러니라 하고 아빠 병원에 가면 그러니라 하고...인자 인이 배가지고 아예...

Q: 둘 사이에.. 평상시에 대화는 많이 하고 그러세요?

A: 대화 안해요. 우리집에...

Q: 말은 별로 없으시고... 무뚝뚝한 남자 두분이서 사는 거예요?

A: 예. 맞아요. 집에 가면 제가 텔레비도 못봐요. 보고싶은거...

Q: 두성이가 보고 싶은거 봐요?

A: 예.. 만화만 보기 때문에 그리고 저 텔레비 고만 하라고 하면 고만 컴퓨터에가 붙들려 있어요. 계속 싸워야 되요.

Q: 오히려 병원에서 보고싶은거 보시겠어요.

A: 아, 못봐요. 병원에서도 뭐 한 두사람 있는 거 아니잖아요. 특실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또 독점하잖아요. 어려운거예요.

Q: 돌아가면서 보고싶은거 안봐요?

A: 그러지도 못해요. 혼자 있는거 아니잖아요.

Q: 현재 지금 상황에서 건강 안좋은거 말고 가장 어려운건 뭐가요?

A: 어려운 건 없어요. 건강 빼놓고는... 그런대로 잘 살아요.

Q: 건강하기만 하면 좋겠어요.

A: 예.. 그게 제일..

Q: 혹시 만약에 지금 통증이 그런 게 덜하고 가스차거나 이런 게 없으시면 뭐 일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나.

A: 그런건 없어요.

Q: 그냥 이렇게 몸이 이렇게 불편하시니까 수급 받으시면서 이렇게 살고 싶고...

A: 예..예..

Q: 일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A: 몸이 불편하니깐.. 제가 혼자 이기기도 힘들어요. 휠체어를 타고 하루 쭉더락 못 있어요. 길어야 두시간... 침대에 또 누워 있어야 하고 몸이 불편한 게..

Q: 예..

A: 제가 지금 일월달부터 키로수가 많이 빠진거예요.

Q: 네.. 지금 다리랑..

A: 새다리예요. 새다리.. 뼈가 다 늘어날 정도.

Q: 예.. 불편해 보이셔서.. 드시는 것도 잘 못드신다고 하니까..

A: 예...

Q: 건강하면 그래도 일을 뭐 하고 싶은거나 그런건...

A: 아직은 그런거 없어요. 제가 지금 그림을 배우다가 말았거든요.

Q: 아 어떤 그림이요?

A: 유화 그림..

Q: 아.. 유화요?

A: 그리다 말았는데 하도 짜증나니깐 그것도 다 없어버렸시유 장비도... 다 없어버렸시유.. 물감 같은 것도 싹 없애버리고... 짜증나니깐..

Q: 어떤 면에서 짜증이 나셨어요

A: 오히려 저 배우는 사람들에게 유화가 낫겠더라고 산수화보다는... 유화는 대부분 보니까 터치법으로 해서 그림을 형성하더만요. 참.. 집에도 그림을 이렇게 2점을 해서 걸어놨지만 작년에 배우다가 작년.. 2년 전에 허다가 말았거든요.

Q: 유화를 배우게 된 계기는 어떻게 배우시게 된 거예요?

A: 시설에 있을 때 여자 목사님인데 자꾸 배우라고 강제로 하더라구요. 배우기 싫은데.. 아휴 허게 됐는데 가르쳐 주는데 자꾸 옆에서 잔소리만 허고 짜증만 내싸코 침 배우는 사람한테.. 많이 싸웠지 그것때미..

Q: 그래도 작품을 두개 만드셨으면 잘 하실 것 같은데요.

A: 예.. 그냥 어떻게 두개는 맞추기는 맞췄는데 액자를 해서 걸어놨는데 그런대로 뭐 어울리대요.

Q: 아... 보고싶다. 그림 그렸을 때는 그걸로 조금 나중에 뭐.. 발전시켜봐야겠다...

A: 그럴 용기는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취미가 아니기 때문에..

Q: 선생님이 좋아하는 취미는 어떤 거예요?

A: 있었는데 지금은 엄두도 못내고...

Q: 그게 뭐였었는데요?

A: 바닷가에서 조개껍데기 주워다가 내가 만들던게 있었거든요.

Q: 뭘 만들어요?

A: 액자...

Q: 고동.. 하얀색..

A: 아니 그게 여러 가지인데 그게 단 한색으로만 해서 액자도 만들고 91년도에 제가 절에가 조금 있었시유 다리 다쳐가지고 오토바이 사고로.. 절에서 1년 넘게 있다본게 제가 그걸 조금 했거든 서산에서... 그때는 한 10점을 넘게 만들었지요. 10점을 넘게 만들어가지고 남들 다 주고 그냥 팔지는 않고... 그냥 본인 액자값만 들어가더라구 표구값만.. 넘다 좋은 일 시키고... 그뒤로는 그거 허고 싶어도 못하고 뭐 재료를 주서올 수가 있나 누가 뭐 옆에서 보조를 해주는 사람

이 있어야지 그런 것들을..

Q: 되게 예쁠 것 같아요. 고동으로..

A: 예.. 이뻐있시유.. 안면도 가면은 지금도 허는 사람 있시유.

Q: 아.. 그렇구나..

A: 안면도 가보셨나?

Q: 네. 전 2번 가봤어요. 작년에도 가 봤고..

A: 안면도 가면 좋죠. 근데 거기 가면 바닷가 가면 사람들이 바가지를 씌워놔서.. 그게 잘못된 거지... 바가지 바가지... 이 외지 사람이 한번 왔다 가면 두 번 세 번 오게 만들어야 하는데 바가지를 씌우니 사람이 갈 힘이 없어서 그게 잘못된 거야 지역주민들부터 고쳐야돼. 그 마음을.

Q: 가정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두성이는 앞으로 뭐가 되면 좋겠어요?

A: 아 뭐라고 특별하게 있던 안해요. 그냥 윗사람 공경 잘하고 나중에 봐서 이자가 나는 그리유 학교도 인문계를 떠나서 그냥 공고 보내 불라고.. 기술을 배워야 되고 빨리 좀 뛰던 사람들은 다 인문계 보낼려고 하는데.. 저는 그래요 그냥 공고쪽으로 보내서 기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기술이 발달되어야 되거든요.

Q: 공고 가는건 두성이도 받아들이고요?

A: 아직은..

Q: 자세하게 애긴 안해봤구요?

A: 뭐 축구선수 아니면 야구선수 된다고 하는데 뭐 지금부터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안하면 뭐가 돼... 안돼지..

Q: 운동에 관심이 많나 본데요.

A: 축구는 잘해.. 애들은. 근데 키에 비해서 몸이 너무 약해서 탈이지...

Q: 아.. 몸이 많이 약해요?

A: 키가 지금 67이거든요. 67인데 48키로인가... 좀 그렇게 약한편도 아닌데 딱 맞는데.. 몸이.. 키는 68이고... 키로수는 48이고...

Q: 무슨 만화책에 나오는 캐릭터 같겠다.

A: 몰르겠시유. 키가 더 클것 같은데.. 한 80까지는 커야 될텐데.. 중학교 3학년까지는 클테지...

Q: 중학교 1학년에 그 키면 죽죽 크겠어요.

A: 네.

Q: 엄마 손길이 많이 필요할 나이인데 그런 걸 못해줘서 아버지로서 안쓰럽다거나..

A: 안쓰러운데 어쩔수가 없더라구요. 저나 나나 주어진 운명이고 받아들여야 되고...

Q: 선생님 모든 걸 운명으로 이해하고 사시는 것 같은데요.

A: 아마 우리집에 외가집이 예산이거든요. 아마 당진 아니면 예산에 살을꺼요. 5년 전에 ... 전화통화 했었는데 그 뒤로 전화 안하더라고.. 그 뒤로 전화번호도 바꾸더라고... 잘 살고 있어요. 애 엄마는 아마 예산 아니면 당진에 살고 있을거요.

Q: 아이하고 따로 연락하는 건 없으시구요?

A: 엄마 얼굴도 모르는데. 뭐 전혀 모르는데 아예 젓먹이일 때 헤어졌으니.

Q: 혹시 마지막으로 이거 수급받으면서 불편했다고 느꼈던거나 뭐 있으세요?

A: 불편한건 없었어요

Q: 그럼 뭐 좋았던건...

A: 그래도 아직 인정은 메마르지 않았다는거. . . 모든 사람이 다 도와준다고 하고... 나쁜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도 있고.. 좋은 점이 더 많더라고 나쁜점보다... 도

Q: 건의사항이나 뭐 바라시는거 있으세요?

A: 건의사항 뭐 한도 끝도 없지 사람이라는게...

Q: 그래도 가장 우선적인거...

A: 생활비 좀 조금 올려줬으면...

Q: 그 부분은 다들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A: 우리 같은 사람은 돈이 있어야 움직이기 때문에 뭐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고 하는데 돈이 있어야 되요. 돈이 있어야 살아 남지..

Q: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알겠습니다. 또 뭐 더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A: 없습니다.

□ 수급자 16

- 조사지역 : 중소도시
- 가구유형 : 한부모 가구 / 조건제시유예
- 수급유형 : 현재수급
- 수급기간 : 1997년도부터 약 10년 동안 수급
- 응답자 가구사항

가구주와의 관계	연령	성별	직업 및 경제활동	장애여부(등급 및 내용)
본인	50	남	근로능력 없음	
아들	17	남		

※ 응답자 본인을 1번으로 기록할 것

- 주거상태

주거시설(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난방, 수도시설 등)과 주거지환경에 대한 간단한 묘사(교통입지나 직장, 학교와의 거리 등)
<p>효자2동 영구임대아파트. 작년 말 신규 건축한 아파트라 매우 깨끗하고 쾌적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음. 12평 남짓된 아파트로 큰방겸 거실과 부엌으로 연결된 방 1개, 작은방 1개, 목욕탕으로 이루어짐. 방엔 텔레비전과 장롱 1개, 아들이 사용하는 작은 방엔 책상 1개가 있었고 단출한 살림을 갖추고 있음.</p> <p>전주시가 택지개발을 함에 따라 효자지구가 확장되어 전주 시내에서는 많이 떨어진 변두리에 위치하고 있음. 버스 정류장과 아파트와의 거리는 멀지 않으나 버스가 많이 다니지는 않음. 응답자는 주로 자전거로 이동을 하고 있음.</p> <p>또한 아파트가 신규 건축된 터라 주변에 편의시설들이 많이 갖추어져 있지는 않았음. 반면 매우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은 유지하고 있음.</p>

○ 조사평가

조사전반에 대한 느낌 - 조사를 마친 후 조사자가 직접 기록
<p>전반적으로 무리 없이 수행됨. 수급자와 장시간동안 편안하게 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음. 조사자가 여자인 점을 배려하였는지 응답자는 조사가 끝날 때까지 현관문을 열어둔 상태로 조사에 응하였음. 장애(호흡장애, 시각장애)로 인하여 근로는 안하고 있었으나 본인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스스럼 없이 응답해 주었음. 현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살려고 노력하고 있었고, 자신의 어려운 처지로 인해 주변에서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 매우 고마운 입장을 갖고 있었음. 급여에 대하여 적다는 생각이 들지만 과거에 비하면 이나마 오른 것이라며 이도 고마운 일이라 생각하려고 한다 하였음. 현재 운동을 하고 있는 아들이 응답자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며 현재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이겨 나가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 것으로 생각됨.</p> <p>조건제시유예로 현재 근로를 안하는 상태이나 본인이 근로하였던 사실까지 털어놓을 정도로 솔직히 응해 응답 내용의 거짓은 없어 보이며 신뢰할 만한 것으로 평가됨.</p>

Q: 쯤... 그... 정말 뭐가 그렇게.. 사람이 마음이 그렇게 있잖아요 내 이름을 아
니까 한번 이렇게 딱 믿게 될 것 같은...

A: 이름이 아니라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요..

Q: 그래서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이번에 선생님들 만나뵙는다
고 전화를 드리는데, 다들 이제 어디서 왔는지 물어시더라고요. 어떻게 본인
의 정보를 알게 됐냐는데..너무 공감이 가는 거예요 나 같아도 그러겠다.. 날
어떻게 알고.. 저희는 근데 여기 담당하는 공무원들 통해서 하니까 그 분들
이름 알아가지고 얘기 하니까. 또 어떤 분들은 동을 통해서 연락을 하게 해
달라고.. 너무 그런 것들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도 시국이 흉흉하니까. 그래
서 저도 약간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희는 이거 선생
님들 딱 연구목적 외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지나고나면 폐기처분 되니까.
그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요.. 아드님 있다고 한 거예요, 선생님?

A: 아들이예요. 중학교 지금 원래 다니면 고등학교 1학년인데...아무래도 흠애비
자식... 저희 같은 저소득층 애들이 성장할 때 주위에 있더라고요.. 사귀는 과정
에서도 그렇잖아요...초등학교 1학년 때. 1학년 땀가 2학년 때...동네 몹쓸 애들이
좀 학교를 가는 애를 중간에서 인자... 못 가게 해가지고 오락실로 돌아다니게
되가지고...그런데 다녀서 잠깐 학교를... 그 법정 출석일수가 모자랐어요.

Q: 선생님 모르셨나 봐요..

A: 네... 애들이 막 헐박하면서...가면 죽여버린다고. 어린아이가 헐박이 무섭고 그러
니까 저희 집까지 와서.. 애들이 대문 앞에서 까지 와서 데리고 가는데 제가 그
땐 사는 것도 그러고 힘드니까...그땐 정부에서 혜택 같은 것도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아예 저도 방문 앞.. 그 때 또 그 집은 철거가 됐는데... 남에 집서 돈도
안 받고 살고 있었어요. 집 밖에 나가는 것이 두려워가지고요.. 막 두문불출하
고 있었거든요. 애들이 집 앞까지 와서 애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저도 몰랐고... 저희 아이도 애들이 부모님한테 이야기하면 죽여버린다고... 그랬
나...나중에서야 학교에서 전화와가지고... 아... 그런...전화도... 선생님들한테 조

금... 그렇더라구요 조금 일찍 전화도 조금..솔찬히 제 잘못인데..그렇게 많이 결석을 하고 그러면.. 저희 때는 가정방문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가정방문도 잘 안 오고 그러니까.. 그것도 또 있는 집 위주로 다니는 것보니까.. 그런 같더라구요..근데.. 아주 의식 있는 선생님은 안 그러시는데요..지금도 제가 또 4학년 때 저희아이 담임..민혜숙 선생님 못 잊고 있는데요.. 너무 막 잘해주셨어요. 저희 아이한테.. 소외돼 있는 애들인데 선생님이 인제 애들 성향을 파악을 해보니까 애는 좀 가르치면, 기초가 부족해서 그렇지 가르치면 하겠다 해가지고.. 당신이 병가를 내 가지고, 방학 전에 병원에 수술을 하셨나 봐요.. 그리고.. 방학 중에 요양을 허실라고.. 그러면서 저희 아이를 오라 그래가지고.. 저희 아이하고 당신이 담임했던 애들 중에 서너명을 오라고 그랬더라고요.. 집으로.. 그야 부모 모르게.. 간식해주면서.. 그때 거의 10여일? 15일? 보름 정도를 기초만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거 해가지고 학년말 고산가해가지고... 전체 5등을 했거든요..

Q: 기분 되게 좋으셨겠다.

A: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벅찬데.. 선생님 그때 전화하셔가지고. 저희아이가 운동을 워낙 좋아해요. 막 찌르는 걸로..재현이는 좀.. 저희 애 이름이 재현인데..

Q: 이름도 예쁘다

A: 재현이가 밖에서 뛰놀고 그러는 것도 좋은데.. 재현이를 아버님이 조금만.. 붙잡고 공부를 시키죠.. 그러면 좀 하겠는데..근데 개는 붙잡아놓으면 병나는 애예요. 개는 붙잡아놓으면 병나는 애예요. 막 후딱후딱 돌아다녀야져 붙잡아 놓면 잊지를 못하는 성격이에요.. 축구를... 좀 소질이 있는데.. 그때는 없는 집 애들이 운동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있는 집 애들이 돈 되는 운동을 하잖아요.

Q: 맞아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A: 전주에서는 저 삼천초등학교가 전국대회에서 우승도 한 팀이에요. 그 선생님이 애들이 부족하니까... 학교 내에서는 자원이 부족하니까... 전주... 시내

를... 각 스포츠 종목마다 그런갑더만요 돌아 다니다가 저희 아이를 보고는 운동을 좀 시켰으면 어떻겠냐고... 근데 사전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요, 애들이 합숙을 할 때 부모들이 다들 뒷바라지를 한다 그러더라구여.. 어머니들이 사비를 추려 넣으면서까지요.. 근데 제가 듣기론 그전에는 학교마다 애를 들면 전주 초등학교나 진북 초등학교, 학교마다 축구부들이 다 지금도 있긴 있는데요, 한 학교는 특성화를 시켜 가지고, 체육부에서... 여기는 축구 전문.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나 봐요.. 그래서 덕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육상.. 저희 아이는 화산 초등학교 다닐 땐데. 화산초등학교는 허는 운동 같은 건 없었는데.. 그 선생님 와가지고 전화로 인자.. 축구 시켰으면 어떻겠냐고 ..그러는데 .. 제가 사전에 들은 이야기도 했고 해가지고.. 아이고. 안되겠다고.. 저희 아이는 괜히 운동한다고 보내가지고 마음에 상처 입고.. 딴 길로 빠지고 그런 거 보다.. 그냥 제가 그냥 데리고 있겠다고.. 거기서 소외 되가지고 시험도 못 뛰고 애가 또 맨날 벤치만 지키고 있고 그러면 애가 굉장히 상처받을 거 아니예요.. 우연히 육상하는 선생님이 또 저희아이를 봐가지고.. 육상 시켰으면 어떻겠냐.. 지금쯤에야 전국 대회에서 우승도 하고..

Q: 아 그럼 육상해요, 그러면?

A: 네.

Q: 우와.. 운동에 소질이 있나 봐요.. 그럼 지금 중학교 3학년인가요?

A: 네. 나이대로라면 고등학교 1학년인데 유급당해가지고..

Q: 전 운동을 하도 못해서 운동신경 국 끓여먹었냐고 그래서... 운동 잘하는 사람 보면 부러운데요.. 축구도 탐내 하고.. 육상도 그렇게 잘하고. 그러면 정말 운동 신경이 발달했나보다.

A: 야구 선생님도 야구 해보는거 어떻겠냐고...근데 육상도 돈이 들어가더라구요.

Q: 보면 안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는 거 같아요. 박태환 엄마 얘기 하는데 들어보니까 어려운 상황에서도 뭐 전지훈련 가기 전까지 집에서 돈을 다 내야 된대요. 그래서 저도 되게 놀랐거든요 아 진짜.. 원래 그렇구나 뭐든게 다 그런가봐요.

A: 근데 축구같은 애들은 돈이 되잖아요. 애들이요.. 미래가 보장이 되니까.. 박지성은...연 100억이면. 아이고.. 어마어마 하잖아요.

Q: 그러게요.

A: 그 사람들 이야기하는게.. 그 사람들은 대표적인 이야기만 하더라구요. 박지성이나 몇몇 선수들 보라고.. 일년에 몇 십억씩 돈백 억씩 하지 않냐. 이거 조금.. 미래를 위한 투잔데 그렇게 못해주냐.. 그런식으로.. 그런것 보면 저는 이제 저희 애한테 미안하고.. 가슴 아프고...

Q: 재현이가 운동 좋아하나봐요.

A: 예.. 엄청 좋아해요.

Q: 또 자기가 좋아야지 하지 안그러면은.. 시킨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A: 욕상시킬 땐 안한다고 그러고... 반항도 하고 그랬었는데.. 일단 일등을 하니까요..

Q: 자신감도 생기고. .

A: 예.. 성취감도 생기고..

Q: 음... 욕심도

A: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지. 지금도 미미하게 달리 는건 안 좋아하고 허들 하잖아요.

Q: 아...

A: 그런거 때문에 아빠 허들은 할 만한데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5종을 하는데 고등학교 가면 10종을 해야 되니까...

Q: 아... 키도 크겠어요

A: 지금 176인가 7인가 그런데..

Q: 크다 중3인데 부러운데요.

A: 아니 그걸 또.. 우연히...저희가.. 지금은 아파트에 사는데... 그 전에는 살던 데는 환기가 외풍이 심해서 매일 겨울이면... 저희 아들도 겨울 내내 감기를 달고 살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폐가 안 좋아서 그러는데... 저희 아이한테.. 굉장히 미안하면서도 화가 나더라고요, 야이 자식아, 너는 건강한 놈이 왜 이렇게 감기가 걸리냐... 환경을 제가 알면서도요.. 막 그랬었는데.. 최은영 내과 원장선생님이.. 애가.. 재현이도 뭐좀 해먹이라고... 겨울에.. 인자.. 철에 따라 뭔가 해먹여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못 해먹이니까..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재현이가 성장통이 올 때가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무식해가지구 성장통이 뭔지도 몰랐는데, 애가 무릎이 아파갔고.. 막.. 무릎 아파, 무릎 아파 이르는데.. 저희 아이가 워낙 잘 뛰는 앤지 알으니깐요. 이놈의 새끼야, 어떻게 뛰다 넘어졌간디, 다쳐도 또 거시기한테 무릎을 다쳤냐.. 무릎을 다치면 큰일 나는디. 뭐라고 해놓고 저녁에 여기 자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선생님이 성장통이 오면 그릇 수 있다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갈 일 있어서 선생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려봤더니 재현이 성장통 왔다고.. 이만한 것에다 뭘 뽑아주더라고요. 수십 가지 중에서 성장통에 좋은 음식을... 멸치보다는 뱀어포가 좋으니까 뱀어포 해주고.. 시금치 해주고.. 뭐 해주고 뭐 해주고.. 아이고. 감사한테 제가 그걸 해줄 형편이 되어야죠..그래서 제가 교회 집사님한테 가가지고, 집사님, 최은영 내과 원장선생님이 재현이 성장통 왔는데 재현이 이것좀 해주라는데? 그래가지고.. 매일같이 당신의 자식처럼 생각하고.. 여러 가지로 감사하고..

Q: 교회다니시나봐요.

A: 네.

Q: 아까 들어오는데 면류관 딱 보고...저도 교회다니거든요. 어디 교회다니세요?

A: 저는 화산교회 다니고 있어요..

Q: 아 화산교회.. 저 지나가다 봤었는데.. 예전에 전주살 때..

A: 근데 저희 저.. 아..

Q: 화산동. 중화산동에 있는거 아니예요?

A: 화산교회. 위치상으로 보면 그르잖아요, 동네이름을 따서. 원래 이름 갖고 그러잖아요. 예수병원 거기에 길이 뚫렸잖아요

Q: 맞아요 예전부터 다니셨나봐요.

A: 그전에 서울에서 잠깐 다니다가.. 여기 이제. 전주 와가지고.. 전주에는 거의 폐인이 되가지고 와서...에 엄마가... 어떤 경우였냐면... 사우디 가면은 부인이 바람나가지고... 꼭 그런 거기였어요. 애기를 낳아놓고 생각해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재산이라고는 없고. 가진 거라고는 건강 하나있는데... 그때... 제가 아파트 전 아파트에서는 돈내키라는게 있어요. 내가 하는 만큼 돈을 벌거든요.. 일을 하는 만큼 하루에 20만원씩도 벌고...그걸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목수 기술은 좀 있었구요...내 잠깐 고생을 하자. 우리가...내가 한 3~4년만 고생하면 조금만 집이라도 살 수 있고 그러니까... 부지런히만 벌으면 웬만한 아파트 하나 살 수 있겠더라고요.. 내가 일을 하면서 보니까 분양가로 다 낮게. 이를테면 물건 나올 때 공장도 가격 있잖아요.. 원가로 살 수 있는. 분양이 안 되는거... 인자. 미분양 된거.... 일을 하면서 보니까. 살 수 있겠더라고요..

Q: 아 일을 하다 보니까.

A: 네, 그런 건 내가 일을 하면 살 수도 있겠다 그래서 내가 애 엄마한테 그런 이야길 하면서. 아파트는 한 지역에서만 하는게 아니잖아요 지방을 다니다보니까 아무래도 부부관계도 소원해지고 그러고... 그러면서 안식구는 호주머니에 돈은 있고... 항상 부족하다가 한달에 300씩 350씩, 400씩 갖다 주니까 호주머니에 돈도 있고 그러니까 바람나고....제가 또 욕하는 성질이 있어 가지고... 저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죽겠구나 싶으니까 나몰라라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Q: 그게 언제쯤...

A: 애가 3살 때...4살 때...

Q: 아 그렇구나

A: 그래서 술먹고...한참 방황하다가 저희 아이를 저희 큰 누님이 전주에서 데려 와가지고... 어떻게 그런 소식을 알아가지고... 술먹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데려갔더라구요.. 그대로 놔뒀더라면 우리 아이도 굶어 죽었을 거예요 동생이 데리고 와서 좀 키워줬는데... 그때 그 과정에서 도봉산 밑에 살았었던거ですよ.

Q: 아

A: 저도 술을 먹고 이제 도봉산에 가면 텐트를 쳐놓고 집 없는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었어요. 어떻게 보니까 내가 그 사람들이랑 섞여 있더라고요. 저희 동생이 가서 찾으려고 집에 와서 보니까... 사람이 없고, 동네 사람들이 산에가서 보니까 거기 있다고 해서...

Q: 충격 받으셨겠어요

A: 동생이 와서.. 술 먹고 한창 그때 한 3~4개월 방황을 하면서... 그때 동생이 와서.. 날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그 사람들이랑 생활하면서 결핵

도 옳고... 그때 한참... 정신적으로 힘든데다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병원에서 동생도 다게 손대갖고... 시립병원에 데리고 갔었는데... 켈 처음엔 일반병원에 데려갔는데 너무.. 일주일인가 있었는데.. 이틀인가 삼일인가 있었는데... 의료보험도 그때 그런 거 하나도 안됐었어요. 다... 의료보험 내야 되잖아요 한 달에 얼마씩 내야되는데 애엄마가 안 내서... 혜택도 못받고 일반으로 내야 했었어요. 동생이... 자기도 일도 하고 있는데.. 거기다 놔두면 안 되겠으니깐 형 하나 살리겠다고 입원시키고... 동네 동사무소 다니면서 제 처지 얘기 해가지고... 긴급하게... 영세민 혜택... 동생이 의료보험 혜택만 좀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었나봐요. 그게 급하게 동사무소에서 해주셨나봐요.

Q: 아

A: 그래서 바로 된 건 아니었는데 그때... 혜택을 받았죠.

Q: 수급을 받으신 거예요?

A: 그때부터는 아니었는데.

Q: 병원혜택

A: 그때 인자.. 동생이 시립병원에 데려갔는데 서울은 시립병원에 데려갔는데... 결핵환자들... 노숙자들... 연고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입원했더만요. 거기서 한달 10정도 입원해있었어요, 그때 입원해서 결핵 옮았다는 것도 알았고...

Q: 많이 놀라셨겠어요.

A: 저보다도 동생이 충격을 받아서요.

Q: 그쵸

A: 저희 집에 그런 병 있는 사람이 없는데... 전염성이고 그러니까 동생이 충

격 받아가지고.. 저희 아이의 엄마를 욕을 하고... 첫째 병원에 입원하고... 사람 킬로수를 재잖아요 그 때 제가 40키로가 못 나갔어요. 그때부터 막 동생이 막 성질이 나가지고 욕을 하더라고요... 잡으면 죽여버 리고.. 막... 형제간 이렇게 만들어 났으니까.. 그래서.. 동생이 살려주고..해서 내려 왔는데.. 인제.. 그때 몸이 망가져버리니까 회복이 안되더라고요. 누가 옆에서 좋은 음식 같은 걸로 보호를 해주면 모르겠는데. 아무 것도 없이 무일푼이고... 서울에 있을 수도 없더라고요. 몸도 망가지고 일도 못나가겠고... 집이랑 딱 오니까 애도 없으니까. 가장 먼저 생각나는게... 하나님 자녀면 기도를 하고 그래야 하는데.. 목사님 찾아가서 기도라도 해야되는데 술부터 찾게 되더라고요. 동생이 살려주니까.. 그래서 동생이 화가 나가지고.... 내려가자고...전주로 급하게 내려오게 됐죠. 살림도 다 버리고.

Q: 한 9 4년 이쯤 내려 오신 거예요? 언제 내려 오신거예요?

A: 그 정도 되나 보네요.. 난 정확히 기억도 안 나네.. 십몇년 됐으니까 그렇게 되겠는데..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저희 아이도 잘 크고 있고.

Q: 다행이네요

A: 나라에서도... 그 후에 전주에 살면서 그런거... 영세민 혜택 같은거 생각도 못했는데... 어떻게 근근히 먹고 살았었어요. 주위에 손 빌리는 것도 창피하고... 젊은 사람이라서... 그랬는데.... 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이 저 사는 처지가 너무 딱해가지고 얘기해주셔서 동사무소 가서 해줘가지고 그때부터 영세민 혜택을 받게 됐죠.

Q: 언제부터 수급을 받으셨어요?

A: 97년인가 그것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한 10여년... 9 6년인가...정확하게 모르겠어요.

Q: 지금 건강상태는 어떠세요, 선생님..? 폐가 계속. .

A: 폐는 한쪽이 완전히 기능을 못하고 있구요.

Q: 아이구...

A: 병원에서.. 올해는 한번은 호흡이 너무 가빠가지구요.. 가래가 막혀서 숨을 못 쉴 정도로 막아서 제가 급해가지고 병원을 찾아갔죠. 이렇게 되도록 왜 있었냐고.. 시립병원에서처럼 똑같이 말을 하더라구요. 이렇게까지 되는지는 몰랐었다고...숨은...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요. 호흡기 내시경을 한다고... 병원에... 대학병원 같은 데는 보호자가 와서 사인을 해주야 되잖아요. 저는 보호자가 없잖아요 저희 아이 밖에 없는데 저희 아이 학교 운동하고 있는 애가.. 기숙사에 전화해서 선생님한테 자초지종 얘기하고... 애가 와서 대학병원에 와가지고 그때 호흡기.. 기관지 내시경을 해가지고... 그때 기관지 내시경을 하고 나니까.. 숨쉬기가 원활하고 좋더라구요. 제가 폐가 정상적일 때 그렇게 호흡을 편하게 해본지가.. 거의 10년..

Q: 오랜만에.

A: 네... 너무 오랜만에.... 돌아다니면서 일반인들이랑 틀리니까 돌아다닐 때 항상 마스크 쓰고 다니더라고 하더라구요. 저 나름대로 운동 한다고 자전거 타고 교회까지 돌아다는데 저기 한쪽에서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Q: 그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A: 그거 생각 못하고 마스크만 쓰고 다니면 될 줄 알았는데 아이고... 그게 또 잘못되가지고... 호흡기 내시경 하고 다음날 돌아나셨거든요. 그게 잘못 되가지고 병원에가서 디게 혼나고... 다시 내시경 하자고 하니까 돈이 있어야 하죠... 선생님이 알아봐주시더라고요. 그거 뭐 긴급자본이라고 있으니까 하라고... 아유... 그렇게 긴급하지 않으니까 안했는데...이건 제 욕심인데 그래도 내가 돈을 벌 수 있으면 하고 싶으니까... 옆에서 똑딱똑딱 하면 목수일 하면요... 아무리 못해도 돈10만원은 벌 수 있는데... 저사람들 옆에서 보고 있으면요. 돈버는 게 부러워요 건강의 소중함

을 이제 알구요.

Q: 아...

A: 지금 있는 거라도 잘 갖고 있어야 겠다 살고 있고...감사하면서 사는데...
그게요 또 근데 마음으로는 감사를 해야지 그러는데...

Q: 상황이...

A: 물질적으로 쪼들리다보니까... 그렇게 안되더라고요. 아이가 아무래도 합숙소
에 있으니까... 보약 같은건 나라에서 안 해주잖아요. 음식도 잘해주긴 잘
해준다는데.. 애들 부모들은 보약도 해주고 그러는데 저는 못해주니까...
마음은 해주고 싶어서 한의원가서 저희 아이가 운동을 하는데 하면 얼
마나 들어가요. 물어 보니까 15만원정도 들어야겠네요... 그거 해주면 제
가 생활이 안 되잖아요.

Q: 그쵸

A: 그냥 오고 그냥 오고 갔다 오면 더 마음만 아파가지고 한의원도 이제 가
지도 않고. 침 같은 것도 맞으러 다니고...디스크지 모르고 허리가 아파가
꼬 갔었거든요.. 그때 무리해가지고 디스크가 있고. 팔꿈치 같은 경우도...
그때 무리한 것이 이제 나타나더라고요.

Q: 이제 증상으로 나타나고. .

A: 애 보기도 미안하고... 아이도 제가 걸모습이 나이가 많이 들어보이잖아
요. 그러니까 지 친구 또래 아빠들이나 학교에서 학부모들 오라 그러면
아이들이 할아버지라고 그러니까 개를 뒤에서 막 패고 그러나 봐요. 우
리 아빠 할아버지 아니라고. 아.... 그게.... 아이한테도 상처가 되고 그러
나 봐요. 학교에서 오라 그러면 전화해가지고 자초지종 이야기하고 안가
고... 전화상담 같은 것만 하고... 저희 아이가 다행히 초등학교 때 그런
일이 한번 있고 나서는 유급 당하고 나서는 어린나이에 일찍....

Q: 철이 들었어요

A: 네 철이 들어서 그런지...초등학교 다닐 때 모범 어린이 상도 받아오고..

Q: 뿌듯하셨겠어요

A: 그거 받고 제가 어떻게 막...울고 그랬는데.. 그때 또 선생님이 가르쳐 주셔서 갖고 학력우수상도 타고...그래서 너무 좋았었는데....

Q: 상장 이거 붙여놔야 하는거 아니에요? 근데 운동 그림을 붙여놓으셨네...

A: 제가 혈압이 높다 보니까요.. 혈압 높은 사람들은 아침에 찬바람 조심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Q: 그쵸 그쵸..

A: 저렇게 하면은 예방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잊어버릴까봐 저렇게 써놓고.. 나가기 전에 기지개 한번 쭉 피고 나가면 예방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혈관이 확장되가지고..

Q: 진짜 건강하셔야겠네요, 선생님.. 제가 볼 때 아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건강 챙기고.. 다 컸는데요 이제 진짜?

A: 제가 잘 못 해 주는 게 많아가지고...

Q: 기특하다... 그래도 선생님 계셔서 그걸로도 힘이 될 거예요.

A: 제가 부모로서 참 나도.. 다른 부모들이 들으면 에라 이 염치없는 놈아 그럴 건데.. 제가 아이한테 그랬죠.. 야야, 너 말이야.. 아빠가 없어봐라 너 임마 너 고아여, 그래도 아빠가 병도 갖고 있지마는, 그래도 아빠가 있는거 행복이야 임마. 제 위안을 삼으려고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Q: 그 말이 맞죠.

A: 미안하긴 한데요...그런 이야기 하면서 스스로 한번 웃고...

Q: 재현이가 있어서 선생님도 힘이 되고... 재현이도 선생님이로 인해 힘이 되고 서로...누나가 이런 분은 도와주지 않으세요?

A: 누님이나 동생도 사는 형편이 그러니까요.

Q: 아

A: 누나도 매형이 바람피고 누나한테 자식들 다 놔두고 가가지고... 누나도 고생하면서 살고 있는데.. 제가 가서 또 손 내밀기도 그렇잖아요. 누나가 오면 또 형제간 이렇게 사는거 보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차라리 오지 말라고. . 누나 왔다가고나면 며칠간 더 마음이 아프니까... 도움받는 것도 좋지만.. 그렇잖아.. 아유 오지마라.. 내가 더 나중에 내가 제일로 잘됐을 때 재현이 잘 됐을 때 연락을 하던지 좋은 소식만 전할려니까 그렇지 못하면 나 죽었다고 부고나 보낼려니까..그때나 오라고.. 그래 버렸지.. 아..왔다가면 마음이 아파가지고 더 죽겠더라고요.. 몇날며칠간 잠도 안오고.. 못사는 것이 형제간들 한테도 피해를 주는 것이구나.. 그래서..형제간들도 못오게 하고..

Q: 부모님은...

A: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Q: 아 돌아가셨어요? 부모님은 다 서울에 계셨었어요?

A: 아노. 원래 전주. 남원. 어머니는 남원이 고향이시고....

Q: 그럼 저는 어머님이랑 고향이 같네요.

A: 어머님은 남원분이시고 할아버지가 전주로 이사오시면서 전주에 사셨죠.

Q: 부모님은 어떤 부모님이셨어요. 몇째 아드님이세요?

A: 제가 장남인데. ...

Q: 그럼 큰 사랑 큰 기대 받고 자라셨겠는데요?

A: 그쵸. 저희 어머니가 외가 쪽으로 아들이 없어요. 어머니가 최고 큰 장녀고...

Q: 아

A:이모들도... 저희 누나 다음으로 저 낳으니까 아마 기대가 진짜 컸죠. 외가쪽에서는... 너무 오나오나 하니까 자식 버리더라구요. 너무 오나오나 하니까 진짜 그러더라구요. 의존하게 되구요 자립심 같은거 키워줬더라면... 그때 쫘 그런걸 느꼈다니까요.. 나중에 성장해가면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자립심을 키우고 싶어서 키운게 아니라 환경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버렸구요... 근데 그런 것도 지나고 보면 그때 내가 너무 행복했었구나... 지나고 나니까 행복이었는데 몰랐었고..

Q: 부모님하고 같이 사실때는 형편이 넉넉하셨어요?

A: 넉넉한 형편은 않았어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님이 무주... 아주 산골짜기예요. 경상도하고 전라북도하고 경계더라구요.. 산속으로 속으로 아이구... 그 전에... 아버지 따라 고향에 가면 새벽에 출발하면 저녁에 늦게 떨어지는 그런 곳이었어요.. 캄캄해가지고..그런 아주 산골이었는데... 나름대로 자수성가하시고... 젊으셔가지고 당신 집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때는 무지해가지고요... 일본사람이 지었던 건물이었나봐요. 한집에 요 마룻을 사이로 이쪽으로 사는 몇 집이 틀리고 요 몇집이 틀리고 분할 등기를 안해 놔가지고요. 그냥 이사람들이 동에... 시청에 올라가는 서류에는 신청이 안 올라가고 그냥 사는 사람들끼리 계약을 했나 봐요. 나중에야 이게 한사람이 다른사람 명인 줄 알았죠. 어머니가 육남매나... 오남매나 키우려니까... 나중에사 보니까 온 집안 덩어리가 한 사람 명의로 되어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없지요...그래서 그때부터 고생이 시작된거죠. 그 집서 나와서 그때부터 셋방 전전하다가...

Q: 어렸을 때 되게 충격이셨겠어요

A: 저보단 부모님이 더 충격이셨겠죠. 어린 자식들 데리고 나와서 셋방살

이를 허셨어야 하니까. .

Q: 집이신줄 알았는데. 집이셨는데.. 어느날 갑자기..

A: 그걸 알려면야.. 지금이야 광주고법..전주에도 있고 그런데.. 그때 광주에 가가 꼬 재판해야 되고 그런다니깐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법에 문의한들이 여섯 사람들이 법에 대해 알겠어요... 지금같으면 사건 브로커같은 그런 사람들이겠죠. 휩쓸려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유아무야 되버려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죠..

Q: 참 속상하셨겠다... 선생님, 그러면 장애등록 하셨어요?

A: 이쪽 눈이요 제가 다쳤거든요 이쪽 눈이 안보여요. 실명이 되가지고... 완산구청에 민혜숙선생님이란 분이 오셔 가지구요. 지금은 동사무소.. 이제 전주에도 구가 나뉘져가지고.. 구청 담당 직원이 오시더만요.. 실태파악 한다고 동직원이 아니라요..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제가 의료 저거를 많이 쓰니까요... 호흡기 쪽으로도 내시경하고 나서야 조금... 덜...그래도 많이 다니는데요 그때보다는 조금 덜 다니는데... 맨날 병원... 그제 저 같은 사람이 의료보험의 적자 원인이 되는 한사람이요.. 원인제공에 한사람인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A병원에 가서 약을 먹으면 한번 먹으면 낫는 거 같아요. 근데 두 번째 먹으면 약간 완화된 상황에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상태가요... 보통 가면 삼일치 지어주는데... 3일치 먹어도 안 나오니까. 그럼 B병원에 가고... 여기서 똑같아요. 이게 이제 약도 내성이 생기는지.. 이리기도... 또 안되고 그러니까.. 의료쇼핑을 다녀가지고... 민혜숙 선생님이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와서 얘기해주는데 600일씩 썼대요. 아휴...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 극빈층에서 몇 사람 안되는데요 그중에 한사람이라... 것두 미안해서... 아이고 이것도 조심해서 다녀야지... 지금은 지정병원 다녀야 되더라구요. 지정병원 해 놓으니까... 첫째 나도 귀찮아서 못가겠더라구요. 근데 또 진료의뢰서 받아서 가지고 가야 되니까요...그게 또 선생님한테 가서 지정을 해놓고 나니까... 최은영 내과 당신이 관련한 업무는 내과적

인 병으로 가야되는데 허리가 아프니까 디스크 전문병원으로 가야될까 아니에요. 외과는 디스크 병원으로 가려면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이러저러한테 가야되는데... 소견서 좀 써줘야 된다고 말하고... 어떡해요 선생님이 써주셔야죠 그 선생님한테 미안해 죽겠네요. 도움도 안되고 귀찮게만 해서 눈 같은데도 조금씩 아프데 일부러 안가고... 계속 눈곱만 끼니까 답답하니까... 막 이려고만 있는데. 근데 어쩔수가 없어요

Q: 그쵸

A: 그걸 누구 탓을 해요 제가 못한 탓인데.

Q: 기초생활수급 받으시는건. 어떻게 누가 알려주셨어요?

A: 그건 병원에서... 뭐냐...완산동 살때요... 그런 거 모르고... 저희가 먹을 것이 싹 먹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이가 아빠 막 밥달라고 하는 걸 교회 집사님이 들으셨어요 아이랑 제가 3일동안 아무것도 못먹고 있었어요. 물만 먹고. 그때가 겨울...이때 보다는 더 지난 것 같은데.. 밭에 배추같은거 싹 들어갔을 때니까.... 아빠가서 도둑질을 해보래. 도둑질을 하느니 굶어 죽어야 된다. 아빠가 무능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도둑질 못하니까 굶어 죽어야 된다... 애가 배고프다고 하는데.. 애는 유치원 다닐 나이 됐는데. 유치원 다니지도 못하고... 밥 달라고 밥 달라고 그러니까.. 그걸 교회사람이 지나가다 들었나봐요. 요새 세상도 밥 굶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 주일날 그때 저는 교회를 안다니고 집에만 있을 땐데... 아니 그냥 두문불출했었어요. 일절 밖에 안나갔으니까요... 마당이라고 조그맣게 두어평 있었는데 거기에 화장실 있으니까 방에서 화장실만 왔다갔다 하고...주일날 오후에 어떤 분이 막 문을 두드리시면서 찾아온 거예요. 교회에서 식사하고 남은 밥하고 반찬 가져오셨어요.

Q: 아

A: 먹던 거 배식하고 남은 거라 깨끗한거니까... 우리도 먹는다고... 남은 반찬

하고 먹으라고 가져 왔다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저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때 그걸 몽텅 갖다주니까 1주일이 생활이 되더라구요. 그건 잊지 않고 계속 갖다주신 거예요. 당신이 관리집사로 계시니까 저희 처지 알아서 당신들 하는데 좀 더해서 반찬 갖다 주시고... 그리고 교회에도 이야기 했나봐요.. 쌀도 20kg 갖다 주고... 먹는 건 좋은데 죄스럽고... 그래 갖고 그때 갖다주시면서 교회 출석해보는 게 어땠겠냐고.. 다시 인제... 하나님의 품에 찾아가게 됐죠.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이 동사무소에 가서 저희 처지를 얘기했어요.

Q: 아

A: 그 때 저희가 살고 있던 게 길을 하나 두고 큰 대로는 아니고 소문데요. 동네 길인데요. 이 길 밑으로는 중화산동이고.... 이 길 밑으로는 교회가 있구요 이 밑으로는 중화산동이에요. 집사님하고 사는 동네랑은 상관이 없잖아요 집사님 집은 완산동이니까. 집사님은 여기서 완산동인지 알고 완산동 동사무소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와서 보니까 중화산동이니까... 근데 그 직원이 감사하게도 자기 동이 아니잖아요.. 저를 이제 살려 주실려고.. 주소를 읊기라고.. 그렇지 않으면 중화산동 가서 사정을 얘기를 해라. 근데 당신이 생각할 때 내가 직접 가서 얘기를 해도 이양반이 안 오면 혜택을 받기 힘들잖아요. 근데 당신이 보니까... 진짜 그렇게 되었으니까... 일로 읊기라고 주소를... 그러더라구요.. 그래가지고 혹시 구청같은데서 호구조사 나오잖아요. 집사님이 연락해주면 내가 가는 걸로 하구... 동사무소 엄밀히 따지면 그분도 나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한 사람 살리려구.. 그래가지구 동직원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때가 10월 달 쯤인가... 그때쯤 되었거든요.. 지금 자기 동사무소에 영세민들... 수급자 혜택이 되 있는 사람들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으니까 그건 안 되고 그 외에 들어오는 것이 있으면 도와주겠다고... 그래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연 말썸 되고 그러면 불우이웃돕기 성금 같은거 들어오잖아요... 하니까 10만원도 주시고 쌀도 주시고... 해 바뀌면서 영세민으로 됐죠... 사는 건 중

화산동에 살고 혜택은 완산동에서 해주시고... 아.. 그때 너무 감사해가지고...

Q: 아

A: 제가 생각했던게 관공서에선 문이 높고 불친절하다고 하는데...그런게 제가 받아보니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지도 않는데... 저도 조금 벽을 높이 생각을 했었는데...그분들이 직접 와가지고 제 실정을 보시고 혜택을 주시니까 제가 혜택을 받고 그러니까 더 그렇겠지만은...나쁘진 않은데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처럼요...오히려 제가 그런 혜택을 받으면서 군 중심리에 의해서 그 사람들 쫓아서 공무원들 그렇지 뭐 그럴 사람이었는데...

Q: 흔치 않은 일이니까

A: 혜택을 받으니까... 이분한테는 알려지면 자기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상황인데. 그렇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고마운 일이... 막 공무원들이 어찌고 저찌고... 그러면 아 그렇지만도 않아 그렇게 나오고...

Q: 그럼 일은 계속 안하시는거예요?

A: 제 나름대로 저도 일을 계속 나가긴 하는데요. 일단은 제가 체력적으로 딸리니까. 그 사람들 따라가질 못하니까요... 눈치가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사람들이 당신 안 되니까 나가라 하기 전에 나가라고 하기 전에 제가 나와 버렸죠. 창피하니까요 성질나서 에이 욱하는 김에 술이나 먹자 그럴까봐... 미안해서 일 못하겠다고 그러고... 그 사람들도 제가 일을 몇일씩 오랫동안 한건 아닌데요... 한 2~3일씩 하면서 놓고 보니까 안되겠다 싶었는데.. 내가 먼저 이야기 하니까 그 사람들도 얼씨구나 좋다...

Q: 급여는 얼마나 받으세요?

A: 지금.. 많이 주시던데 70... 68만원인가...

Q: 그러시거나 그걸로 한달 생활하시고 별도로 일하시지는 않으시고 선생님은 계속 기초생활 전부터 수급을 하셔서 자활이나 이런 사업에는 참여 안 하셨을것 같은데?

A: 네 그런덴 못나가고 그땐 진짜 호흡을 제가 계단을 정상 보행으로 올라가면 헉헉 그랬으니까 지금은 조금 트여서 괜찮은데.. 그때는 여기서 막 가래가 가르륵 가르르륵 그랬다니까요..

Q: 통증도 있으셨겠어요.

A: 네 가슴이 옥죄가지고요. 정상적으로 숨을 쉬면요 호흡기가 이만하다면요, 제가 느끼기는 이만했었어요.. 그리니까 이게 한번 숨이 들어가려면요.. 막 쉼.. 소리가 나고요.. 이게 한번에 들어가야 되는데 제 용량이 못 들어가니까 이놈이 허구나면 머리로 멍하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활동도 허지도 못하고...

Q: 그러셨구나

A: 그래서 내시경 도저히.. 그땐 정말 죽겠더라구요 어렵게 어렵게 해가지고.... 돈 많이 들어가는데... 돈 60여만원 들여가지고...저희 아이 때문에 딴 데로 좀 옮겨볼까 아이 미래를 생각해가지구요 그러고... 1년 넘게 모은 돈이 60여만원 됐었어요. 2년 가까이... 모은 돈이... 근데 안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모아도 돈100만원도 안되는데.... 그때 집이 헐리고 나갈 때 100만원짜리 보증금도 교회에서 해준거거든요. 월세 12만원은 생활 수급자 받는 거에서 나가고... 그때도 한달에 20여만원가지고 생활했었는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50만원되는 호흡기 내시경을 어떻게. 그렇게 고통스럽게 어떻게 사실려고 그러냐고 친척분들 없냐고... 이럴 때 아쉬운 소리 한번 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저희 식구들 형편 다 알고.... 내가 죽게 생겼다 그러면 쪼들린다고 못해줄 형편을 아니에요 근데 자식들 셋 데리고 사는데 쪼 그렇잖아요. 그 돈을 모아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걸 했는데 조심해라... 다른 사람보다 더 조심하라고 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호흡하기가 너무 편하더라고요. 정상인들보다...

더 한쪽 폐로만 먼지가 들어가니까... 공사하면서 차들이 지나가니까 먼지가 뿌옇더라고요. 괜찮겠지.. 마스크 쓰고 다니면... 했는데 그래서 더 나빠져서... 지금도 새벽에는 호흡기 해야되구요. 흡입을 안하면 가래가 막혀서 호흡이 안되니까...

Q: 눈에도 다 들어가잖아요.. 너무 속상하시겠다..

A: 건강할 때가 진짜 그립더라고요. 그래도 어른들 말씀 들어보면 그래도 지금은 나라에서 혜택 잘 주는편이여... 그러더라고요 그 전에는 어떤 혜택을 줬는지 안 받아서 모르니까.

Q: 97년에 생활보호대상자였고, 2000년에 기초생활수급자로 바뀐 거잖아요.. 기초생활 수급을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판정하잖아요.

A: 그게 뭐예요? 아 진단서 떼어 오라구요?

Q: 네...

A: 병원에 가서 진단서 같은거 띠고..

Q: 분기별로 진단서를 떼시는거예요?

A: 원래 장애가 있어가지고 동에서 아니께... 진단서 있으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호흡기.. 폐가 완전히 망가진 것은 그래도 1년에 한번씩 떼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Q: 아 1년에 한번씩 제출하시고 일은 별도로 안하시고. . 동에서 기초수급대상자 선정된다고 절차 이런거 설명할 때 어렵거가 그러진 않으셨어요? 쉽게 선생님 편에서 잘 설명해 주셨어요?

A: 네

Q: 동하고 관계가 좋은가요?

A: 제가 동사무소에 갈 일도 없구요.

Q: 효자동쪽으로 가시죠?

A: 효자동도 많이 커져서. 3동도 있고 저 같으면 효자4동인가 될 거예요.

Q: 아 효자4동.

A: 아파트가 느닷없이 갑자기 많이 생겨서요.

Q: 효자동이 갑자기 커진 것 같아요.

A: 여기가 중심시가지가 되 버렸죠 도청도 와버렸고...

Q: 아 도청이 이쪽으로 왔어요?

A: 전라북도 얘기할 때 효자동시대라고 하더라구요.

Q: 제가 고등학교 전주에서 다닐 때보다 엄청 커지구요. 길을 잘 몰라서 택시를 타고 왔는데 아저씨가.. 너무 깊숙하게 오는 거예요 이 아저씨가 제대로 가는 게 맞나.. 잘 쳐다보니까 휴먼시아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아 효자동이 정말 커졌구나...

A: 정말 커졌죠.

Q: 옛날엔 삼천동 옆에 효자동이라고 하잖아요.

A: 건너편이 삼천동이잖아요

Q: 비교가 안되는거 같아요 삼천동...

A: 조그만 야산 다 밀어가지고 아파트 만들었잖아요.

Q: 여기는 작년에 이사오셨다고.

A: 네.. 작년..

Q: 그전에는 그럼 어디서..

A: 그전에는 일반 주택에 있었죠.

Q: 여기에 오시니까 좋으시겠어요?

A: 좋죠. 일단 주거환경이 더할나위 없이 좋은데. 근데 아파트 생활은.

Q: 답답해서요 ?

A: 여기는 별도로 들어가는 돈이 들어가더라구요 일반주택이랑은 틀리게요. 이룰테면 유리 닦는 것도 그렇고...

Q: 아

A: 우리가 엄청 많으니까. 조금씩 일반 주택사는 거랑도 차이가 있더라구요.

Q: 집이 엄청 깔끔하세요.

A: 아니에요.

Q: 머리카락 하나 없으세요.

A: 깔끔한거 아니에요. 혼자 사니까 어지를 것이 없으니까.

Q: 저는 언니랑 둘이 사는데 저희 언니가 제 취미를 알려줬어요. 넌 어지르는게 취미구나.제 생각엔 안 어지르는거 같은데... 재현이도 여기로 이사 와서 좋아할거 같아요 아버지도 안정된 곳에 있고..

A: 좋아했는데. 내방 있구나 하고 좋아했는데... 방을 어떻게 줘요 책상도 주고 컴퓨터도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건 일질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걸 어떻게 줘요. 아이들 친구가 올 때 가장 미안해요... 문화적인 혜택이라고는 TV밖에 없잖아요. 요즘 애들은 컴퓨터가 없으면 안되잖아요. 그런 것이 없으니까...

아이가 사교성이 많아가지고요. 시험 때마다 시험 나가면 애들 사귀고...여자애들만 사겨가지고...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해서 무섭다니까요. 남의 집 귀한 딸이 멀리까지 오면... 엄마 몰래...부모님한테는 친구 집에 잔다고 그러고 여기로 내려오는 거예요.

Q: 아

A: 부모님한테 전주 간다고 말하고 왔냐고 물어보니까 말을 못해요. 정확히 이야기 해봐 그러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나라도 너희들이 온다면 보낸다고... 부모한테 바른 말을 하고 내려와야 되는데..애들은... 불안하고...

Q: 재현이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A: 기숙생활 해요.

Q: 어디 학교 다니세요?

A: 전라중학교 마당 한 칸예요.

Q: 아 전라중학교... 전라중 다니는구나.

A: 아노 학교는 신일중학교 다녀요.

Q: 아 신일중다니요? 아

A: 네 신일중학교가 육상 전주시 특성화 학교더만요. 특별학교라서 거기 다니는데... 전주시 애들은 거기 체육선생님이 육상 감독해요. 아주 잘 지어봤더라고요..

Q: 일주일에 한번 오는거예요?

A: 일주일에 한번 오는데 이번 주는 도민체육대회하면 애네들이 거기 행사 도우미도 하나 봐요. 그래서 이번주에는 아마 못올 거 같다고... 곧 방학하면 방학 합숙하고...

Q: 아... 그렇구나 고등학교는.

A: 체고 가요.

Q: 체고 보낼 계획이세요?

A: 계획이 아니라 여기는 체고 가게 되 있더라구요.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 있더라구요

Q: 체고가 있어요?

A: 전주에 저기저기...송광사 옆에다가요. 작년부턴가 1~2년전 부턴가... 거기... 거기서 애들..

Q: 잘 커서 올림픽 꿈나무 되면 좋겠어요

A: 제 소망이 그렇구요. 그래가지고 잘해야 되는데...제가 그런 사랑을 받은 만큼,,아이한테 받은 만큼 너를 딱 보고 키워서 갚겠구나 해서 준거니까 많이 키워라키워라 하는데...작년 아니 올해 소년체전 나가기 일주일 전에 부상당해버렸어요.

Q: 어머

A: 그래가지고 체전에는 못나갔는데...

Q: 너무 속상했겠다.

A: 저도 속상했지만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속상해서... 그 사람들한테 1년 농산데...한 놈이 잘하면 고과 점수가... 선생님이 그러더라구요 고과점수가 올라가고 상 받으면 특채될 수 있는 기회에... 선생님들이 더 죽을려고 그러죠. 애는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만이지만 당신한테는 매달 딸 확률이 있는 애들이 매년 나오는게 아니니까요 선생님들이 화가나가지구... 뭐 어떡해...

Q: 그랬었구나. 공무원은 진단서 제출할 땐 1년에 한번만 만나고 그러세요? 자주...

A: 제가 아쉬울 때만 만나죠.

Q: 주로 어떨 때?

A: 너무 친절하셔가지고요..

Q: 김○○ 선생님이세요?

A: 아뇨. 구청에서 저를 방문해주는 선생님은 민○○ 선생님이라고.

Q: 아직도 그분...

A: 너무 좋으시고 친절하시니까... 선생님한테도 그러는데 오시면 음료수한잔 대접도 못하니까 미안해죽겠다니까요. 가끔 한번씩 전화로 제가 의료비 쓰고 있는거...

Q: 아 상황파악...

A: 이런거 이렇게 쓰시라고... 또 그분들은 어떤 병원이 좋은 병원인지도 아시잖아요.

Q: 바쁜 와중에도 신경 많이 써주는거다

A: 퇴근 시간 이후에도 7시 이후에도 막...

Q: 별도로 선생님한테 해주시는 그런것도 있구나 몸이 안좋으시니까...

A: 컴퓨터에 진료상황이 올라가니까요. 가끔 한번씩 보시니까요..

Q: 그쵸. 진료상황이 올라가니까

A: 허리가 아프니까 한방병원 가보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진료비가 3000원씩

이에요. 추나요법이라고 사람을 뒤틀고 그러는데 시원하더라고요.

Q: 가보셨어요?

A: 한번 가봤는데 개운하고 시원하긴 한데 좋더라고요. 근데 부담이 되니까... 나라에서 생활보조금 주면... 십 한 오일, 육일정도 되면 떨어져요. 그 돈이.. 의료비로 제가 어떻게 쓸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저희 아이도 제대로 보약도 못해주고.. 글루코사민, 글루코사민...키가 클라면.. 운동을 하려면 키가 커야 되니까 글루코사민을 보조식품으로 해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씀 하더라고요.. 식품으로는 제가 잘 못해주니까. 글루코사민을 먹이는 것도 좋을거라고 하더라고요. 저거 먹이니까 성장통 왔을 때 엄청 크던데요.

Q: 아...

A: 그 해에 11cm가 커버리니까...옷이 다 작아져 버리더라고요. 있는 집 자식들한테는 부모들은 얼마나 좋아요. 아이구 저한테는 다음해 옷이 그 전에 입던 옷들이 하나도 안맞아버리니까... 복숭아뼈 위로 다 올라가버려서 그런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성장통 있을 때 글루코사민 먹이니까 진짜.. 아주 좋던데요.

Q: 동담당선생님보다는 구청 선생님하고 주로...

A: 네... 제가 아쉬울때만 전화하고 그래요. 민혜숙 선생님이 의료복지 담당하시더라고요. 근데 동사무소도 가면요. 사회복지 담당하시는 분이 여러분 계시는데 진짜 친절하시더라고요. 바쁜 와중에도 당신이 모르는거 미흡한 부분 옆 사람한테 물어봐서 알려주고...

Q: 알려주고...

A: 예. 공무원도 고과 그런게 있다 그러더만... 그런거 때문에 그런지 그런거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Q: 사회복지 전공하셔서 좋은 분들이 많아요.

A: 저희 교회에서도 사회복지 공부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해외 유학도 다니고.... 확실히 젊은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야 되더라고요. 젊은 친구가 유럽에 갔다가 온 친구가요. 우리나라 사회복지가 자기도 아직 학생이라 잘은 모르지만 거기서 잠깐 보고 온 것을... 교회에서 저처럼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학교에서 견학 가서 본거랑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다 그러던데요?

Q: 많이 좋아졌죠.

A: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외국 국가들에 비해서는... 오히려 일본같은 데는... 그렇지만 많이 좋아졌다 하는데 그 친구들이 유럽 갔다 와서 얘기한거 보면... 단기유학 한 20일씩 한 달씩 갔다 왔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Q: 유럽은 워낙에 복지의 최고봉이니까... 20일이면 북유럽 쪽으로 순회하는 정도로 갔다왔을 거 같고..우리나라도 예전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구요... 저희가 나온 것도 더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것도 있으니까..예전에는 계속 목수일 하셨던 거예요? 그때 폐가 안 좋은 것도 그때 일로.

A: 첫째는 담배구요.

Q: 산에서 결핵환자하고 살면서..

A: 그때 결핵이... 그때 결핵이 잘 먹어야 되는 병인데...와서 라면이나 삶아 먹고..

Q: 건강관리도 더 하셨어야 됐는데... 진단서는 뭘로 갖다 내시는 거예요? 어떤 병으로.

A: 호흡기장애. 디스크...

Q: 아... 그렇게구나.. 일을 안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A: 10여년 되나 보네요..

Q: 일이.. 선생님 가지신 기술.. 하시면 먼지를 안 마실 수 없으니까... 더더욱 조심스러우시겠어요

A: 그리고 거기가요 워낙 더 그래요. 공사현장이 더 그래요.

Q: 먼지도 많고 밀폐되고.

A: 밀폐보다 먼지가... 작업장 내에서 일어나는 먼지가요. 이런 아파트같은 경우는 거푸집 골조 세우는 게 골조 세울 때 거푸집 세우는 게...아파트는 요새는 철로 돼서 좋은데요.

Q: 네

A: 그 전에 일반 주택은 합판으로 되어 있는게 많거든요.

Q: 아

A: 일반 목수들이 용변보고... 그리고 야적장 보면 아무데다 야적을 시켜놔서 그게 완전 안좋습니다. 그런 것이 작업 현장에서 먼지 일어나고 그러니까 진짜 안 좋죠.

Q: 일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시네요.

A: 마음으로는 이제 나이 50막 넘은 사람인데 일을 하고 싶죠. 근데 가면 피해가 되니까는.

Q: 못하시고... 공무원들은 선생님이 일을 할 수 없겠다 이해할 수 있겠다고 하셨어요?

A: 그때 제 상황이 워낙 안 좋았었으니까요.

Q: 그분이 지지적으로... 계속.

A: 당시 봤을 때도 안되고.. 상황이.

Q: 지금은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관리하시고 신경쓰실 부분이 많으시겠어요. 빨리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건설일 말고 다른 일은 해본적 있으세요?

A: 없어요.

Q: 전혀 없으시고.. 그러면 수급 받으신 다음 일을 해보신적 없으세요?

A: 하루 이틀씩은 몇 번. 그것도 손에 꼽을 정도로는 해봤죠. 근데 일단 나가면 상대방한테 제가 피해를 주니까요. 그게 인제 노동일이라는게..

Q: 호흡이 맞아야죠?

A: 네 저 사람이 필요하면 필요한 거라도 갖다 줘야 하는데...무거운거라도..그리고 건설일이 육체노동이잖아요. 그런 거를 제가 번쩍 들어서 갖다 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요.

Q: 미안해서.

A: 그 사람이 높은데서 하다가 내려와서 가져가야 되고 그런게 안되니까 미안해서 못한다고...내 욕심에는 돈 쓰고 싶은 마음에 나갔다가.

Q: 원래 수급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같은 경우에 일을 하시면.

A: 허면 안되잖아요.

Q: 걸리면 어떻게 하시려구요?

A: 너무..그게..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보름정도 쓰면 돈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일절 못하고 있지만...

Q: 하고 싶은 생각에.

A: 네 그때는. 제 욕심에는 30여만원 갖고 생활해야되니까...아니면 뭐사줘 뭐사조 그러는데 돈도 없고 필요하니까...하루 나가면 옷도 사 입히겠다...그래서 욕심에 나갔는데...오히려 피해만...하루 일당이야 받아오죠. 그 사람들이 주죠. 주는데 근데 미안하니까... 나라에서 보면... 동사무소에서 나가면 혜택 못 받아요. 근데 솔직히 이야기를 했죠. 이런 이야길 내가 숨길 이유도 없구요. 이거 가지고는 생활이 안되는데... 그렇다고 내가 나라에서 집에서 대자로 누워서 살라니까 달라는 건 아니다. 근데 그렇게라도 하루씩이라도 일을 해서 급한 거라도 해야 되는거 아니냐...아이한테 필요한 거라도.. 그렇다고 도둑질 하다고 나라에서 안 잡아갈거 아니고. 당당하게 얘기를 했죠.

Q: 그럼요 선생님... 워낙...

A: 이야기를 그케 하면 당신들도 이해를 하면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Q: 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도가...

A: 네.. 법에 저촉이 되니까 안 된다고 하는데.. 근데 저도 제가 일을 하면 거기서 혜택 받고싶지 않아요. 근데...일을 하면..

Q: 건강 조금만 받쳐 준다면 받을 수 있는 돈도 더 많고 기술이 있으시니까.. 기술도 있으셔서 돈도 더 많이 버실 수 있으실텐데...

A: 왼쪽 디스크거든요.

Q: 저는 오른쪽 디스크인데

A: 이게 추간관 탈출이.. 이렇게 있잖아요.. 신경을 누르고 있잖아요 이게 치료 받고 그러니까 이게 더 심하게 안 눌러지니까 괜찮은데.. 가서 일 한번 하고 오면 반 죽는다니까요. 힘든일 안 해도..

Q: 좀 누워있어야 되고.

A: 지금은 우리 아이가 기숙사 생활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는 나이도 덜먹었

을 땀땀 그러고 오면 기어다녔다니깐요. 하루 일갔다고오면... 저희 아이한테도 그런 모습 보이기도 미안하고..

Q: 아버진데

A: 네 하루 일 갔다고오면.. 파스 사다 붙이는건 그렇다 치지만은 내가 일단 못 움직이니까... 그게 더 미치는 거예요. 내가 과욕으로... 욕심부리면서 하다가 그러면 오히려 더 안 좋겠다 싶어서 아예 났는데 속으론 일 막하고 싶고 그렇죠.

Q: 건강만 되면 일도 하고.

A: 일하면 정신건강이 좋아지니까요. 나도 뭘 할수 있구나. 그러면 성취감도 생기고 만족감도 생기고 그러는데.. 이게 뭐...못하니까.

Q: 건강해지기만 하면 돈 벌고 수급 안받으실 생각이..?

A: 제가 안 받으려고요.. 아파트 관리인 같은 거 별로 안 힘들잖아요. 나이가 안 되더라구요.. 젊어서 안 되더라구요. 외모로는 되는데 실지 나이로는 너무 젊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실제 거기 일하시는 분들 예순 넘으신 분들이잖아요.. 나도 외모로는 되는데...

Q: 선생님 그렇게 나이 안들어보이세요.

A: 그럼 올해 몇이냐고.. 원이라 그러면 젊어서 못혀...나이 드신 분들은 삶의 연륜이 쌓여가지고 무슨 소릴 해도 삭일 수 있는데 그런데 저같은 경우는 여기서 치면 나도 받아칠까 봐요. 그분들은 그런거 경험이 많으니까 관리소장님이 나이가 너무 젊어서 안되겠다고.. 그런 거 하면 한달에 80여만원씩 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안되니까 나름대로 주차관리 하는 것도 해볼라고 조그맣게 박스 하고 그런 거 있는데 그런데도 나이가 60넘으신 그런 분들이라 제 나이 또래에서는 들어가기에 마땅치 않더라고요.

Q: 재현이는 수급 받는거에 대해서 불편해 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사춘기 넘어

갈 애들은 예민할 수도 있는데.

A: 그런 부분이요... 수급자라는 것에 대한 자격지심이라고나 할까요 그런거 내색을 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대화를 하나보면 은연중에 나오잖아요. 그런 것은 지가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지가 받아들여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는데. 필요한 걸 사달라고 일절 안하죠. 뻔히 아니까... 지금 슬리퍼 신고 다니거든요. 근데 개네들이 트랙에서 신는 운동화... 신발 세일 때 가서 사도 10만원 해요. 개네들이 학교에서 나오는 게 한 켄레고 부모가 사줘야 되는게 한켄렌데... 그걸 신고 외부에 돌아다니지 못하니까...운동하는 애들은 메이커 있는 신발 신고 다니잖아요..그걸 못 사주고 일반 그런 걸 사주는데... 지금 저거 캔버스화요. 작년... 재작년에 한번 사줬는데 이 발도.. 사주고 2~3개월 만에 발이 금방 썩 커버리더라구요. 신발이 사주고 안 맞아서 신기는 신는데 안 맞아서 애가 꾸겨 신고 젊은 애들은 많이 신는...

Q: 저런 거 좋아하잖아요.

A: 네 그런 것도 하나 제대로 못 사주고 미안하죠. 지가 그런걸... 아빠가 못 해주는 거 그런 거 받아들이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이 많이 미안하죠.

Q: 지금 그럼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의료비가 제일 많나요? 주로 어떻게.. 재현이 교육?

A: 전부 그게 다 생활비로 들어가는데요. 다 생활비죠. 아파트 같은 경우 한 달에 일반 주택에 비하면 엄청 싸죠. 아파트 임대료가 8만원이거든요. 난방이랑 수도 다 합치니.

Q: 공과금

A: 네 그게 12~3만원... 임대료까지 해서.. 그거 내고. 또 아파트 여기 들어올 때 우리은행에서 900만원 융자금 받은 거 그거 이자하고, 다음달에 원금 상환해야 되는거.. 이게 1년 계약이잖아요 원금 상환해야 되는 거 이게 900만원이 어딴 거... 이게 연기될 때마다 이자가 올라간다면서요. 그것도 걱정이 되요. 최고

싼 거 해서 이자 영점 몇프로라 하던데 900에 3만 6천원인가 8천원인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렇게 되거든요. 그걸 갚으려구요. 그걸 대출하면서 자동적으로 정기적금이 10만원하고 있구요. 나머지로 재현이하고 생활비조차 하나도 못사 입히고 먹고 사는 거에 다 들어가죠. 의료비는...

Q: 이대로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없네요.

A: 미래에 대한 것은 일절 없죠. 지금 우선 사는 것만으로 만족을 해야 되니까.

Q: 그래도 재현이에 대한 희망이 있으셔서.

A: 아 그렇죠. 내가 이게 참.. 부모로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할 이야기는 아닌데요. 저희 아이가 수급자 혜택같은 거 때문에 자격지심이나 그렇지 않은가 물어보셨잖아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니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더 많이 감당하는 걸 하나님께서 연습시키는 거다. 니가 잘 단련을 해서 성공을 해가지고 아빠하고 너가 하나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하면, 너는 나중에 이자를 없어서 더 많이 갚아야 한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죠.

Q: 네

A: 지도 수공을 하는거 같더라고요. 그래도 청소년기라... 저 혼자... 애들하고 통화같은거 할 때 mp3 같은 것도 동영상도 나오는 것도 있다면서요.

Q: 네 있어요.

A: 얘기하고 그러면 애한테 미안하죠. 컴퓨터 하나도 없는데 더 그런 부분들...그전에 완산동 살 때는 동사무소 직원이 중고 컴퓨터를 동사무소에 여러 사람들 상대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런 기회가 한 번씩 있었나봐요. 컴퓨터를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효자동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너무... 지금 효자4동 동사무소가 가건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쓸 여유가 없을 거예요. 효자동은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런 여유가 없을 거예요. 아파트도 대대적으로 들어서버리니까.. 좌우지간 많이 친절해요.. 요새 직원들이 옛날보다...그전에 어땠는지 모

르겠지만 많이 친절해요.

Q: 다행이네요 그렇게 좋은 얘기를 해주셔서.

A: 가식으로 하는게 아니고...

Q: 저는 동하고 상관없어요. 그래도 솔직하게 말씀 해주셔서...재현이 미래를 위해서 가장 해주고 싶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A: 그렇게 여쭙보시니까...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제가 뭘 해줘야 된다는거 보다는요. 지금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해주고 싶고 그러죠. 근데 그게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제 생활이 안 되니까 못해주고.. 단지 사회적으로 반감을 갖는 애들이 많잖아요. 가정형편 때문에 그런 게 혹시 내적으로 생길까봐. 그렇지 않다는거 사회는 나름 열심히 해서 성공을 하면 점차 살기 좋은 세상이고. 제가 이런 혜택을 받기 전보다...어릴 때 꿈이 학교에서 중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적어내잖아요. 제가 어릴 때 꿈이 고아원 원장 했다가 선생님한테 되게 혼났었어요. 넌 이자식이 남들은 대통령이고 그런데 너는 무슨 고아원 원장이냐고. 제가 그땐 나중에 성장해서 생각해보니까 환경의 영향인거 같더라구요. 홀어머니 밑에서 형제간들하고 부대끼며 살면서 그런 거 못느꼈는데... 그런 쪽에 내가 이렇게 많이 마음이 가더라구요. 그런걸로.. 고아원 원장 써냈다가 선생님한테 이상한... 선생님 생각하고 틀리니까.. 뜬금 없이 고아원 원장 써내는 애들은 없었으니까. 당시 생각하실 땐 정신 나간 놈이 있나 그랬나 봐요. 그 때 의식수준 이라면 그랬을거 같아요. 선생님들이요. 지금 같으면 모르겠지만 그랬는데. 그런데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나라에서 혜택을 보게 해주시는지 좌우지간 감사 감사하는데... 감사가 막 완전한 감사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한테는 감사하는데 나라에서도 똑같은 완전한 감사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일단 생활이 쪼달리다보니까 감사가 안돼요. 한편으로 돌아서면서 지금 주는 것으로도 만족해야지 그러는데 사람이 지금 있는 것에 만족을 못 느끼니까요. 너 옛날에 30만원 준걸 생각해 봐라. 지금은 2백데.. 68만원 주니까. 그래도 안 되더라구요 만족이요. 호주머니에 돈이 떨어지면 조금 더 주면 안될

까... 그런 생각도 들구요.

Q: 지금 마지막으로... 혹시 수급 받으시는 거에 대해서 불편한 점이나 한마디 하고 싶으신 거 건의사항 같은 거 있으세요?

A: 건의사항 많죠. 많은데....

Q: 아 뭐가.. 어떤 점에서 가장 필요한 거 이랬으면 좋겠다 하시는거..

A: 아 딱히 꼬집어서 말씀을...

Q: 그냥 생각나시는 거 편안하게 말씀하시면 되요, 선생님..

A: 그렇네요. 혜택의 범위가 넓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구요.

Q: 어떻게요?

A: 첫째는 물질적인 거죠. 오시는 분들한테 그런 말씀드리는데... 그거 가지고 생활하기 힘들죠. 당신들 생활수준하고 차이는 있지만... 그거 갖고 살려면 힘드시겠다.. 그래도 어찌겠어요. 이것도 안 주시면 더 힘든데.. 진짜 그 땐 막다른 골목에 가면 죽어야 되는데요. 도둑질 같은 건 못하겠고.. 딱히.. 다른 거는... 지금에 만족을 하려고 하고 있구요.

Q: 네

A: 첫째는 진짜 공무원들의 의식수준이 변화됐다는 거는 제가 느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보면 뭐 단지 제 생각이고 다른 분들의 생각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만족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 준다는거... 그분들이요.

Q: 네

A: 저같으면 무지랭이들 또 찾아왔네...그런 근시안적인 것으로 볼 텐데 동사무소가면 항시 웃으면서 대해주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얘기를 해도 귀찮아하질 않으

시더라고요. 그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보면 미주알고주알 다 얘기해 버려요. 하다보면 미안해죽겠네 이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저는 마음에 담아둔걸 하니까요.. 얘기를 다해서 저는 시원한데 그분들도 힘드시겠다. 나오면서...일종의 제 카운슬링도 해주시니까요. 그분들이 제 푸념도 들어주고 조금 더 주시면 좋겠네요.. 너스레도 떨고 그러죠.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진짜 감사하게 살고 있어요.

Q: 진짜 선생님 희망도 있고 꿈도 있으니까요.

A: 희망은 나라에서 주니까요 나라에 감사해야 될 부분이니까.

Q: 재현이도 있고.

A: 제가 재현이한테.. 제가 바라는게 그거예요. 제가 감사하는 걸 재현이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죠.

Q: 선생님 어서 빨리 건강해지셨으면 좋겠네요. 바쁘신데 시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수급자 17

- 조사지역 : 중소도시
- 가구유형 : 단독가구
- 수급유형 : 현재수급
- 수급기간 : 2008년 7월부터 약 10개월 정도 수급
- 응답자 가구사항

가구주와의 관계	연령	성별	직업 및 경제활동	장애여부(등급 및 내용)
본인	49	남	유(자활사업/근로유지)	지체장애 6급

※ 응답자 본인을 1번으로 기록할 것

- 주거상태

주거시설(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난방, 수도시설 등)과 주거지환경에 대한 간단한 묘사(교통입지나 직장, 학교와의 거리 등)
<p>일반 주택에 딸려있는 쪽방으로 2평정도 되는 협소한 공간에 기본적인 살림살이(장농, TV)와 취사시설이 함께 되어 있었음. 대상자와 조사자가 앉으니 방이 딱찰 정도로 작았음. 화장실은 외부에 있었음.</p>

○ 조사평가

조사전반에 대한 느낌 - 조사를 마친 후 조사자가 직접 기록

수급기간이 짧은 편이어서 근로의욕이나 수급탈피의지가 높은 편이었으며, 수급 받는 것에 대한 약간의 수치심을 느끼고 있었음. 건강상 어려움(오십견으로 인한 어깨 통증)만 어느 정도 해소되면 자활사업이 아닌 노동시장에 취업하고 싶은 의지를 보임. 근로나 소득과 관련해서 비공식 근로나 추가소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으며, 전반적으로 질문에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하였음.

A: 한 3개월 됐어요.

Q: 3개월이요? 그 전에는 판 데 사셨고요?

A: 수원에 있었어.

Q: 아, 원래 고향은 안동이신데...

A: 아니, 대구입니다.

Q: 아, 대구이신데 안동으로 오신 거예요?

A: 아무도 모르는 데로. 다 털어먹고, 마누라하고 이제 이혼하고 하던 조폭으로 이제 밀어 갖고.

Q: 그럼 안동에 연고가 없으신 상태이고요?

A: 일부러 내가 아무도 모르는 데로 왔어요.

Q: 음, 그렇습니까? 그럼 동회에서는 뭐 많은 도움을 줘 받고 계세요?

A: 그럼, 수급이지.

Q: 수급 받고 계시고? 여기 오셔가지고 수급 신청하신 겁니까?

A: 예, 나 몰랐는데, 몰랐는데 통장이 이야기 해줘가지고. 일을 못 하니까. 가 가지고 함 해봐라 하니까, 그래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7월 2일부터 내가 기초 수급 돼서.

Q: 올해 7월이요? 3개월 정도. 얼마 안 된 거네요.

A: 내가 6월 12일 날 안동에 이사 왔으니까.

Q: 그 전에 혹시 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아셨습니까?

A: 나는 몰랐지.

Q: 아, 그 전에는 전혀 모르시다가 여기 와서 이제 일을 못 하시니까 통장님께서 한번 해봐라 해서.

A: 근데 이게, 나는 이걸 알았으면 수원에서 내가, 수원에서 이걸 할 수 있었을 건데. 난 이걸 몰랐다니 까는.

Q: 수원에 어디 계셨습니까, 그럼? 저도 얼마 전에 수원 살다가.

A: 고색동.

Q: 고색동이요? 전 정자동 살았거든요. 살다가 지금 탄 데로 갔는데.

A: 응.

Q: 주로 수원에서 활동을, 일도 수원에서 하시고 다?

A: 수원에서 한 10년 살았어요.

Q: 오래 사셨네요.

A: IMF 터지고 갔으니까.

Q: 수원으로요? 대구에 있다가 아예 수원으로?

A: 대구에서 그 때 다 털어먹고, 친구하고 같이 부도나고 수원으로 거의 도망가다 시피 내려갔지.

Q: 그럼 수원에서는 무슨, 주로 하신 일이?

A: 수원에서 이거저거 많이 했어요.

Q: 그럼 대구에서는 사업하시다가?

A: 대구에서는 좀 크게 했는데. 이제 철공 쪽으로... 내 친구하고 나하고 근 한 10억 들어먹었어요.

Q: 그럼 그 때 그 신용불량 된 겁니까?

A: 아니지요. 그 때는 우에우에(어떻게 어떻게) 어예해서 못 했는데... 내 친구는 파산신고 해뿌고... 나는 살아남고... 우리 둘 다 돌아가지도 못해버리고... 이거는 2005년도 수원에서도요.

Q: 일단 수원에서 좀 일을 하셨는데. 또...

A: 사다가. 도구를... 그럼 그 때 신용불량 됐고., 됐는데 누가... 저걸 하라고 하더라고...

Q: 개인파산 신청?

A: 신용회복... 그 쪽에서 하는... 그걸 가르쳐 줘가지고 8년 동안 붓는 걸로.

Q: 지금 하고 계신 상태예요?

A: 근데 그것도 지금, 저는 좀 이걸 하면서 일을 하는 날, 일을 하는 조건으로 수급비를 주는데. 근데 난 일을 갖다가 팔을 못 쓰니까. 그래도 내가 산을 내가 계속 다녔었거든. 나는 걷는 건 이런 건 자신 있는데. 산불 같은 건, 이런 거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잘 시내에서는 그런 게 없대요.

Q: 여기 안동은?

A: 무슨 없다고 하대요. 자기들은 그런...

Q: 지역마다 좀 다르니까.

A: 없어가지고. 동사무소 거기서 아침에 뭐 청소하고...

Q: 벽지 떼고?

A: 아니, 그런 건 안 하고. 그냥 청소하고 잡초 이런 거 뽑고, 꽃 같은 거 좀 심고. 근데 이것도 없어져버렸어. 원래 10월 달까지인데 예산이 없다고 9월 달로 끝났어. 근데 이게 일을 해도 한 10만원, 10만 원 만치도 안 나와요.

Q: 한 달에요?

A: 한 달에 10만원 밖에 안 나와요.

Q: 그게 뭐 매일 하지는 않을 거고?

A: 일주일에 4일, 무조건 4일. 비오면 또 금요일에서 목요일까지.

Q: 그래가지고 한 달에 10만원?

A: 아니. 일하면 그냥 기초 수급을 받는 거에 한 10만 원 정도가 더 나오고. 그래서 한 41~2만원 되죠. 나는 이거 장애 수당하는 이것도 몰랐어요. 여기 오니까 장애수당 3만원 주대요.

Q: 아, 지금 장애 등록 되셨죠? 몇 급이세요?

A: 난 6급.

Q: 6급이라 3만원 받으시고. 지체, 다리가...팔이 불편하시다고? 일하다 다치신 거군요.

A: 2001년도에 나는 첨에 이거 정부에서... 밤샘 공장에서 내가 그 때 책임자로 있었기 때문에, 일당이 굉장히 썩어요. 근데 내가 돈은 그 때 포상금을 한 2,600인가 그래 받았어요.

Q: 일시불로 받으신 건가요, 산재?

A: 네, 그래 받았는데. 난 그 때 정부에 돈이 넘쳐나는 줄 알았어. 나는 괜찮은 줄 알았거든요. 그래 주니까 잘 쓸게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그 돈을 주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항상 힘이 없어져요.

Q: 점점 더 힘이 없어지셨어요? 아, 이게 그 때는 모르셨는데?

A: 네. 계속 이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래요.

Q: 그럼 계속 치료받으시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A: 근데 이게 가도 나아지는 게 없어요.

Q: 물리치료?

A: 물리치료 받으면, 물리치료도 거의 필요 없고 내가 여기다 손을 이렇게 자꾸 눌러야 돼. 이게 안에 힘줄하고 이게 다 이어지니까, 아무래도 지 힘줄에 이어기 때문에.

Q: 그럼 산재로 되셨으면 매달 이렇게 따로 받으시는 게 없고, 2000만원인가 받고, 일시불로 끝내신 겁니까?

A: 그게 포상금 아닙니까?

Q: 그걸로 끝내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월로 나오는 것들도 있던데. 그런 건 아니셨고요?

A: 우리는 그런 거 모르겠어요. 거기 가니까, 대학, 저 경북대학교 병원 가가지고 대학 교수한테 이거 받고, 그래가지고 장애판정이 28% 나왔어요. 근데 그 때는 못 쓰는데. 근데 일상생활 하면 그 중에 하나는 없는데 노화되니까, 손을 하면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가.

Q: 팔 전체가 아프신 거예요?

A: 그래서 5월 달에 여기가 아파서. 그래가지고.

Q: 혹시 병원은 안 가보셨어요?

A: 지금 우리 이게 병원비가 오십견에 한 번 가면, 5,000원 아니요.

Q: 이게 깎이지, 의료보호인가 그걸로 해서?

A: 그래서 지금은 1,000원이고, 약값은 무조건 500원. 그러니 내가 7월 2일부터 이 의료보험증하고 보호증 나오면서 내가 맨날 잤어요. 석 달을.

Q: 한의원 아니고, 일반?

A: 한의원 가서는 침 맞는 것 밖에 없고, 병원에 갔더니 여기 아가씨들이 잘 해줘 가지고. 그게 순간적으로 힘을 한번 꼭 쓰고 치워버리면 괜찮은데, 노가다 이리 뛰고 저리 계속 그러니까 한두 번 세 번, 한 시간 있다가 또 가니까 그래서 몸이 더 아파다니까.

Q: 그럼 딱히 뭐 일하시는 건 없으시겠네요? 이쪽이 좀 힘드시니까.

A: 그건 내가 또 왼손잡이인데 왼손을 못 쓰니까.

Q: 왼손잡이시구나. 저도 왼손잡이인데.

A: 경북, 지체장애 복지관인가 하는 내가 일이 떨어져가지고, 내가 먹고 살려고 전화를 해보니까. 자기들은 일을 갖다가 회사 이어준대. 회사 이어주면, 보험 나오고 하면 우리는 이거 의료보호 없어서 버리거든.

Q: 그렇죠. 떨어지죠. 봉급 받게 되면 아무래도.

A: 그래서 이 80만원인가, 70만원이 되어버리면 다 없어서 버리는 거야. 없으면 나는 당뇨도 있어가지고.

Q: 병원 자주 가셔야 돼요?

A: 당뇨는 한 달에 한 번씩 꼭 가가지고,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검사받고 하는데. 병원비가 내가 많이 들어가요.

Q: 아, 불편하신 것보다 당뇨 쪽이 더 병원비가 더 들어가신다고요?

A: 그게 더 들어가지. 그거는 한 석 달에 한번 씩 검사를 하니까. 그리고 또 이거는 맨날 가야되는데, 회사 다니면 못 가잖습니까?

Q: 근데 80만원밖에 안 줘니까? 생각보다 작습니다. 장애인이라서...

A: 장애인이라서.

Q: 아, 일반이면 좀 나올 텐데, 장애인이라서.

A: 장애인한테는 적게 주고, 그 대신 그 회사는 나를 현재 보조해주고.

Q: 예를 들어 한 120~30, 100만원 넘어가고... 웬만큼 보장이 됐으면 일을 하실 수도 있었겠네요? 웬만큼, 예를 들어 치료비라도 나오고, 지금 나오는 생계 비보다요, 어느 정도 됐으면, 만약에?

A: 지금 내가 일단 내가 한 달 먹고 살려면, 이것저것 싹 빼면 최소한도는 60만원 은 있어야지. 지금.

Q: 순수 생활비로만? 의료비 이런 거 빼고?

A: 의료비는 얼마 안 들어가지. 지금 1,000원 들어가고, 무조건 병원가면 1,000원이 고 약은 무조건 500원이라고.

Q: 한 60만 원 정도? 지금 급여가 좀 부족하시겠네요?

A: 택도 없지.

Q: 근데 또 일을 하려니 의료급여가 자꾸 떨어지니까 더 어려우시고?

A: 안 되지.

Q: 여기 지금 월세로 사시는 거죠? 이 집은?

A: 네. 월 10만원.

Q: 보증금 없이 10만원? 생활비에서 거의 그렇게 떼시면 또 남는 금액이 얼마 안 되겠네요. 이거하고 저거.

A: 당연히 그건 내가 60만원에서 하는데. 신용 돈하고... 이거 하고,.. 세금 붙은 거 이래 하면 한 60만원 있어야지. 그게 이게 지금까지는 12월 달까지는 내가 좀 가진 게 있어서 이게 좀 버텨왔는데 12월 달부터는 이제 좀... 이만큼 없으니까...

Q: 그러면 뭐 간단한 일이라도 하셔야 되는 건가요?

A: 아니, 저 복지관에 전화하니까 아가씨가, 상담하는 사람이 아유, 아저씨는 참... 우선 한숨부터 나와요.

Q: 방법이 없다고요? 그래요?

A: 집에서 소일을 하면서 진짜 뭐 노인들이 하는 봉투 부치는 이런 일이나 해야 되는데... 그래 한번 오라 하는데... 가도 뭐 자기도 뭐 답이 없다고 하는데. 팔만 안 아프면 내가 뭐라도 하면 되겠지만.

Q: 이 복지관 밖은 없습니까, 따로? 장애인 복지관에서 이렇게 소개 받고? 그 외에 다른데서.

A: 장애인 복지관은요. 내가 이제 전화해서 알아보니까 전부 회사를, 회사 이어주는 거더라고.

Q: 나름대로 선생님께서도 노력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딱 맞는 게 거의 없는 거네요?

A: 그게 없어요. 나는 그니까 산불, 산 같은데 올라가는 게 자신 있으니까.

Q: 걷는 거 잘하셔서.

A: 그런데 좀 하고 싶은데 그런 거는 아예 없고.

Q: 그러면서 그래도 웬만큼 수입이 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얼마큼 소득만 벌 수 있으면 수급 굳이 안 받으셔도.

A: 그렇죠. 난 쪽팔려서 이거 안 할 랍니다.

Q: 다 집에서 뭐라 그러지 않을 텐데요, 그냥. 뭐라고 그러는 사람 없으실 텐데. 본인이 느끼시기에 좀 그냥.

A: 내가 자괴감이 안 듭니까?

Q: 본인 스스로가. 옛날에 비하면.

A: 내가 이런, 아침에 10시 되면 사람 죽 다니는데 이거 뭐 쓰레기 줍고 사람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지, 내가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거 하는 거는.

Q: 선생님, 뭐 대구나 수원 같이 큰 도시에 살다가 안동으로 오시니까 일자리가 더 없지 않아요, 안동이?

A: 일자리가 용역 사원 쓰는 거, 여기도 지금 뭐 죽을 지경이라고.

Q: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도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수급 신청하시는 분들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A: 대도시에서 안 좋은데, 이런데서 더 하지요.

Q: 그렇죠.

A: 그런데다 축제한다고... 상놈 새끼들, 돈 거기다 다 갖다 퍼붓고...

Q: 아, 그래서 예산이 없다고 한 거예요, 시에서? 축제 때문에 시에서 예산이 없다고 그 근로유지를...

A: 모르죠. 그건 뭐... 높은 아(사람)들이...

Q: 수원에 있는 사모님이랑 자제분들이랑은 연락 안하시고요?

A: 아니, 며칠 전에 갔다 왔어요.

Q: 아, 연락을... 그럼 그 쪽에도 생활은 어떻게... 그 쪽도?

A: 아... 그 쪽에는... 저, 외가가 있으니까.

Q: 아, 처가댁 쪽에서 도와주고요?

A: 네.

Q: 선생님은 뭐 그 형제?

A: 내 그전에 다 지금...등져 있어요. 옛날에 내가 너무 많이 해먹어가지고...

Q: 신용회복은 그럼 언제쯤이나 가능하신지? 계속 돈을 언제까지 내시는 건지.

A: 앞으로 5년 정도.

Q: 앞으로 5년 정도. 그럼 다시 회복되는 건가요?

A: 그거 뭐 다 갚으면. 지금 당장 올해 12월 달부터 그.... 그 안에 어떻게....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으니까...

Q: 선생님, 그 수급 신청하실 때, 통장이 알려줘서 신청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때 뭐 진단서 같은 것도 제출하셨어요?

A: 네.

Q: 그 뒤로는 제출하신 적 없으시죠?

A: 없어요.

Q: 아직까지는?

A: 당뇨 합병증, 당뇨로 인한 의사 소견서하고 오십견 진단서.

Q: 신청과정이 어렵지는 않으셨고요?

A: 그럼요. 그냥 가가지고 접수했지.

Q: 무슨 서류 가져 오십쇼 해서 그대로 준비해가지고 갖다 뒀더니, 한 두 주 정도 뒤에 수급되신 거죠? 신청하시고 나서.

A: 그렇지. 그렇죠.

Q: 시에서 이렇게.

A: 6월 10일 날 와서 18일 날 신청하고 7월 2일 날 의료보호증이 나왔어.

Q: 그거 하실 때, 동사무소 말고 시에서도 무슨 전화 받거나, 가서 이렇게 얘기 하신 게 있으신가?

A: 네.

Q: 전화로만?

A: 아니요.

Q: 시에 가서?

A: 네. 거기 가가지고 나는 이 팔하고 내장은 안 좋지만 다리는 튼튼하다. 그래서 저걸 해 달라고 하니깐 그런 게 없대요.

Q: 자활상담 같은 거 하신건가요? 자활지원 상담 같은, 상담?

A: 그렇죠. 거기 상담하는 있어요. 그 사람 만나가지고...

Q: 나이 보시고, 학력 보시고, 건강 이런 거 체크하시면서 이제 선생님은 이렇게 맞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추천해 주신 게 그게...

A: 하는데, 팔이 아파가지고 그게 또 뭐 재활.. 재건사업을 이라고 하면서... 그게 한 달에 한 7~80만원 나오는 게 있대요. 근데 그건 기초수급자가 아니고, 기초수급자는 진짜로 뭐 어디 아파가지고 뭐 못하는 힘들어서 못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고. 근데 기초수급자도 우린 1종이 아니고, 1종은 노인 분들, 완전 거동이 불편한 이런 분들, 노인 분들이 1종이고, 우리는 의료보호, 2종 팀, 2종 팀. 나도 그거 확실하게 잘 모르는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는 걸 들었어요.

Q: 근데 그 공무원이 할 때는 진단서를 예를 들어서 한 몇 주 이상 정도 되고...

A: 오십견은요, 이 오십견은 이 진단이 2주, 한 달 이내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빨라야 6개월, 안 그러면 1년 가요, 1년 간답니다.

Q: 근데 진단서는 오십견으로 진단서를 떼어 가신 거죠?

A: 예. 그 오십견 진단서를 보니까 장기간 요양. 뭐.

Q: 요양 몇 기.

A: 지금 내가 뭐 이제 몇 달 됐는데. 5,6,7,8,9,10. 많이 됐는데. 팔은 처음에는 내가 이거 밖에 안 올라갔는데 지금은 이만이나 올라가요. 이만이나 하면 지금 통증이 오죠.

Q: 선생님 오십견은 나올 수 있는 건가요?

A: 이걸 뭐 순간적으로 나올 수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1년 반이 걸릴 수 있고. 근데 수원에서 내가 처음에 5월 달에 정형외과 박사인가 그 사람이 했던 그 사람이 여기서, 오십견이 내가 당뇨가 와 가지고 당뇨하고 연관이 될 수도 있다고 하고 그러더라고.

Q: 당뇨가 좀 위험하죠? 그런 것들이.

A: 여기 와서는 여기서도 당뇨하고는 아무 상관없다고.

Q: 의사마다 말이 좀 다르네요? 그럼 좀 팔이 좀 더 괜찮아지시면 좀 더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걸로 자활 사업을 옮길 수도 있지 않나요?

A: 이걸 뭐 보장만 된다면.

Q: 보장만 된다면야, 좀 더 돈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옮기실 생각도?

A: 4대 의료보험이 아니고, 의료 보호. 보장만 된다고 하면 난 하지.

Q: 조금 업무 강도가 좀 세어져도 돈을 더 받을 수 있으면?

A: 그렇지. 팔만 괜찮으면 하지. 팔이 이게 괜찮은 게 아니라서. 하고 나면 내가 밤에 잠을 못 자요. 할 때는 사람이 순간적으로 막 집중을 하기 때문에 모르는데, 하고 와보면... 집에 오면, 누우면 가만히 사람이 누워 자면 나도 모르게 악 소리가 난다고.

Q: 동에서 하던 일을 하셨을 때도 이렇게 많이 아프셨어요?

A: 동에서는 그거는 쉬운 일이니까.

Q: 그거는 괜찮으셨고?

A: 그거는 뭐... 이 손 잘 안쓰고 이 손으로 하면 되니깐...

Q: 아, 그렇구나. 다른 소득이 거의 없으신 거예요? 30만 원 정도 나오시면, 장애수당 3만원 플러스?

A: 그거밖에 없어.

Q: 이제 당장, 먹고 사는 문제인데 그렇죠? 지금 이제 가지고 계신 돈 이제 끝 다 쓰고 나면, 겨울 되고 하면 난방비 많이 들 텐데.

A: 지금은 기름.

Q: 연탄 보일러 아니고요?

A: 여기는 연탄보일러 없어요, 이 동네는.

Q: 요즘 비싸서 기름을 연탄보일러로 바꾸더라고요.

A: 시청에 들어갈 때는 상담하는 사람이, 자기는 뭐 아유 연탄 하는 데로 이사 와서 연탄 하는 게 안동 처음 와서, 뭐 모를 때 연탄하는 데로 가면 여기서 시골인데 더 나가야되지 싶은데 그러면 뭐 진짜 말이 내가 먹고 사는, 어디 가서 먹고사노, 일도 못하는데...

Q: 그렇죠. 여기 있어야지 일도 하죠.

A: 몸만 괜찮으면 내가 진짜 어디 가.., 진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하수도 뚜껑이나 훔쳐가지고 팔아가지고 혼자서 먹고 살 수 있는데... 근데 지금은 진짜 그러지도 못 하겠어요.

Q: 근데 지금은 괜찮은 일자리 찾는 게 급선무 같은데요. 물론 이제 건강도.

A: 일자리가 있어야지, 의료보험 되는 한도에서.

Q: 보호만 된다면. 그렇죠?

A: 되고.

Q: 동사무소에서는 상담 별로 안하셨습니까?

A: 동사무소에서는 할 게 없어요. 다 그 시청 가서. 시청에 가도 그렇고, 할 게 없어요, 그 사람들도. 자기들도.

Q: 하기가 여자분들은, 아주머니들은 병원에 간병인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하는데, 남자들이 일자리가 좀 많이 없는데...

A: 심지어 내가 같이 일하고 했던 아줌마들은...

Q: 특별히 하실 게 없으시나요?

A: 그 사람들 할 게 없어요.

Q: 그게 문제라니까요. 남자들이 딱히 할 만하게. 선생님, 대개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복지관에 연락해 보시고 시에다 물어보시고.

A: 나는 내가 혼자 사니까.

Q: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별다른 방법을 못 찾으신 거죠?

A: 나는 지금 이렇게 1년 만 더 고생하면 뭐.. 자리 안 잡겠나..

Q: 그러게요. 좀 더 큰 도시로, 만약 연계가 되니깐 좀 더 큰 도시로 가실 생각을 없으세요? 예를 들어 부산이라던지, 그런데는 일자리가 많아서, 대구나 대전이나 큰 도시.

A: 그런데 두 번 확... 사람을... 미쳐뿌고 나니까...

Q: 아, 새로운 데 간다는 게 또?

A: 겁도 나지만 뭐라 해야 되노... 사람이 이게 보는 기여....

Q: 무섭고, 두렵고?

A: 아니, 무섭고 두려운 게 아니라 싫어요.

Q: 사람이 많은 곳에 가기가 싫으신 건가요? 작은 곳이 더 마음이 편하신 거예요?

A: 여기, 뭐 쪼매해도... 일단 뭐 내, 내 알아볼 사람도 없구요.. 이 짓만 하고... 대가리가 썩었는데... 알아보는 사람도 없고... 내 지금 대구가도... 내 친구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면 야들이... 도와줘요. 도와주긴 도와주는데 내 그게 싫어서 안 가요.

Q: 자립하시려는 의지가 되게 강하신거 같아요, 혼자서.

A: 그렇지도 않아요. 분위기에 따라... 실... 답답하면 나가서 술 먹고 돌아다니고. 그래, 사람들이 술 먹어서 이리 하는 거... 역이나 이런 데 보면 뭐 노숙자들이.. 뭐... 나 처음에 솔직히 그 사람들 같잖다고 봤어요.

Q: 왜 그러나...

A: 저것들이 대가리가 썩었다고 생각해서... 내가 일을 실패해보니까 사람들의 심정을 알겠어. 그게 완전 차이니까, 사람한테 치이고 돈에 치이고, 디게 치여 가지

고... 사람이 함 께 죽어뿌면은... 이래서... 힘이 없잖아요. 아.... 이 사람들이 이래서 그렇구나. 나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요.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안 했는데...

Q: 선생님도 혹시 사업 실패하시고 어쨌든 노숙도 해보시고 그러셨습니까?

A: 아니요.

Q: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고?

A: 때려죽여도 그런 짓은 안해요. 진짜 내가 하기 싫어가지고...

Q: 아, 그래요?

A: 누가 집에서 사채 하는 놈이 찾아와서 나 죽인다 하고 그러면 내가 가서 칼 갖다놓고 죽인다 하고 내가 했었어. 우리는 몸은 이래 저기해도, 내가 근데, 내가 몸이 좋았어요. 몸이 좋았는데 2005년도에 딱 들어 놓고 4개월 동안 술을 먹었는데. 갑자기 몸무게가 8키로가 확 줄어들었어.

Q: 아무것도 안 드시고 술만? 술만 계속...

A: 집이니까, 밥은 조금씩 먹겠지만, 그래도 밥 먹는 것도 아니고, 술만 먹고 그랬는데. 몸무게가 갑자기 8키로가 확 줄었어. 근데 마누라가 그러더라고. 병원 갔는데 당뇨가 있다고. 그 때 확 심해져 버렸어. 그 전까지는 내가 당뇨를 관리를 잘 했는데, 산에 많이 다녀가지고.

Q: 그럼 당뇨, 꽤 오래 되신 거네요?

A: 예. 한 10...당뇨병 있는 게, IMF 터지고 도로 먹으면서 먹었을 때 슬슬 그 때부터 당뇨가 왔어.

Q: IMF가 여러 사람 많이 힘들게 하고...

A: 내 친구 개도 당뇨가 왔어.

Q: 그때요?

A: 응. 내하고 같이 했던... 우리는 원래... 내 친구나 내나... 원래는 현대 조선, 조선소에 있었어요.

Q: 기술이 있으셨네요?

A: 현대, 현대에 있다가 대우에 있다가 내 친구는 외국 갔다 오고 이랬는데... 그것 갖고 대구에서 인제... 폐수... 폐수 공장 쪼맨한거 해가지고... 한 몇 년... 지나 내나 다 젊은 놈들이니까 일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기 잘 났는거지 뭐... 지금은...

Q: 그럼 만약 거기 조선소에서 일하셨으면 경력이 있기 때문에, 울산이나 거제도 이런 쪽도 조금 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시면? 그 기술이 있으시면?

A: 근데 지금은 못 하겠어요.

Q: 이제 좀 힘드셔서요?

A: 10년을, 10년을 손을 놓아 버렸어요.

Q: 다시 또 하기는 힘드시고? 또 이제 기술을 그 사이에 발전 했을 거고?

A: 기술이야, 뭐 맨날 똑같지. 맨날 다 똑같은데... 친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부 상호 받아서.. 쪼맨한 공장 하나... 용접해서 먹고 살고 이카는 거... 가(개)도 지금은 영...

Q: 힘드시고요? 경기가 또 워낙 안 좋으니까...

A: 가(개)는 지금 파산, 파산이 되 가지고.

Q: 개인 파산 신청 하셨어요?

A: 개 때문에, 지하고 나하고 그리 됐으니까.

Q: 친구 분들하고 연락은 잘 하시나 봐요?

A: 아니야.

Q: 그냥 소식만 알고 계신 거예요?

A: 그냥. 내 동생이 한명 있어. 개가 한 번씩 전화하고. 내가 전화 번호 아는 건 딱 두개밖에 없어.

Q: 지금 뭐 특별히 어디 도움 받고 계신 데는 없으신 거죠?

A: 없어.

Q: 복지관에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고?

A: 복지관에서 무슨?

Q: 복지관 서비스...쌀이나 뭐 라면이라도 갖다 주고...

A: 아니야. 쌀은 동사무소에서 두 달에 한번씩 20키로짜리 저 쌀 나왔어. 나라에서 하는 거. 저거 2만원.

Q: 그 급여 깎고? 그렇죠?

A: 응. 급여 2만원 빠지잖아.

Q: 그렇게 해서 받으셨구나. 선생님이 제일 좋으시겠네요. 의료급여가 최고이신 거네요, 선생님한테는. 제일 절실한 거.

A: 나한테는 이게 제일. 제일 이게 생기다보니까.

Q: 계속, 당뇨가 계속 있고, 계속 치료가 필요하신 거기 때문에?

A: 네.

Q: 아까 저희 처음 들어 왔을 때 교회에서 왔냐고 물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A: 아유.

Q: 교회서 한번 씩 옵니까?

A: 아니, 안 하는데. 나는.. 이제는 그러면 내가 지금 대구서 왔는데 이 친구가 이제 포도즙 드시겠습니까? 먹으라고 줬는데.

Q: 아니. (웃음) 선생님 괜찮아요. 저는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기꺼이 응대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들한테 큰 도움인데요. 저희도 작년부터 죽 만나고 많은 사람들 봤는데 가장 좋은 게 의료급여더라고요. 보면 다 그게 제일 크더라고요.

A: 그렇지. 다 그렇지.

Q: 생계는 그냥 주는 대로 30만원이면 30만원, 60만원이면 60만원 그냥 주는 대로 아껴 쓰시고. 제일 중요한 건 의료급여더라고요, 다들.

A: 나는 근데, 솔직히 이런 얘기해도 되나 몰라도, 여자들이 존경스러워요. 내가 여기 반찬 챙겨먹는데. 여자들 반찬 하는 거 보면 나는 진짜 존경스럽다고 생각해.

Q: 지금 밥을 직접 해 드시네요?

A: 그렇죠. 돈 주니까.

Q: 선생님 물가가 더 싸지 않아요, 안동이?

A: 똑같아.

Q: 똑같아요?

A: 근데 반찬을 해 먹을지 모르니, 사 가지고 이... 못 먹겠어서.... 그리고 다시 해야, 지금까지는 그런 단계이고, 이제 좀 더 있으면 눈에 익으면 더 낫겠나 싶어.

Q: 지금 적응하고 계신 단계이신 거죠?

A: 네. 지금.

Q: 앞으로 안동에 사실 생각 있으신가요?

A: 그건 모르겠어.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근데 동사무소에 있는 담당이, 사람 좋아요.

Q: 네, 좋으신 분이더라고요. 좀 전에 뵈는데.

A: 사람이 좋아가지고 저 사람도 얘기를 할 때, 혹시라도 뭐 취업이나 좀 하면 이게 다 없어지니까 잘 알아보고 그거 되면, 자기한테 와서 상의를 하래. 어느 쪽으로 일이 나온가 해보고... 그렇게 하라고. 사람이 말이라도 그렇게 하니까 신뢰도 가고. 사람이 좋아.

Q: 많이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크게 법이나 이런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선생님 혹시 취업, 그런 훈련 프로그램 같은 게 있으면 참여하고 싶은 생각 있으세요?

A: 그러니까 그게요, 있다고 해도 못 한다니까요.

Q: 아, 있어도? 참가하기 어렵다는...

A: 내가 저번에 복지관 내려갔을 때, 그런 소리 하길래... 뭐뭐 있냐 그러니까 도배도 있고 뭐 그래.

Q: 도배는 힘든데요?

A: 아니지요. 힘들어도 내가 먹고 살아가면 괜찮은데... 내가 이거를 못 드니까, 오십견 얘기를 하면 그럼 그건 안 되겠다고 하고. 그럼 마땅히 그 사람도 나한테 해 줄 게 없어요. 그럼 이제 회사에 취직을 해야 되는데... 취직하면 이게 다 없어져 버리니까...

Q: 안되네요. 진짜 그런 건.

A: 그리고 오십견 되고 회사 취직하면 병원에도 못 간다고 하니까. 일주일 내내 못 가요. 병원에도 가면 물리치료 하는 아가씨들 최소한 4시 반까지는 오라고 하는데, 자기들도 퇴근 시간 1시간 전에는 청소도 해야 되니까, 4시 반까지는 오라고 하는데. 어느 회사에서 미쳤다고 4시 반 되면... 3시 반 되면 집에 보내주겠냐고, 보내주는 회사가 어디 있냐고.

Q: 그렇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선생님 건강 상태에 맞고 병원 가는 걸 좀 고려해 줄 수 있는 직장만 있다면야 다니시면 뭐 열심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A: 나는 뭐 산불 감시하는 거 괜찮고.

Q: 그게 없군요. 안동에 산이 많아서 있을 것 같은데 없네요.

A: 없대요.

Q: 근데 공무원 선생님이 이런 저런 정보를 많이 제공해 주시나 봐요.

A: 그 때 이제 한 번 받고, 나머지는 내가 복지관, 나는 뭐 복지관이 뭐하는덴지도 몰랐고... 그냥 뭐 성금 내라고 하면 성금이나 주고, 뭐 좋은 데 쓰겠지. 난 이런 식으로 살아왔지. 전혀 나는 이걸 뭐 장애 수당인지 기초수급이 이게 뭐고, 그냥 kbs로 가면 가는갑다 이런 맘 있었지. 나는 이게 될 줄은 몰랐고... 사람이란 앞 일 모르는 건데... 이게 되어버리니 이제 와서 생활...

Q: 장애인 복지관 어떻게 아시고 전화하신 거예요? 선생님이 알아서 전화해 보신 거예요, 아니면 누가 거기서 전화해 보라고 알려주셔서 전화하신 거예요?

A: 아,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Q: 아, 그 아침에 같이 치료하셨던?

A: 그 하는 사람 중에 자기는 10월 달에 복지관에 전화해본대... 그래서 복지관이 뭐예요?

Q: 아, 그런 식으로?

A: 그래서 내가 114 걸어가지고 복지관 안동에 있는 거 다 대봐라. 그래 경북 지체...

Q: 장애인 복지관이요?

A: 거기하고, 여기 직업? 직업? 복지관인가, 거기하고 장애인 복지관하고, 세 군데인가 네 군데인가, 세 군데 전화해보니 일단 내가 이게 내 통증이 없어야지 살아나가는데 통증만 없어지면 복지관 갈 필요도 없어요. 나는 여기서 노가다를 가도.

Q: 그럼 여기 수급자 중에 아시는 분, 그 때 같이 일하시던 분들 근로하셨던 예를 들어서 일곱, 여덟 분 아시는, 다른 분들 아시는 분은 따로 없으시지요?

A: 없어요.

Q: 그럼 그냥 통, 반장 정도만 아시는 거고?

A: 통반장도 몰라요.

Q: 아까 통장님께서 소개시켜 줬다고?

A: 아 그건 그 때 처음엔 이사 왔을 때... 주인하고 이야기 하고 그랬을 때... 위에 그리 되가지고 이야기, 이야기 해 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그건 뭐.

Q: 따로 보신 건 없고요?

A: 아 그때 언제고, 아침에... 저거 뭐야 쓰레기 봉투, 쓰레기 봉투 가져왔어.

Q: 그런 것들 빼고는...

A: 그 양반도... 그것만 주고 확 가버리고.

Q: 거의 아시는 분, 진짜 없으신, 여기서는.

A: 난 진짜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는. 제일 많이 보는 사람은 그 저...

Q: 같이 일하셨던 사람들?

A: 일했던 사람하고 그 동사무소 직원들, 주사... 담당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은 볼 일이 없어요.

Q: 시청에서 그 처음에 신청하셨을 때 들어가서 상담하고 그러셨잖아요. 그때 공무원이 자세하게 잘 안내해 주시던가요, 친절하게?

A: 예. 사람이 좋아. 솔직히 한다고 하다가 불친절하다 하더라도 사람이 이래 있어서 불친절하다고 하면 어떡해요.

Q: (웃음)저희들은 상관없습니다.

A: 그런데 불친절하지는 않아요.

Q: 그럼 판정은 대개 어렵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던가요? 아니면 딱 이렇게 설명 하나...

A: 그거는, 동사무소에서 김○○ 주사가... 그 사람이 나한테 이야기를 싹 다 해줬어요. 다 해주고 통장 만들어라 뭐 뭐 해가지고 서류 가져와라 해가지고 넣고... 또 거기서 전화 와가지고... 그 전에 아가씨가 한 사람 와가지고... 내 사정이랑...

Q: 보시고?

A: 아저씨는 일 하면서 수급을 받는 걸로 합시다 해가지고,.. 그래서 나도 먹고 놀면서 돈 받을 이유는 없다 그러고 내가 해달라는 대로 해줄게. 그래 나는 그때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아 수급비 31만원 나오고, 일하고 2주 후에 그 사이

에 또 나오고 하루 2만 천원인가 이렇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달에 한 20일만 해도 40만원, 70만원 내 돈으로...

Q: 되겠다 생각했겠다.

A: 계산해보니까 겨울 나겠다 생각했는데, 이게 택도 없는기라요. 이게 아니더라니까요. 그래서 시청 가보니까, 시청에 전화와가지고 들어가니까 그러는 게 아니고 고서... 고 월급에서 고 월급이 기초 수급비니까 근데 거기서 쪼매 더 나간다 하니까. 처음에는 한 40에서 한 50만원 더 나간다 하는데... 그런데 9월 달에 내가 30, 한 39만원 돈밖에 안됐어. 거서 내가...

Q: 차라리 더 그 금액이 좀 높으면 더 나왔을 텐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일하신 걸, 지금 아마 공제를 하다보니까 일부만 공제하다보니까 선생님 생각에는 한 70만원 돈 나올 줄 알았는데, 그걸 공제하다보니까 한 40만 원 정도밖에 안 된 건데, 그게 폭이 좀 더 넓어졌으면 더 나오셨던 거네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A: 돈만 주면 좋죠.

Q: (웃음) 기꺼이 일도 하고 그것도 할 수 있었을 텐데.

A: 나는 괜찮아요. 일하는 방향으로. 나도 정부도 그 정도는 없다고. 내가 일하면서 돈 받은 게 슬프기도 하고 했지만, 내가 생각을 잘못했어. 설명을 내가 잘못 들었어요.

Q: 근데 주변에 보면 어떤 분들은 일 안하시고 돈 받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몸이 더 안 좋으신 분들은...

A: 몰라요. 모르겠어요.

Q: 아직 정보를 가지고 계신 게 없으시군요.

A: 우린, 저는 일하면서...

Q: 다 비슷한 그런 조건이시니까.

A: 팔 아프고. 장애 좀 있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일 안하고 돈 받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6명인가, 7명인가 그랬지.

Q: 그럼 어떤 지역,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진단서를 이렇게 부풀려 가지고 더 아프시다고 하셔가지고 근로를 안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A: 아무래도 그런 사람 있겠지요. 뭐 한번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없어요.

Q: 그런 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A: 한 번씩 보면 짜증나기는 있지만, 그래 네가 먹고 살려면 우야겠노 하고 이해를 해줘야지, 그걸 갖다가 동사무소에 가면...

Q: 그러면 팔이 다 나오시면 배우고 싶은 기술이나, 하시고 싶은 일이나 그런 게 혹시 있으세요?

A: 저요, 배우고 싶은 기술이요? 돈 많이 벌고 싶은 기술.

Q: 그거는 있으면 저도 배우고 싶습니다. 그냥 빨리 신용불량도 다 벗어나시고 다 나서서 빨리 그냥 식구 분들이랑 다시 옛날처럼 사시길 바라시겠네요.

A: 아유. 식구, 사람이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져서 그런 생각은 안 해요.

Q: 자제분들도.

A: 애가 그냥, 애가 그냥 내가 때 되면 도와주고... 그럴 때. 사람 몸도 멀어지면 마음도 다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Q: 애들도 보고 싶고 그러시겠어요?

A: 그런 건 이제. 사람 눈물 나요. 그런 소리 하지 마소. 거기 좀 열어 보이소.

Q: 아니, 괜찮습니다.

A: 잡수이소. 대구에서 가져 온 포도즙인데.

Q: 선생님 드시라고 저희가 드린 건데, 저희가 많이 축낼 순 없죠. 저희가 한명만 왔으면 먹는데.

A: 난 이걸 많이 먹으면 안돼요.

Q: 많이 드시면 안돼요? 당뇨 때문에?

A: 내 친구 집에 있다고... 사 가지고 왔는데 내가 성의를 봐가지고 가왔는데...

Q: 선생님 식사 조절 같은 것도 조심해서 하셔야겠어요, 식사 같은 것.

A: 나는...

Q: 좋은 것 같은데요, 선생님 대개 좋아 보이는데요. 잘 먹겠습니다.

A: 저 뒤에 가위 있습니다.

Q: 선생님 성격이 깔끔하신 것 같아요. 싱크대를 딱 보니까.

A: 이거 딱 위로 올려서... 마음을 다 잡았어.

Q: 선생님 뭐 정부에 하고 싶은 말 같은 것 없으세요? 이 제도에 관련해서... 의료급여 말고도 또 혹시 더 필요하시거나.

A: 나는 근데 이제 뭐 보통 사람들하고 신용, 이게 걸리게 되고 나는 좀 특별한 사람이니까. 사람들을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이 없어요. 신용에 문제는 없어요. 아프고 하니까. 아프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은 안동에... 이 동네는 전부 토박이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위 여건은 나보다 낫지요. 나운데, 거의 뭐 쪽방에 사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데... 이걸 돈이, 또 내 생각만 하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돈이 들어가는 게 있는데... 나는 몇 십만 원... 돈이 그때 뭐 처음에 10% 인상하면, 10% 인상해도 33만원인데, 10%면 3만3천원인데... 그래봐야 나는 진짜. 진짜요, 지금 술은 내가 지금 끊었어요. 2월 12일

날 이빨 때워서 탁 끊었다가 추석 때 돼서 서울 올라가지고 막 심각 해가지고 술 먹고 내려와서... 이번에 9월 달에 일 끝나면서 그 때 시장 상인들이랑 한번 마셨죠. 이거를 끊어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진짜 못 끊겠어.

Q: 담배.

A: 혼자 있으면.

Q: 그쵸. 그나마 이게 제일 친구지 않습니까?

A: 술은 내가.

Q: 선생님 더 질문하실 것 있으세요? 좀 젊으신데, 그렇죠?

A: 아니죠. 내가 50이래요.

Q: 50입니까?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40대 한 중반 정도밖에 안 보이는데.

A: 내가 50.

Q: 앞으로 희망이라고 해야 되나, 계획 이런 거. 나름대로 좀 구상하신 게 있으실 거 아닙니까?

A: 지금은, 그런 건 내가 지금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하여튼 그 먹고 사는 거 그 일밖에 없어요. 처음에 여기 올 때... 내가... 아무도 모르는데 1년 고생해 가지고 자리 좀 잡자 생각하고 왔는데... 여건이 그리 안 돼.

Q: 그럼 한 5년 뒤 쯤에는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시는 게 있으세요?

A: 5년 뒤쯤에 저 산 아래 들어가서 혼자 사는 거... 진짜예요.

Q: 도인되시는 식으로.

A: 내 먹고 살 거하고, 농사짓고... 내가...

Q: 아, 농사도 해보셨습니까?

A: 농사 안 해봤어요. 하면 되는 거지 뭐...

Q: 꽤 어려운 것 같던데, 보니까.

A: 그렇겠지요. 실패도 많이 해야 되겠지.

Q: 그럼 그렇게 할, 준비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여건이 되면 이제.

A: 준비야 항상, 계획이 다 세워져있죠. 그게 실천이 그게 어려워가지고...

Q: 자활이나 창업지원 프로그램 이런 데 농업, 농사 이런 것도 하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게 없네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아서. 귀농하신 분들도 계실텐데. 선생님한테 잘 맞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A: 귀농이, 귀농이 그게 됩니까? 안되지... 귀농이라 하면 자기가 살던 대로 가는 건데 내가 대구에서 대구로...

Q: 엄밀하게 하면 귀농 아닌데. 저도 지금 서울에, 아까 말씀 드렸던 수원에 살다가 서울에 딴 데 사는데, 와이프 고향이 완도라서 저도 좀 이제 웬만하면... 좀 벌면 완도 가서 농사나 지을까 그 생각하고 하는 식으로. 그리고 어른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른들한테 배워도 되겠다 싶은 게 있어서 저도 그나마.

A: 나는 내 생각에 사람은 사람끼리 모여서 살아야 되는데, 도시에 사는 사람은 도시에 살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아유 나는 이제 디(테여) 가지고...

Q: 사람 만나는 게 제일 두려우시고?

A: 나는 뭐든지 일도 뭐 난 성격이 그래요. 겁은 안 내요. 일이 암만 많아도... 내가 뭐 하면은 이만하면 됐습니다, 가면 되는 거고. 난 할 만큼 하면... 난 그런 주위지, 일이 많다고 처음부터 겁나고 그런 건 없어요. 원래 그래, 내가... 성격이... 우리들 조선소에서 자격증 딸 때도... 그거 시험 칠 때도 그 노르웨이 기술자

그 새끼 지켜보면서 해도... 지가 있던가 말던가... 술 한 잔 먹고 다했다니까.

Q: 긴장 안 하시나 봐요. 그럼 자격증도 있으신 거네요?

A: 우리는 조선소자격증, 6개월.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 회사가면... 저 쪽에서 나오겠지.

Q: 지금 그걸 쓸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죠? 그 자격증을 가지고.

A: 그거는 조선소 밖에 없어.

Q: 아깝네요. 이거는 저희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얼마 안 되지만. 저희가...

□ 수급자 18

- 조사지역 : 농어촌(전남 영광군 대마면)
- 가구유형 : 일반 가구 / 장애 가구
- 수급유형 : 현재수급
- 수급기간 : 1997년부터 약 10년 동안 수급
- 응답자 가구사항

가구주와의 관계	연령	성별	직업 및 경제활동	장애여부(등급 및 내용)
본인(가구주)		남	자활사업 참여	장애 6급
배우자		여	근로활동 중	필리핀인
자		남		
자		남		

※ 응답자 본인을 1번으로 기록할 것

- 주거상태

주거시설(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난방, 수도시설 등)과 주거지환경에 대한 간단한 묘사(교통입지나 직장, 학교와의 거리 등)
작은 방3개, 부엌, 화장실이 있음. 마당에는 소 5마리 정도가 있는 축사가 있음. 난방은 기름보일러로 함. 시골마을이기 때문에 버스는 하루에 몇 대 오지 않음. 출근할 때는 오토바이를 이용 함. 전형적인 시골마을로 주변에 형제와 친지들이 살고 있었음.

○ 조사평가

조사전반에 대한 느낌 - 조사를 마친 후 조사자가 직접 기록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아 현재 장애 6급으로, 말이 어눌하여 알아듣기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매우 성실히 열심히 대답해 주심. 근로의욕이 많고 탈빈곤에 대한 의지가 강하였음. 수급 받는 것에 대해 정부에 감사하는 마음이 많았음. 언젠가는 수급을 탈피하려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려고 함. 집 마당에 축사가 있었는데 그 것을 통해서 탈빈곤 수단, 자녀교육자금, 노후대책을 마련하려는 의지가 강하였음.

Q: 아버님, 저희 녹음 좀 할게요.

A: 네.

Q: 어머니는 어디로 일하러 가신 거예요?

A: 지금, 우리 자활하고 비슷한 성남원 일해요.

Q: 성남이요?

A: 성남원. 거 자활하고 비슷한 기관이에요.

Q: 비슷한 기관 가서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토요일도 일하시네요?

A: 거기는 토요일 오전까지 일합디다.

Q: 그럼 일주일에 6일을 일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A: 한 달에 하루, 하루인가 빼서 휴가라고 그런 것도 준답니다.

Q: 그럼 아버님이랑 다른 곳에서 일하고 계신 거죠?

A: 저는 자활센터에서 일해요.

Q: 자활센터에서 일하시고, 어머니는 좀 비슷하지만 다른 곳에서?

A: 네. 두 사람이 비슷한 기관에서 일을 해요.

Q: 아버님 지금 죄송한데, 몸이 좀 불편하신 거 같은데.

A: 예, 장애6급이에요.

Q: 그럼 언제부터 몸이 불편하셨어요?

A: 어릴 때, 소아마비로 인해서고.

Q: 아, 소아마비로 그러셨구나. 어머니는 그럼 불편하지는 않으세요? 건강하세

요?

A: 국제결혼 했어요. 통일교에서 국제결혼 해갖고 지금 살고 있어요.

Q: 아, 그럼 어머니는 국적이 어디서?

A: 필리핀이요.

Q: 아, 필리핀에서 오셨어요?

A: 예.

Q: 언제?

A: 올해가...97년도에 우리가 결혼했어요.

Q: 아, 그렇구나. 그럼 이제는 말이라든지 살림하고 그런 건 적응이 다 되셨어요?

A: 네.

Q: 처음에는 되게 힘들셨어요?

A: 네. 처음엔 여기 분들도 같이 맡아서 이제 사시려면 아무래도 힘든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잡고, 언어잡고 하다 보니 암만해도 더 힘들죠.

Q: 아, 그렇구나. 그럼 어머니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A: 지금 애기 엄마 지금 서른아홉이요.

Q: 아, 그럼 나이 차이는 그렇게 많이 안 나시는 편이신거죠? 아버님이?

A: 저하고 6년 차이.

Q: 여섯 살 차이 나시는 거예요? 아버님 마흔 다섯 되시죠?

A: 예.

Q: 애기들이 학교 다녀요? 큰 애기?

A: 지금 내년에는 이제 입학시켜야죠. 지금 일곱 살 먹었으니까.

Q: 지금 일곱 살이고? 그러면 막내아들이?

A: 둘째가 지금 네 살 먹고.

Q: 아, 일곱 살 네 살, 이렇게 세 살 터울이네요. 아 그렇구나. 뭐 첫째나 둘째는 유치원이나 뭐 이런데 다녀요?

A: 예. 둘 다 다 유치원 다녀요.

Q: 국가에서 그러면 보육료는 나오죠, 아버님? 지원 받으시고?

A: 다 지원해갖고.

Q: 아버님 혹시 일하시는 건 어떤 일 하시는 거예요?

A: 지금 관광, 관광지 돌아다니는 일, 쓰레기 같은 거 이제 꽃 같은 거 옮기는 일, 꽃 같은 거 옮기는 일 해요.

Q: 그런 일을 하시는구나. 그거를 일주일 5번 매일매일...

A: 예. 돌아가면서 매일 해요.

Q: 국가에서 그 수급은 언제부터 받으셨었어요?

A: 국가에서 수급은 IMF 오고 나서는 1년인가 2년 있다가. 그 때 당시에 이제 어머니도 나오고, 나도 나와 갖고. 둘이 저소득으로..살 때였어요. 근데 한 2년 인가 여기 오기 전 2년 살다가 IMF가 왔어요. 그래 갖고 형님 친구 분 이제 너 결혼해야 한다고 했는데 결혼도 못 한다고 해 갖고 정년퇴임, 3년인가 거기 형님이 쫓아 다녔어요. 그래서 이렇게 결혼하게 되어갖고 이렇게 살게 되었지.

Q: 좋으시겠어요, 아버님. 그럼 한 99년 이 때 정도부터 받으신 거네요. 거의

제도 생기고 나서 거의 바로 받으신 거죠. 2000년도에 생겼으니까.

A: 한 그러니까 내가 한 99년인가, 2000년인가 그때 받았죠.

Q: 그럼 생활보호제도일 때부터 받으셨던 거예요?

A: 예.

Q: 그리고 나서 제도가 좀 바뀌었잖아요, 아버님? 그리고 나서 좀 급여가 많아
지셨나요?

A: 급여는...

Q: 별로 변화가 없는데?

A: 급여는... 별로 변화는... 거 조금 변한 거 같지만. 걱정하는 걸 조금 더 줄이다가 이
제 내가 여기 자활을 2001년도에 시작했어요. 들어왔어요. 그래 갖고 이날 이때
까지 하고 있지.

Q: 아, 2001년부터?

A: 예.

Q: 그때부터 자활 일을 하셨다고요?

A: 예. 연간 취업이 2001년.

Q: 2002년이요?

A: 2001년도.

Q: 2년도?

A: 1년. 그래 갖고 취업, 일해야 그게 자활이 된다 그래서.

Q: 일을 해야지 자활 된다고 해서 하신 거예요?

A: 그때는 공공사업을 해다가...

Q: 공공근로 하시다가?

A: 예. 2000년대까지 공공근로 하다가 이제 수급자라 해갖고 3단계 해먹고 쉬라고 합디다. 쉬라고 해서 이제 장애인협회에도 가갖고 일자리조까, 이제 가진 거 같고 해갖고 일자리조까 알아봐달라고 해갖고, 장애인협회에서 한편 농공단지 거기 알선해 줘갖고.

Q: 아, 장애인협회에서요?

A: 거기서 한 6개월인가 벌어먹었어요.

Q: 농공단지에서 6개월 정도 일을 하셨어요?

A: 그니까 함평 농공단지.

Q: 함평이면 여기 말고?

A: 네. 저기요.

Q: 그럼 함평에서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A: 예.

Q: 어우, 거리가 꽤 되셨을 텐데.

A: 나 영광까지 오토바이 타고 나가면, 영광서 이제 거 봉고차 해서 봉고차가 와서.

Q: 아, 데리러 오시는구나. 6개월 하시고?

A: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가 집 같은 거 원자력에서 인제 유리석면 주워가지고 했는데, 사람 폐가 안 좋아요.

Q: 그렇죠. 공장에서 유리 쪽 하신 거예요? 유리 석면?

A: 유리 석면 같은 그런 거. 근데 쇠하고 나무 같은 거 섞인 거예요. 그러다보니 아무래도 폐가 안 좋아요.

Q: 폐가 안 좋아서 그만 두신 거예요?

A: 예. 그래 갖고 이제 농사를,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 갖고 나 뭐 주면은 없고 이제 회사에서 뭐 주면 없고 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요. 그래서 대마 면사무소로 쫓아가갖고 나 이거 받고는 못 먹고 살겠다 그러니까 이제 면 사무서도 어디 나 자활 알선을 해 준거예요.

Q: 아, 이쪽 영광 지역자활센터로 가시고?

A: 예. 그래 갖고 그 때부터 일 했죠.

Q: 그럼 자활에서 일 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A: 지금 횡수로, 지금 2008년도니까 횡수, 8년 됐네. 2001년도부터.

Q: 2002년부터?

A: 2001년.

Q: 1년도부터? 자활사업을 하셨다고요?

A: 예.

Q: 그럼 자활하시기 전에는 공장도 일 하시고, 농사도 있으시고?

A: 농공단지. 농사도 좀 짓고.

Q: 농사도 지으시고? 그러면 부인 분도 결혼하시고 계속 일 하셨겠어요?

A: 아니요, 작년부터. 거 영광 새마을 여성의 전화해서 거기 이제 다니다가, 거기서

알선을 해갖고 여기 대마 아동 복지관에 거기 영어 선생님이로 넣어 줬죠.

Q: 아, 아동 복지관에서 영어 가르치고 계시는구나.

A: 아, 그래 갖고 이제 그것도 말이 안 통했고 그러다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스트레스를 좀 받아 갖고, 다른 일을 연계해줘라 해서 지금 영광 종합병원에서 지금 간병사로 일을 해요.

Q: 아 지금은 간병인 하시고요? 처음에는 영어교사 하시다가?

A: 예.

Q: 그럼 잠, 여기서 생활하시는 거예요?

A: 아니요. 여기가 안방이에요.

Q: 아, 이쪽이 안방이에요, 아버님?

A: 예.

Q: 여기는 그럼 아이들 자는 곳?

A: 아니요. 여기는 이제 겨울에 기름 값 비싸면 안방, 방 하나에서 지내고. 아직은 어리고.

Q: 그러면 안방이고, 작은방이고, 여기 부엌이 있는 거죠, 아버님? 화장실은 어디 있어요?

A: 화장실은 이쪽 밖에. 이쪽에. 하우스 옆에.

Q: 그럼 여기 따로 집세나 이런 거 나가시는 거 있으세요, 아버님?

A: 집세는 나가는 것은 없고 여기 지 건물, 건물은 저쪽 위에서 살다가 건물은 사 갖고...작년부터 집터를 사려고 그랬는데.

Q: 아 집만 사셨으니까 집터를 사려고 하시는데?

A: 작년까지는 여유도 없고 올해나 한번 소 새끼라도 낳고 그러면...

Q: 소도 아버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A: 한 마리 갖고 시작해 갖고 지금...

Q: 오, 많이 늘었네요. 보니까 네, 다섯 마리 되던데.

A: 예. 다섯 마리예요. 한 마리 갖고 키우면서 이제 생활이 팽구나면 이제 새끼 팔아 갖고 팽구 때우는데 다 들어가요.

Q: 그래도 많이, 많이 느꼈어요, 가축이. 소도 팔고이래서 올해는 집터 사시려고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A: 집터, 집터. 한 150만 원인가 그 투기꾼들이 옛날에 산에 가서 지도 단종쪽으로 넘어 가 갖고 이 바로 산 뒤에서 넘어갔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이 앞으로 들어온 다고 투기꾼들이 땅을 사 놓았는가 봐요, 집터를. 농지는 그 때 당시에 정부에서 농지는 외부로 차단되어 갖고 못 팔게 했고.

Q: 그럼 집터는 얼마정도 해요, 아버님?

A: 집터는 그 사람들이 부르기로 한 200만 원 정도 주라 그러대요.

Q: 200만원이요?

A: 200만원.

Q: 그럼 겨울에 난방은 뭐로 하세요?

A: 기름이요.

Q: 기름 비싼데.

A: 그래도 이제 나 여 길동 양초에 하계가 되면 겨울에 여러 종류 나무를 때주더라고요. 근데 내가 2~3년 전에 소를 팔았고 지붕도 하고 막.

Q: 지붕 보수를 해서? 소가 큰 재산이네요, 아버님.

A: 소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버텨나가지, 그렇지 않으면 집터에서 살 수가 없지.

Q: 다 계획을 잘 하셨고요, 아버님. 소도 키우시고, 생각도 하시고. 요즘은 소가 한 마리에 얼마 정도 해요?

A: 지금 한 한 마리에 한 300 만원 돈.

Q: 어유 비싸네요, 소 한 마리가.

A: 예. 지금 내려서 그렇지 암놈 새끼는 한 4~500 정도 해요.

Q: 한우죠, 아버님?

A: 예.

Q: 우와, 달라.

A: 지금 정부에서 이제 그 FTA 타결 해갖고 조금씩 덜 받는 편이죠.

Q: 소 값이 많이 깎였구나.

A: 지금 소 사료 값이 한 포대에 만원도 더 들어. 사료 값만 해도 내 월급 절반이 사료 값으로 나가거든요. 절반이 이제.

Q: 그렇잖아. 소 먹이는 게. 아버님 월급이 어느 정도 되세요?

A: 한 22일 되면 70만 원 정도 되고.

Q: 어머님은?

A: 애기 엄마랑은 그 정도 돼.

Q: 그러면 국가에서 보조금, 그 돈으로 주는 건 거의 없겠네요, 아버님?

A: 5만원인가, 뭔가.

Q: 아, 장애수당? 장애수당은 따로 받으세요?

A: 아니.

Q: 그것도 안 받으시고?

A: 장애수당이 언제는 한 3만원인가, 얼마인가 넣어 주던데. 나 그 담에 넣어 주고
면사무소에서 도로 회수를 해갑디다.

Q: 회수를 해갔다고요?

A: 여기 자활에 다니니까 벌어먹는다 해갖고, 도로 가져갔어.

Q: 기초 생활?

A: 예.

Q: 그럼 나라에서 돈을 아무것도 안 받고 계신 거네요.

A: 지금 한 5만 원 인가...

Q: 5만 원 정도만 받고 계시고?

A: 5만 원 인가 얼마인가 나오겠죠. 지금 애기 엄마가 통장을 갖고 생활비를 빼서
쓰려고, 여기 온 후로부터 애기 엄마가 관리해요.

Q: 애기 엄마가 다 하시니까 정확하게 모르시는 거죠?

A: 예.

Q: 그렇구나. 그러면 아기들 보육료는 국가에서 지원이 되고, 병원가시면 의료비는?

A: 예. 의료, 의료 뭐 그 의료는 국가에서 영세민 2종으로 해 갖고.

Q: 지금 2종이세요? 병원에는 자주 가실 일 있으세요?

A: 아기들이 감기, 겨울에나 감기 자주도 걸리면 가죠.

Q: 병원이랑 거리가 멀지 않으세요? 다닐 만 하세요?

A: 좀 멀죠. 멀어도 어떻게 해요.

Q: 그 때도 오토바이 타고 아기를 데려가세요?

A: 아니요. 버스타고 다녀요. 아기들 아프고 그러면 내가 하루 빠졌다가.

Q: 병원에 가세요?

A: 병원 가고 그러면 이제 하루 빠지면 우리가 월차 이차저차 그 날 일 못했다고 그래서 한 돈 10만원 가까이 까져요.

Q: 그렇잖아. 월급을 까요? 액수로 계산을 하니까. 월급이 까지면 그만큼 정부에서 돈을 더 많이 주거나 그렇지 않아요?

A: 그런 건 없어요.

Q: 그런 건 없고요. 아버님 처음에 이거 하실 때, 이제 일을 해야지만 국가에서 이런 급여를 주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아버님이 생각하실 때 몸이 좀 불편하신 부분이 있고 아픈데, 내가 일을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은 하시진 않으셨어요?

A: 근데 우선 이제 가정을 갖고 살다보니 우선 벌어야 먹고 살겠으니까 그런 마음은 없었죠. 우선 이렇게라도 혜택을 정부에서 주는 게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일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 같은 조건은 어디 가서 일 해야 돼요.

Q: 국가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는 많이 만족 하시는 거세요? 아무래도 바깥에 나가서 그냥 취업하시기는 어려우시니까?

A: 예. 그래서 내가 앞으로 애들도 가르치고 어찌고 하려면 그래도 소를 안 놓치고 싸나, 비싸나 계속 붙잡고 메어가고 있어요.

Q: 소도 키우시고, 일도 하시고?

A: 그래야 나중에 애들을 대학교까지 간다고 하면 만약에 소라도 메어 갖고 소로 인해서 애들도 가르치고 나 노후 대책도 해야 되거든요.

Q: 와, 일의 계획이 아주 분명하세요.

A: 그렇게 안하면 도저히 살아갈 길이 없어요.

Q: 그렇구나. 다른 데 몸이 아프신 건 없으신 거죠?

A: 예.

Q: 당뇨, 뭐 이런 건 전혀 없으시고요? 허리 통증 이런 것도 없으시고?

A: 이제 허리 같은 건, 가끔 쪼까 빼고 하면 병원에 즉각 즉각 가고 하니까. 찾아갈 게 없어요.

Q: 아버님 지금 자활사업 참여하시는데 보통 시에서 읍면동이나 시군구 공무원이 아버님 그 자활사업 하고 계시는 게 잘 하고 계신지 가끔씩 뭐 전화를 하시거나, 아버님 오시라고 해서 뭐 이렇게 상담을 해주신 다거나 그런 게 있나요? 전혀?

A: 우리 자활 자체 내에서 이제 그런...

Q: 센터 내에서요?

A: 예. 센터 내에서. 이 때 가을쯤 다치면 그런 교육을 몇 번 해요.

Q: 아, 교육? 센터에서?

A: 예.

Q: 공무원이 뭐 하는 건 없고요?

A: 예.

Q: 센터에서 하는 교육은 어떤 내용이에요, 아버님?

A: 이제 우리 관장님이 이제, 병원팀에서 맞춰서, 기독교 팀에서 맞춰서 한 게 우리에게 유익하게 그런 일도 하고 그렇니다. 막 나같이 이제 말 한마디 남한테 하더라도 자신감이 없는. 앞에 나가서 스피치 하라고 해갖고, 앞에 나가서 발표 같은 거해서, 그런 게 남 앞에서 말 한 마디라도 해주는 그. 한 2~3년 전에 그런 교육을 했어요.

Q: 교육을 해도 월급이 나오는 거죠, 아버님?

A: 예. 이제 시간을 쪼개 갖고 이제 일을 오후 한 6시까지, 우리가 이제 6시까지 일을 마치는 시간이예요.

Q: 9시부터 6시까지?

A: 예.

Q: 일주일에 다섯 번 가시는 거죠?

A: 그래 갖고, 각자 한 4시에나 이제 들어 가갖고 교육도 받고.

Q: 저녁에 시간을 조금 내서. 그 교육들이 도움이 되셨어요?

A: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어디 가서 발표 의욕도 없고 그러니, 암만 해도 그런 것도 좀 나한테는 도움이 되고.

Q: 앞에 나가 말하는 것들이 훈련이 되셨네요. 말씀 굉장히 잘하시는데요, 조리

있게. 아버님 혹시 그럼 다른 직업 훈련 같은 건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A: 직업훈련 같은 건 이제 초창기에 우리 실장님이 거시기 전자계통 쪼까 서비스 따라다니면서 배우라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국민학교 나왔는데 영어 같은 거 전자제품이 다 영어로 써졌는데, 그걸 한 1년 정도 따라다녀서 배워도 안 되겠더라고.

Q: 전자제품 수리하고 이런 걸 배우셨는데 영어로 써져있고 그래서?

A: 배우고는 싶은데 저번에 그것이 힘들어요.

Q: 수급받기 전에 교육 받으신 거예요?

A: 아니.

Q: 수급 받고 나서서요?

A: 여기 자활에 와서.

Q: 아, 자활에 와서 실장님이 소개해 주신 거예요? 근데 안 맞으셔서 그거 안 하시고 지금 다른 일 하고 계신거구나.

A: 네, 지금 이렇게 자활에서 일하고 있어요.

Q: 혹시 아버님 다른 거 배우고 싶은 거 없으세요?

A: 배우고 싶은 것은 내 앞으로 이제 차도 늘어가고 어찌고 하면, 운전면허증이라도 따 갖고 이제 사료라도 싣고 왔다 갔다...

Q: 아, 운전면허증이요?

A: 예. 나 운전면허증에 한번 도전한번 해봐도 그게 좋을 거야.

Q: 그럼 지금 하시는 일은 뭐 아버님 적성이나, 하고 싶은 마음에 어느 정도 마음에 드세요? 잘 맞는 것 같으세요? 처음에 일을 배치할 때는 그 쪽에서,

센터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이 일을 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아니면 아버님이랑 이야기를 하고 이런, 이런 게 있는데...

A: 근데 대개가 선택해서 하게끔 해요.

Q: 아, 선택해서 하게끔?

A: 네. 몇 개 팀이 있는데 어느 팀에 가서 일할 건 자기가 이제 선택을 해요.

Q: 아버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A: 예.

Q: 이렇게 만족을 하세요?

A: 예.

Q: 선택하신 이유가 어떤 게 좋아서 하신 거예요?

A: 굉장히 제가 손이 둔하잖아요. 쥔 처음에 청소팀에서 일했는데, 청소 같이 이준마들하고 같이 있다 보면 내가 동작이 느려 갖고 아줌마들이 다하고 나는 못 따라가니깐 내 매번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게 되서.

Q: 힘들시게 되셔서?

A: 그래 갖고 아까 한 2년은 하다 그랬잖아요. 제 팀장님한테 나 도저히, 옆에 사람들은 아무도 말도 안 하는데 내 자신이 일을 못 따라주니까 스트레스가 쌓여서 못 하겠다고 팀을 옮겨 주라 그래 갖고 그래서 옮긴 거예요.

Q: 옮기 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A: 옮긴 지 한...지금 작년 봄에 연계해 갖고 지금 여기.

Q: 그 전에는 청소 한 2년 하시다가 작년 봄부터 바꾸셨구나.

A: 청소를 한 2년 했어요.

Q: 오래하셨네요, 청소도.

A: 2년 하다가 그 앞전에는 영농을 했어요, 영농.

Q: 어떤 거예요?

A: 영농. 그러니까 고추밭 같은 거.

Q: 아, 영농사.

A: 농사 사업단에서 좀 하다가.

Q: 농사사업단이 자활 센터에 있어요?

A: 예. 한 2~3년 전에 1년 간 내가 농사사업단 했다가, 이제 타산이 안 맞으니깐 거기도 없애 버리고. 인제 거기서 청소팀에서 가서 거기 붙여주더라고요. 그러다가 안 맞아서 여기 왔죠.

Q: 자활센터에서 세 번째로 하시는 일이지요?

A: 아니요.

Q: 또 그 전에 자활활동 하셨어요?

A: 처음에는, 막 초창기는 푸드 마켓에서.

Q: 푸드 마켓? 많은 일 하셨다.

A: 그 다음에 푸드 마켓에서 초창기에 그 때 2001년도에, 푸드 마켓에서 하다가 11월 달 쯤 하고, 12월 달 한 달, 초창기라 한 두세 달 쉬었어요. 근데 시에 한 달 간 더 해야 하냐고 물어보니까 그 때 그 간병인이 비었다고 해갖고 간병인을 한 달인가 해봤어요.

Q: 간병인도 한 달 해보셨어요? 우와, 많이 해보셨어요.

A: 예. 병원 안에서 이제 중환자 이제 몸에 자기가 가누지 못하는 환자들이나 한 2~30명, 한 2~30명 있는 데서 해봤어요. 기저귀도 갈고, 그 안에 청소도 했죠.

Q: 그 다음에 청소 하신 거예요?

A: 아니요. 재활원이라고 이제 박스 같은 거 이제 병 같은 거 약국에서 가져가다 그런 일도 해보고 했지.

Q: 아버님 진짜 많은 일 하셨어요.

A: 근데 여기 자활에 들어와 갖고, 한 바퀴 돌다시피 했어.

Q: 아, 거의 다 하셨던 거예요. 지금 하시는 일이 제일 맞으세요?

A: 예. (전화벨)

Q: 어머님이신가?

A: 여보세요. 예. 손님들 와 갖고 지금 면담하고 있어요. 예. 우리 이제 먹고 사는 거, 면담하고 있어요. 쪼까 있다가, 아니 나 면담하고 여기 작은 집에 나갈까 하는데. 좀 봐주고 저녁에 갈게, 어머님. 저 쪽 도로가에다 널어놓은 거 같은데, 작은 아버지, 예. 그러니까 두시부턴가 작은 아버지가 나보고 오라고 한데 서울 서 손님들 오서 갖고 한 두시 넘어서 간다고 했는데 알았다 하고 끊으시던데요, 예, 식사하세요, 어머니. 응. 전 저녁에 가서 뵈게요.

Q: 어머님이세요?

A: 예.

Q: 여기 다 근방에 사세요?

A: 예.

Q: 다른 친척 분들도 사시나 봐요?

A: 예. 작은 집도 사시고, 큰 형님도 옆에 사시고.

Q: 아, 큰 형님도 계시고요? 그러면 뭐 어려울 때 도와주실 분들이 많이 있네요. 동네 분들도 계시고, 친척 분들도 계시고. 편하게 앉으세요, 아버님.

A: 아니. 추운 게 안방으로.

Q: 아니에요. 저희 안 추워요. 아버님 좀 불편하세요? 바닥이 차서?

A: 아니. 내가 추운데 추우시지라.

Q: 저희는 괜찮은데.

A: 아니면 부엌에 의자에 앉아서.

Q: 아, 옮길까요, 아버님? 좀 불편하시죠?

A: 예.

Q: 아기들 사진이 많이 있네요, 아이 예뻐라.

A: 이거라도.

Q: 아니요. 아버님 저희 정말 안 추워요. 안 추워요. 편하게 여기 앉으셔도 돼요. 불편하실 거 같아서. 아버님 오늘 많이 바쁘신가 봐요. 저희가 막.

A: 쉬고 있는데. 옆에 친척 분들도 도와드리고, 나도 도움도 받고.

Q: 그러면 좀 이렇게 동네 일 틈틈이 해주시면 그것도 소득이 되나요? 그 돈을 약간씩 주시는 부분도 있나요?

A: 이제 친척한테 가서 하는데, 이제 나 같은 경우 밥 같은 거 작은 집서 먹고 오고, 형님집서 먹고 오고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공짜로 먹고 온다 하지만 내가 가서 조금 더 도와줘야 내 마음이 편하잖아요. 밥 같은 것도 먹고 온다고 해도 내가 가서 할 수 있는 일은 해줘야 내 마음도 편하고 이제 내가 떳떳하고 하죠,

그 때는.

Q: 만약에요, 아버님. 지금 자활사업 참여하셔서 70만 원 정도 소득이 있으신데, 계속 일을 하신 경험이 있으니까 한 마디로 그냥 이런 바깥에 있는 일 자리에서 아버님 좀 근로 시간이 늘어나지만 월급을 더 줄 테니까 와달라고 하면 가실 의사도 있으세요? 만약에 그런 곳이 있다면?

A: 근데 영광지역에서 이제 내 몸에 맞게끔 있다고 하면, 가서 일은 한다고 하지만, 이 지역을 떠나서 한다는 건...

Q: 지역을 벗어나서는...

A: 모든 것이 방도 있어야 되고 내 가족도...

Q: 맞아요.

A: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지, 그래서 나도 여기 못 떠나고 있는 중이에요.

Q: 여기 일자리가 많이 있나요, 지역에?

A: 일자리는 없어요, 시골이라.

Q: 별로 없어요?

A: 예.

Q: 그렇죠, 아무래도 아버님 여기서 계속 사셨고 주위 동네 분들도 도움 있으시고 그래서, 여기를 벗어나셔서 일하기는 좀 어려우시겠어요.

A: 그리고 무엇이 있어야 방이라도 얻어 갖고 낮에도 나가든가 어떻게 하던가 하지.

Q: 아버님 혹시 나라에서 어머님 일 하는 거 알고 계세요?

A: 예.

Q: 그것도 정부에서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 일자리도?

A: 정부에서 해준 것 보다는 여기 여성의 전화...

Q: 여성의 전화에서?

A: 아시는 분이 소개를 해 주셨고.

Q: 두 분 같이 버시니까 그렇게 생활하기 많이 어렵지는 않으세요? 어떠세요?

A: 그래도 생활한다는 것 애기들 보험 넣고, 애기 엄마 암 보험 같은 거 넣고 하는데, 그런 거 저런 거 넣다보니까 아무래도 비슷해지더라고.

Q: 저축은 하세요?

A: 저축은 꿈도 못 꾀.

Q: 저축은 못 하시고?

A: 예.

Q: 공무원은 여기 이제 담당 공무원 있으시잖아요, 자주 연락하세요?

A: 가끔씩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전화가 면사무소에서 복지 팀에서 전화가 가끔 와요.

Q: 주로 왜 전화하세요? 무슨 일로?

A: 이제 꼭 필요하지 않을 때는 안 하지만 복지팀 아가씨가 필요할 때는 전화를 해가지고 뭐 좀 물어보고, 그런 쪽으로 전화하지.

Q: 필요할 때만, 일 있을 때만 전화하시고?

A: 예.

Q: 집에 찾아오거나 그런 일은 없고요?

A: 예. 그리고 낮에는 다 나가서 일하고 있고, 애들도 유치원 가버리고 거의 집이 비어 있으니까 언제 왔다갔는지도 모르지.

Q: 아버님 제도, 처음에 수급하실 때 제도 바뀌고 그럴 때, 공무원이 제도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셨어요? 예를 들면, 아마 아버님 자활사업 참여하시면 소득을 공제해 주잖아요, 30%. 그럼 그거 알고 계세요?

A: 그것은 모르는데.

Q: 그게 아마 아버님이 자활사업에 참여해서 70만원을 버시잖아요. 그러면 30%는 안 번 걸로 인정을 해주세요. 70%에 30%면 한 21만 원 정도는 그걸 소득으로 생각 안 해서, 아버님이 한 50만원 번다고 생각하시고. 아 그래서 5만원이 나오는 게 아마 그거를 30% 공제했을 때 아버님, 어머님 소득이 한 120만 원 정도 되니까. 4인 가족에 한 120 얼마 되죠. 현금 급여 받는 게. 그래서 5만원 더 주시는 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신 적 있어요?

A: 설명은 못 들어봤는데.

Q: 그러면 예를 들면, 소득이 더 많아져서 급여에서 탈락하면, 지금 다른 의료 급여나 이런 것도 못 받게 되는데 그런 거는 얘기해 주시던가요?

A: 탈락해 갖고 애들 병원비 같은 거 못 받는다면 진짜 역경을 헤쳐 나갈 수가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Q: 병원비가 가장 필요한 부분이신 거죠?

A: 애들이 많은데 많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그러면 진짜 어디서 날 때는 없고 참.

Q: 애기들 때문에 의료 급여는 받으셔야 하신다는 거죠?

A: 예.

Q: 제도나 뭐 이런 일하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신 건 아니시네요?

A: 근데 일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Q: 그럼 자활사업에 가라고 하신 거는 공무원이 알려줘서 가게 되신 거, 소개 해줘서 자활센터에 가게 되신 거고? 거기서 계속 일을 하고 계신 거죠?

A: 예.

Q: 그 공무원이 처음에 설명을 해줄 때 근로 능력이 있으시니까 일을 하셔야 된다고 설명을 해주신 거죠?

A: 내가 자활에 최초에 들어왔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조카 친구가 저랑 친한 조카 친구가 이제 팀장으로 있었어요. 말 들어보니까 내 조카 친구가 이제 삼촌 일 할 수 있다고 해갖고, 심사를 해갖고 저기 되었다고 그 말을 약간...

Q: 공무원이 알려준 게 아니라, 조카 친구 분이 팀장으로 계셔서 알려두신 거예요?

A: 아니, 알려준 것보다도. 옆에 사람한테 듣기에 그렇고.

Q: 일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신 거죠?

A: 예. 그러니까 이제 장애로 해갖고 이제 막 심사를 했는가 봐요. 이 사람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되나, 안 되나. 근데 조카 친구가 이 분은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갖고 이제 했는가 봐요.

Q: 아버님 혹시 주변에 다른 수급 받으시는 분들 중에 근로 하실 수 있는데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진단서 같은 내시고?

A: 그런 분들이, 우리 일 다니면서 가만히 보면 수급, 듣는 소리에는 수급을...막 신

청해 갖고 들어와 갖고 하고 막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그때 또 들고 잊어버리고 하니까 어떻게 말할 수 있는 입장도 안 되네요.

Q: 말씀하기가 좀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A: 예.

Q: 아버님 그럼 처음에 수급신청 하실 때는 누가 알려주셨어요?

A: 그 때 당시에는 작은 아버지가 광주에서 직장생활 하시다가 IMF 때 하기 전에 정년퇴직 했거든요. 그래 갖고 작은아버지가 마을 이장님으로.

Q: 마을 이장님으로?

A: 그래 갖고 IMF 오고, 이제 조카가 살 길이 막막하니까 수급자로 그때 작은 아버지가 신청을 해주셨어요.

Q: 아, 마을 이장님이시니까 알려주시고 신청해 주신 거예요?

A: 예. 그래 갖고 내가 공공사업 한 걸로 다, 공공사업 한 걸로 다 벌어들여 냐 했어요. 그러니까 빚 안지고 해 나갔어요.

Q: 지금 빚 하나도 없으세요?

A: 빚은.

Q: 아버님 대개 열심히 사셨어요. 그러니까요.

A: 우리가 결혼할 적에 그 비용이 한 800만원 들어갔어요. 그런데 공공사업하고 소 새끼 난 거 팔고 그렇게 해갖고 다 털어 갖고 되는 결혼비용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Q: 그 뒤로 빚은 안지고 계신 거죠?

A: 예.

Q: 와, 대단하시다. 아버님 지금 일하시는 곳은 댁에서 얼마나 멀세요?

A: 지금 영광 온천이 이제 시내인 게, 한 오토바이로 한 20분 그렇게 되지.

Q: 아 오토바이 타고 다니세요? 다니시는 데 불편하진 않으시고요?

A: 그런데 시간을 맞춰야 되고.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 다녀요.

Q: 위험하시겠다.

A: 위험하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잖아요.

Q: 지금 아버님 생각하실 때 이제 뭐 아무래도 바깥에서 일하시는 것보다 아버님 적성에 맞고 만족하신다고 했는데 그래도 좀 이런 부분이 좀 고쳐지면 아버님이 더 즐겁게 열심히 일할 수 있겠다 혹시 그런 부분도 있으세요?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이런 거를 그 기관에 전달하는 게 아니고요, 이 제도를 만드는 복지부에 전달을 해서 이걸 더 좋게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말씀해주시면 좋은 거예요.

A: 이 제도가 진짜 이제 저는 그래요. 이제 이 제도가 없었다면, 나는 이 가정도 꾸릴 수도 없게 했었거든. 그런데 이제 나라에 이거 해갖고 이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죽기도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도를 해갖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저는 정부 이제 우리나라 정부한테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도와주시는 것은 이렇고 또 가정도 인연으로 맺어지고 그래서.

Q: 그래도 감사하시는 마음이 너무 커서. 그런데 저희는 자꾸 이제 더 고쳤으면 하는 점, 사실 그런 걸 더 들으려고 왔는데.

A: 근데 막상 말을, 생각을 자꾸 하다보면 생각나는 말도 갑자기 떠오르지가 않고.

Q: 떠오르지가 않아서. 아버님 그럼 나라에서, 정부에서 지금 일을 하셔야 수급을 받게 하셨잖아요. 그 사실에는 별로 불만이 없으세요?

A: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불만보다도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내 가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고.

Q: 지금 일하는 건 아버님한테 어떤 의미세요?

A: 나는 지금 일 하는 것이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라고 생각해요.

Q: 너무 좋은 표현이세요. 멋지세요, 아버님.

A: 그렇지 않으면 내 가족을 어찌고 이렇게 이 가정을 이끌어 나가겠어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정부에서 해 주시고 그런 게 내가 이렇게라도 살고 모든 것이 다 하늘의 뜻인갑다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죠.

Q: 만약에요 아버님, 일을 안 해도 국가에서 지금 받으시는 월급만큼의 급여를 준다고 하면, 그래도 아버님은, 그렇게 해도 되고. 일을 해서 돈을 직접 버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면 그래도 일을 하시는 방향으로 선택하시겠어요?

A: 근데 사람이, 사람이 그냥 발전 없는 사람은, 제 마음은 그래요. 그냥 나가노는 사람은 나태해지고. 그런데 내가 나가서 일을 하면 떼떽하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그러다보면 사람이 이제 정보도 듣고 모든 것이 다 좋다는 거죠.

Q: 일을 하는 게 훨씬 좋으신 거죠?

A: 그렇지 않으면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사람이 정보도 다 단절이 되고 사람이 어두워, 대화 간에 어두워.

Q: 맞아요.

A: 근데 우리가 모여서 같이 일을 하다보면 이 말도 듣고, 저 말도 듣고 또 그리하다보면 나한테는 진짜 도움이 많이 되죠.

Q: 일을 하시는 게 너무 좋으신 거죠?

A: 같이 사람들하고 일하다 이야기하는 건 나한테 큰 도움이 되죠. 그렇지 않으면 어디서 정보를 얻어요?

Q: 맞아요. 아버님.

A: 테레비뉴스에서 얻는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사는 그 방식은 우리가 같이 부딪히면서 같이 저 사람은 저렇게 살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살구나, 나는 또 이렇게 나는 저 사람은 저렇게 살지만 나는 그 사람들 같이 안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

Q: 그런 마음도 드시고?

A: 그렇고 살아요.

Q: 같이 일하시는 분 중에 뭐 저 분은 참 배우고 싶다 이런 분도 계시고, 아니면 저 사람처럼은 내가 하지 말아야 겠다 이런 분도 계시고, 그런 마음이 드시나 봐요?

A: 예. 그러니 어떻게 해서라도 이 환경을 벗어나기 위하여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늘 갖고 살죠.

Q: 그럼 이제 환경을 좀 더 벗어나서 수급을 탈피하고 싶으신 마음도 있으신 거예요?

A: 사람이 아유 그런, 그런 꿈을 안 갖고 살면 어찌고 살아요? 이 환경을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다 그런 마음을 갖고서.

Q: 뒤에 애기들 두 명 있는데 자녀들한테 어떤 걸 제일 해주고 싶으세요?

A: 애들한테는 이제 즈그들.

Q: 다 해주고 싶으신 거죠?

A: 예. 건강, 첫째가 건강.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이 나중에 커 갖고 공부라도 잘하고

어찌고 한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대학교까지 간다고 하면 뒷바라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은 부모마음이지.

Q: 5년 후나 10년 후에 어떻게 살고 싶다 그런 계획 있으세요?

A: 그건 이 환경에서 벗어나 갖고 나도 한번 남부럽지 않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갖고 살기 때문에 이 상황에도 이렇게라도 버티고 살려고 하죠.

Q: 너무 잘 살고 계세요. 너무 대개 계획이 확실하셔서. 저희가 전국 다니면서 정말 여러 분 만나봤는데 아버님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A: 뭘 대단해요. 내가 살아온 걸 가만히 옆에 사람이 가만히 보면 IMF 왔을 때 소값이 딱 떨어지고 그때는 IMF 그 다음에 어쨌든 소값이 떨어져 갖고 소를 갖다가 막 팔고 마을에서 막 잡아먹고 그랬거든요, 초창기에. 근데 갑자기 소가 가격이 팍 뛰어가지고 애미 한 마리에 그 때 500만원, 600만원 인가. 그래 갖고 돈을 옆에서 소, 그 때 두 마리, 두 마리 있어 갖고 소를 옆에다 팔아 갖고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돈 1000만 원 정도 될거 랐는데. 소 가격이 떨어진 그 때 사라고 하는데 근데 사람이 돈 벌고 안 쓸 수는 없잖아요. 돈 있으면 나 같아도 쓰고 싶고, 그리고 또 돈 있으면, 돈이 빠져나갈 데가 또 생겨요.

Q: 또 돈 쓸 일 생기고?

A: 그러니까 돈도 없고...

Q: 소도 없고.

A: 소도 없고 그랬기 때문에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옆에서 그런 막 권유가 있어요. 근데 나는 내 생각대로 먹고 밀고 나가야되겠다 해 갖고 이렇게 밀고 간 거죠.

Q: 다행이네요.

A: 그렇게 안하면 도저히 살아갈, 빠져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라도 모든 것을 갖추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Q: 지금처럼만 계속 열심히 사시면 몇 년 후에는 진짜...

A: 숫자도, 그 중간에 수 놈 두 마리 낳은 놈 가지고 팔아서 축사도 짓고.

Q: 아, 축사도 지으신 거예요?

A: 네, 지은 거예요. 초가집 조그만 해갖고 옛날, 옛날 초가집으로 해 갖고.

Q: 집도 고치고, 축사도 지으시고? 계속 발전하고 계신 거네요? 아이들도 아버님이 너무 훌륭하셔서 가지고 공부도 잘하고 잘 클 것 같아요.

A: 예. 그러면 저도 좀 이제 고맙죠.

Q: 아버님 오늘 좋은 말씀 대개 많이 들려주셔서 저희가 도움이 대개 많이 될 거 같고요. 저희가 작은 선물 하나 마련했어요.

A: 뭘 선물이야?

Q: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해서요, 저희가 다 드리는 선물이 있거든요. 잠깐만요.